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9월 1일)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0월 1일 승보종찰 송광사서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입재했다. 사진은 송광사 괘불 앞에서 불교 중흥을 위한 순례 의지를 다지는 입재식 봉행 모습.

통도사, 차기종정 후보 성파스님 추대

9월 25일 회의서 결의… 성파 스님 "대중 뜻 따를 것"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방장 성파 스님<사진>을 차기 종정 후보로 추대했다. 통도사는 9월 25일 주지실에서 회의를 열고 방장 성파 스님을 차기 종정 후보로 추대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한 성파 스님은 주지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의 의견을 듣고 "대중의 뜻이 이와 같다면 따르고자한다"며 종정 후보로 추대함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대중들이 결의를 알리며 박수를 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방장 성파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처음에 그런 뜻을 들었을 때 내가 자격이 되나 걱정했다. 통도사 대중들의 뜻을 들었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원로회의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통도사 관계자는 "방장 스님이 종정 후보로 외부에서도 논의되는 상황으로 알고있다"며 "통도사 대중들이 힘을 모아 방장 스님을 추대하도록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前 주지 원산 스님, 영배 스님, 전계사 혜남 스님, 유나 항조 스님, 염불원장 영산 스님, 강주 인해 스님, 산내 대종사 스님들과 중진 감원 스님들을 비롯해 3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성파 스님은 명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1998년 봉암사에서 수선 안거한 이래 30여 안거를 성만했다. 제5·8·10대 중앙종회의원, 통도사 주지를 역임했다. 2014년 1월 7일 동화사에서 대종사법계를 품수했다. 2018년 3월 영축총림 방장으로 추대됐으며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을 맡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중흥 순례' 첫 발 내딛다

상월결사, 10월 1일 송광사서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

대중들 송광사 참배하며 결의
순례단 108명 가사 염주 통일
각계 "국민화합 계기" 응원해
첫날 22km 순례, 대장정시작

순천 송광사=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근간을 이룬 정혜결사처 조계산 송광사에서 새로운 결사가 시작됐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0월 1일 순천 송광사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입재했다.

비구 우봉 스님, 비구니 지해 스님, 우바새 정충래, 우바이 이태경 씨를 대표로한 천리순례단은 "불법승 삼보의 불국성지가 이 땅에 있음을 확인하고 한국불교의 정법존엄을 지켜온 삼보종찰을 두루 알려 상월결사 공덕을 전법으로 승화하고자 한다"며 "부처님께서 걸으신 전법과 포교의 길이 우리 땅에도 똑같이 살아있음을 환희심으로 체감하고, 한국불교 전통계승 순례, 불교중흥 순례, 사회화합 순례를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입재식은 송광사 괘불을 내거는 행사를 시작으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내빈소개와 결사 수행을 상징하는 죽비 전달, 고불문 낭독,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의 법문, 김영록 전남도지사 축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입재식에서 법석에 오른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정혜결사 정신과 상월결사 정신이 다르지 않다며 천리순례단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현봉 스님은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것이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라며 "한국불교를 새롭게 하자는 상월결사는 신심과 원력의 장이다. 이 순례는 문명의 세태 속에 침체된 한국불교를 새롭게 하는 나침반이자 사통발달의 한국불교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높히 평가했다.

또한 스님은 순례단에게 "부처의 길을 따르려 하지 말라. 진실로 참구하여 걷는다면 여러분이 부처요, 부처가 여러분을 따를 것"이라며 화두를 던졌다.

입재식에서는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법주사 주지 현고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등 수많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참석해 송광사 산문 앞까지 배웅하며 천리순례단의 첫 발걸음에 힘을 보탰다. 입재식에 앞서 순례단이 진행한 송광사 참배는 상월결사가 새로운 시대의 결사임을 알리는 자리였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천리순례단은 16국사의 진영이 모셔진 국사전과 보조국사감로탑에서 절을 올리며 새로운 결사에 대한 의지를 다시 다졌다.

입재식 후 순례단은 바로 첫날 순례를 진행했다. 첫 순례는 전남 곡성군 구룡리 용바위주민생활체육공원까지 22Km구간에서 펼쳐졌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초가을의 들판과 단풍으로 변해가는 숲길에서 순례단은 행선을 이어갔다. 이날 순례단은 지난해 상월결사 자비순례 때보다 늘어난 인원에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차분하게 순례를 진행했다. 묵언 속에 전날 지급받은 108염주를 돌리고, 가사까지 함께 수한 재가 불자들과 스님들의 모습에서 경건함이 느껴졌다.

한편, 상월결사 천리순례에는 각계 각층의 응원 메시지가 전해져 의미를 더했다. 입재 전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백만 원력 결집의 현장인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에서 상월결사 발걸음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계를 대표해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도 각각 "수행정진의 서원을 가슴에 새기고 지혜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 "순례로 삼보의 존귀함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 불교가 국민들로 사랑받길 기원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국난 극복 의지를 모으는 여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원력일 될 것"이라고 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천리 순례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희망을 위한 대장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불자배우 이덕화 씨는 "힘겨운 여정을 지켜보는 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응원대중으로 동참해 마음으로 함께 걷겠다"고 했고, 김형석 작곡가도 "코로나로 공포와 불안 등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불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응원하는 마음으로나마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 불자연예인인 김혜옥, 이경규 씨와 불자가수 장사익, 김흥국, 불자국악인 김성녀, 회주 자승 스님과 인연이 깊은 배우 김수로 씨와 종립 동국대 동문인 배우 조여정 씨 등도 영상을 통한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불교 신행의 길라잡이

불교 성전

佛教聖典

「법정스님」이 엄선한 팔만사천 부처님 말씀이
한 권에 담겨있습니다.

동국역경원

문 의 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 02-2264-4714 | abook@jeongjincorp.com

다음주 발행 1359호는 연휴 관계로 늦게 배송될 예정입니다. 양해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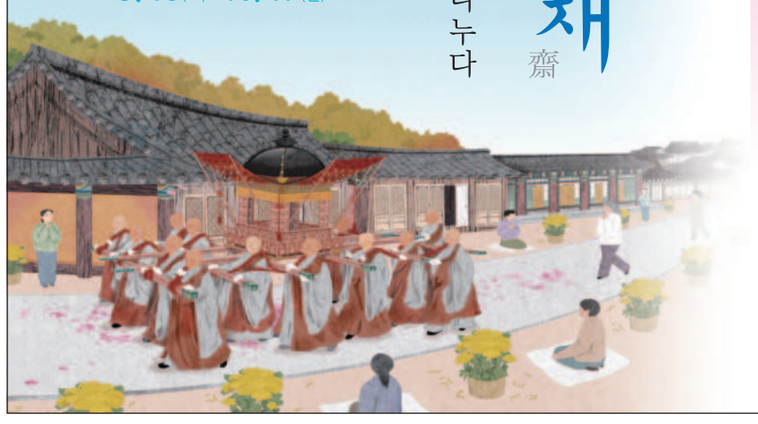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WORLD HERITAGE PROMOTION PROGRAM
문화재청

개산 1376주년
開山大齋
개산대재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

10월 9
영축삼보 이운
괘불헌공
숲속작은 음악회

10월 14
영고재
개산대재 법요식
부도 헌다례

2021
9. 18(토) ~ 10. 17(일)



개산 1376주년 개산대재
나눔과 참여의 장



01 영축삼보 이운
일시 10월 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부도원

02 괘불헌공
일시 10월 9일 오전 10시
장소 괘불대 앞

03 영축문화공연
일시 10월 3일 오후 2시
장소 육화당 건너편 무대

04 괘불 특별전
일시 10월 9일 오후 1시 ~ 2022년 2월
장소 성보박물관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개산 1376주년 개산대재
역사와 문화의 장



01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
일시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설법전

02 부도 헌다례
일시 10월 14일 오후 2시
장소 부도원

03 가사배견
일시 10월 14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장소 성보박물관

개산 1376주년 개산대재
문화행사 및 전시



01 통도사 문화재 알기 체험
일시 9월 18일 ~ 10월 17일(토, 일)
장소 불이문, 일주문

02 국화장엄
일시 9월 10일 ~ 10월 25일
장소 도량 일대

03 특별전시
나도 작가다
일시 9월 18일 ~ 10월 17일
장소 감로당 앞

04 연꽃 사진전, 도자기 전시, 서각 전시
일시 8월 29일 ~ 10월 17일
장소 명월료(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통도」 표지 및 컬러링 전시
일시 9월 18일 ~ 10월 17일 장소 성보박물관 주변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Tel 055)382-7182 Fax 055)382-7196 www.tongdosa.or.kr

선학원, '성범죄 이사장' 법진 스님 재선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9월28일 이사회에서 결의
거센 비판여론 의식한 듯
"인적 쇄신 후 사직" 발언

재단법인 선학원이 다시 '성범죄 이사장' 체제로 회귀해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성범죄 전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前 이사장 법진 스님이 제21대 이사장에 재선출된데 따른 것이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9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선출의 건'을 상정해 前이사장 법진 스님을 21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법진 스님을 비롯한 재적이사 14명이 전원 참석했다.

선학원 매체인 불교저널에 따르면 법진 스님은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인사말을 통해 이사회의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를 마무리하고 이른 시일 내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른 시일 내에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선학원 100년을 이끌어갈 새 이사장을 선출한 뒤 이사장 소임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진 스님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의 성범죄 전력 등 개인적 비위에 따른 사회적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진 스님은 19대 이사장 소임을 맡았던 2018~2020년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돼, 현직 이사장으로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불교계 안팎으로 비판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이사장 소임을 내려놨다.

이어 20대 이사장에 송운 스님이 선출됐지만, 법진 스님의 이사회 장악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일시적으로 이사장 직을 내려놓았을 뿐,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한편으로는 송운 스님이 조계종 前총무원장 석주 스님의 상좌라는 점에서, 12년간 사실상 독주체제로 이사회를 운영해 온 법진 이사장 체제에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도 일부 제기됐다. 법진 스님 체제에서 악화일로를 걸었던 조계종과의 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물론, 지속적으로 비판 받았던 밀실행정과 운영 불투명성, 창건주·분원장을 옭죄는 각종 규제 등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송운 스님은 임기 시작 후 6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장직을 사직했고, 이후 선학원이사회는 총무이사 지광 스님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런 가운데 9월 10일 선학원 임시이사회에서 기타안건으로 '이사장 선출의 건'이 상정하면서 법진 스님을 이사장으로 재선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선학원의 위상을 바닥으로 실추시킨 前이사장을 재선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선학원 창건주·분원장들의 모임인 선학원미래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선학원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자격은 덕망 높은 승려로 명시돼 있다"며 "선학원 이사회는 법진 스님을 이사장으로 재선출하려는 시도를 하기보다 정관에 따라 이사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반발여론에도 결국 선학원이 9월 28일 이사회에서 법진 스님의 이사장 재선출을 결의함에 따라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선학원 창건주인 한 스님은 "사실 창건주·분원장 스님들 사이에서 법진 스님이 다시 이사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송운 스님이 잠시 이사장직을 맡았던 것도 결국 법진 스님에게 쏟아진 비판여론을 잠시 피하기 위해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생각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재 강탈당한 봉은사, 국가보상 받는다

9월18일 서울중앙지법
공무원 불법 책임 인정

국가 농지개혁사업 과정 중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토지를 강탈당한 봉은사가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는다.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서울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봉은사에 약 487억 1392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958년 이승만 정부는 농지개혁 사업을 추진하며 봉은사 소유 대치동·삼성동 일대 토지 2만 900평을 사들였다. 정부는 이 땅을 경작자에 분배했고, 분배되지 않은 땅은 1968년 농지개역사업정리 특별법에 의해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반환케 했다.

문제는 1971년 공무원 백모씨와 김모씨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분배되지 않은 땅이 분배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면서 발생했다.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며 봉은사는 반환받을 땅을 받지 못했다. 백씨와 김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1978년 8월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봉은사는 토지 최종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통한 토지 반환 소송에 나섰지만 소유권이 이전된지 10년이 넘었고, 제3자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패소했다.

봉은사는 결국 2019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분배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봉은사는 이로 인해 소유권이 상실했다. 국가는 봉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 토지 감정가는 695억 1300만원으로 재판부는 봉은사가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상실했던 점과 국가가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국가 배상책임을 감정가의 70%로 한정했다.

한편, 봉은사는 2017년 8월 농지개혁사업 정리 특별법에 의해 반환받아야 했던 강남구 일대 토지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망실된데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2019년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40평에 대한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나눔의집 감사에 우봉 스님…의결 기준도 명확화

9월27일 7차 임시이사회서
감사후보 추천…차기 확정
의결시 재적과반 기준키로
차기이사회, 11월 9일 개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9월 27일 제7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감사선임의 건 등을 논의했다.

임기만료된 나눔의집 감사에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이 추천됐다. 임시이사회는 광주시 등에 감사 후보를 복수추천받아 차기 이사회서 최종 선임키로 했다. 또 안건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관 조항의 유권해석을 통해 앞으로 출석의원이 아닌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기준으로 삼기로 뜻을 모았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9월 27일 제7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감사선임의 건을 포함해 △1차 추경예산안 △통합운영규정 개정의 건 △이사 사임의 건 △정식이사 선임의 건 △2021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예산 심의 등 7건의 안건을 다뤘다. 대부분 안건은 지난 6차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이월된 건으로, 이번 이사회에서도 감사 선임의 건을 제외한 안건들은 모두 차기로 이월됐다. 이사회는 전체이사 10명 가운데 9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감사 선임의 건은 기존 감사 호련 스님과 김민성 회계사 2인의 임기가 9월 6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애초 호련 스님의 연임결정으로 나머지 1인에 대해서만 단수추천 방식으로 선임키로 했으나, 연임결정 번복에 따라 2명 모두 신임 감사로 선임된다.

감사 후보에는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 외 1인이 추천됐다. 이사회는 감사후보로 광주시 복수추천인사를 추가해 후보군을 확정, 차기이사회서 최종선임키로 했다. 또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전차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를 받아들여 당시 의결된 예산안을 차기이사회서 추인키로 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의결정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동안 임시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안건 의결시 정족수 기준을 출석이사의 과반으로 처리해 왔으나, 유권해석에 따라 재적이사의 과반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차기이사회부터는 안건 의결시 정족기준을 명확화해 제적이사 과반으로 결의키로 합의했다.

이사회는 이밖에 모든 안건을 상정 후 11월 9일 예정된 차기이사회로 이월했다.

한편 경기도청과 나눔의집은 이사회에 앞서 故정복수 할머니 흉상 제막식을 거행했다. 제막식에는 할머니 손자인 김현석씨를 비롯해 이찬진 나눔의집 법인 대표이사 직무대리, 상임이사 직무대리 혜일 스님을 비롯한 이사 스님들, 양한석 나눔의집 할머니 유족회장과 경기도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故정복수 할머니는 인본국 위안부 피해자로 1945년 해방 후 귀국, 2013년 나눔의집 양로시설에 입소해 거주하던 중 올 2월 세연을 접었다.

경기도 광주=송지희 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도선사 주지에 태원 스님

원행 스님, 9월 30일 임명장

조계종 직할교구 서울 도선사 주지에 태원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30일 도선사 주지에 태원 스님을 임명했다. 원행 스님은 "큰 소임을 맡게 되어 책임이 클 것"이라며 "전임 주지스님의 뜻을 이어 대중들과 화합하여 사찰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복지사업 및 육영사업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불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또 前주지 도서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임기 중 가람정비 및 도심포교 활성화와 종단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혜성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하고, 호법부 상임감찰, 총무원 기획국장, 호계원 사무처장, 법장사 주지, 보문사 주지, 봉황사 주지 및 제16대, 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호법부장을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군종교구, 9월 27일 부교구장 임명 단행

능원·성광·법원 스님 임명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선일)는 9월 27일 육·해·공군 부교구장을 임명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원광사 내 군종교구 회의실에서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주관으로 진행된 부교구장 임명식에서는 부교구장을 역임한 육군 부교구장 능원 스님(전 남해 보리암 주지)과 공군 부교구장 성광스님(현 용주사 종회의원)이 유임됐으며, 새롭게 해군 부교구장으로 현 직할교구 종회의원 법원 스님이 임명됐다.

군종교구는 "부교구장스님들은 육·해·공군 군승 출신으로 교구장스님을 보좌하여, 군불교 발전을 위해 진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1227주년

비대면 온라인 개산대재 전통문화축제 및 지역문화예술 축제

봉은사는 개산 1227주년 개산대재를 맞이하여 다례재를 시작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불교문화와 전통문화 축제 행사가 펼쳐집니다.

10월 6일(수)은 역대조사 스님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그 뜻을 기리는 〈역대조사 헌공 다례재〉와 10월 8일(금)은 판전에 소장된 주요 문화재인 화엄경판 인경본을 정대하고 봉은사 도량과 법계도를 요잡하는 〈정대불사〉가 진행되며, 불교 전통방식으로 진행하는 〈생전예수재(서울시 무형문화재 52호)〉를 10월 13일(수) ~ 14일(목, 음 9.9)에는 봉행합니다.

특히 새롭게 선보이는 행사로 전국 다기 장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한국 찻사발 108인전〉 특별전시회와 전통예술의 정수를 선보일 〈마당놀이(심청전, 남사당놀이)〉, 〈전통등 전시회〉, 〈차문화 프로그램〉, 〈사찰음식 전시〉, 〈국화대축제〉, 〈전통문화한마당〉,〈행복나눔바자회〉,〈봉은사 그림그리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봉은사 1227주년 개산대재는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행 사 명	일 자	시 간
국화대축제	10월 3일(일)~10월 25일(월)	
역대조사다례재	10월 6일(수)	9시~12시30분
신도회 행복나눔 바자회	10월 6일(수)~10월 10일(일)	10시~17시
한국 찻사발 108인전 특별전시회	10월 6일(수)~10월 14일(목)	10시~17시
사찰숲길 사진전 및 역사사진 전시회	10월 6일(수)~10월 14일(목)	10시~16시
사찰음식 전시회	10월 7일(목)~10월 11일(월)	10시~16시
다도공연 (선무/불차/선차)	10월 7일(목)	18시~21시
정대불사	10월 8일(금)	9시~12시30분
마당놀이 (심청전)	10월 8일(금)	16시~18시
발우공양 시연 및 체험	10월 9일(토)~10월 11일(월)	10시~11시
전통문화체험한마당	10월 9일(토)~10월 11일(월)	10시~16시
템플문화한마당	10월 9일(토)~10월 11일(월)	10시~16시
생전예수재 학술세미나	10월 9일(토)	13시~16시
사찰음식 강연회	10월 9일(토)~10월 11일(월)	12시~13시 / 14시~16시
국악한마당	10월 9일(토)	19시~21시
한밤의 독립영화상영제	10월 9일(토)~10월 12일(화)	19시~21시
그림그리기 대회	10월 10일(일)	10시~15시
들차회 시연 및 체험	10월 10일(일)	11시~16시
마당놀이 (남사당놀이)	10월 10일(일)	16시~18시
전통등 전시회	10월 11일(월)~10월 17일(일)	19시~23시
가을(산사)음악회	10월 11일(월)	19시~21시
사찰음식 도시락	10월 12일(화)	11시~12시
차 문화 학술세미나	10월 12일(화)	14시~17시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회향	10월 13일(수)~10월 14일(목)	9시~17시

*코로나19로 유튜브 중계 등 비대면 온텍트 축제로 진행함.



주최/주관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서울특별시 기분 좋은 변화 품격있는 강남

국 · 시립합창단 19곳, 기독교 선곡 80%

조계종 종평위, 종교편향 실태조사

불교음악원 보고서 공개
지휘자 상당수도 기독교
"찬송 음악 중심 심각해"
복무 규정 강화 등 촉구
불교계 자성의 목소리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사회부(부장 원경)와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가 '전국 국 · 시립합창단 종교편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합창단의 모든 공연에서 기독교 노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국 대부분의 시립합창단에서 70% 이상의 기독교 곡으로 공연이 채워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계종 사회부와 종평위의 의뢰로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이 담당했으며, 전국 국 · 시 · 도립합창단 19단체를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됐다.

공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합창단의 정기 공연 가운데 3.1절과 광복절, 시민을 위한 행사 등 기독교 곡 선정이 불가한 경우 외에는 모든 공연에서 기독교 노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코로나 영향이 없던 2018년 국립합창단 지방순회공연의 경우 13개 공연 중 7개 도시 공연서 기독교 노래가 100%이거나 필수적으로 편성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평위는 "국립합창단 뿐만 아니라 인천, 수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시립합창단에서 70% 이상의 기독교 곡으로 공연이 채워지고 있었다"며 "사실상 공립합창단에서 특정종교의 선교공연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결과를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종평위는 "전국의 국 · 시립합창단이 합창곡목으로 기독교음악을 선정하는 것은 일상화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공립합창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활동이 국민의 공익을 위해 이뤄져야 함에도 이들의 인적 구성과 공연 내용에 있어서 서양음악의 기독교 찬송음악 중심으로 매우 편향되게 운영되고 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편중된 선곡의 주요한 요인으로는 지휘자들의 종교를 지적했다. 전국의 공립합창단 지휘자 모임인 한국합창지휘자협회(KCDA)의 고문과 이사, 사무인력 등 거의 전원이 교회합창단 지휘자와 신학대 교수로 이뤄져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KCDA 소속 지휘자는 약 57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합창 관련 실질적인 결정권자들"이라며 "이들의 경력과 활동배경을 보면 절대 다수가 개신교회나 성가대 혹은 신학대학 교회음악의 배경을 지니고 있고 가톨릭은 극소수여서 사실상 개신교 합창단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선곡 양상을 분석한 결과 신학대학 혹은 기독교 재단 출신일수록 기독교 음악의 분포가 높았고, 기독교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대학 출신은 상대적으로 기독교 찬송가 관련 선곡의 비중이 낮았다.

종평위는 "이 세상에는 기독교 음악 외에도 다양한 문화, 종교, 국가, 인종의 수준 높은 음악이 다채롭게 존재한다"며 "공립합창단이라면 국민들의 이 같은 문화적 지평을 넓히고 음악적 소양을 다양화 하는 데 그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종평위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특정종교 편향행위를 하고 있는 전국의 국공립 합창단의 실태 파악, 향후 공직자 종교편향 예방교육, 예술단 복무규정 강화, 소통 창구 개설 등 다각적인 개선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 · 공립합창단의 종교편향 문제와 관련, 도넘은 행보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불교계 역시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준 높은 찬불합창곡 제작과 활성화를 위한 관심 · 지원의 부재, 불교음악 인재 양성 등에 대한 무관심이 이 같은 현실을 가속화시킨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클래식의 범주인 대부분의 합창곡이 기독교 문화권인 서양음악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곡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불교음악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교계, 탄소중립위 사퇴 결단

"4개월 활동에도 변화 요원"
2050탄소중립 목표상향 촉구



민관합동기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종교계 민간위원으로 활동해 온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을 비롯한 종교위원들이 결국 사퇴를 결정했다. 이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NDC안이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에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기업 · 산업계 눈치보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에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결단이다.

법만 스님과 백종연 신부(가톨릭), 안홍택 목사(개신교), 김선명 교무(원불교)는 9월 30일 서울 광화문 탄소중립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사진〉

이들은 "지난 4개월간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너무도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안과 2030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의 합리적인 도출 가능성에 의문이 있었고 위원회의 논의구조와 운영, 회의 내용의 공개와 의견수렴 등 국민 소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결국 도출된 초안이 특정분야의 이해관계나 과도한 고려로 인해 탄소중립이라는 근본목적에 충분하지 않는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그린워싱 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교계 위원 법만 스님은 '사퇴의 변'을 통해 유감의 뜻을 명확히 했다. 특히 스님은 "이제는 성장중독에서 벗어나 시급히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정치 속에서 구현하고 경제인들이 함께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생활의 전환을 호소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탄소중립위원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사퇴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탄소중립의 실질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올 5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기구로 출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장관 등 정부측 위원과 각 분야별 민간 위원을 포함한 97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등 8개 분과위원회로 운영 중이다.

송지희 기자

"동곡학원, 지역명문고 만들겠다"

학교법인 동국대 · 동곡학원
9월 30일 인수합병 협약식



(사진 왼쪽부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과 학교법인 동곡학원 이사장 태관 스님이 인수합병 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가 동곡학원(이사장 태관)을 인수합병하고 의정부 영석고와 같은 지역 대표 명문학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9월 30일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학교법인 동곡학원과 인수합병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학교법인 동곡학원 이사장 태관 스님과 윤이용 교장, 김무상 교감이 참석했다. 학교법인 동국대에서는 이사장 성우 스님과 상임이사 성월 스님, 건학위원회 상임최고위원 돈관 스님 등 동국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성우 스님은 "양 기관의 설립취지인 불교적 인격도야를 통한 중등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숭고한 교육철학을 승계 · 유지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인수합병의 배경을 설명하며 "학교법인 건학위원회 출범 후 첫 인수합병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 이번 합병은 제2건학운동이 가시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화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곡학원이 동국대에 무상 기부 형태로 인수합병됐다. 향후 선화여고는 교육부의 합병 인가 절차를 거쳐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가 설립한 동곡학원은 지난 2010년 경북 영천 선화여고를 인수해 운영해왔다. 현재 총 15학급 32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6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지역 명문학교다.

협약 체결 직후 동곡학원 이사장 태관 스님은 "보다 더 나은 미래교육을 위해 동국대와 인수합병을 결정했다"면서 "동국대가 가진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선화여고가 경북 영천의 명문고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성우 스님은 "지난 2010년 의정부 영석고를 인수합병한 바 있다. 영석고는 학교법인 동국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결과, 이제는 의정부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했다"며 "영석고를 발전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선화여고가 영천을 넘어 경북을 대표하는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금강산 순례길 계기로 조제암 가치 재조명"

민추본, 금강산 옛길 학술세미나
발제자들, "남북교류의 현장"
순례길 · 조제암 복원에 기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추진하는 금강산 순례길 사업은 불교계 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금강산과 남한 지역인 강원도를 연결하는 소통의 길로서 의미가 크다."

"건봉사와 유점사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조제암은 단순한 폐사지를 넘어 추후 남북교류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금강산 순례길의 일환으로 진행된 지표조사가 폐사된 조제암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본격적인 남북한 문화교류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가 10월 1일 '금강산 옛길 및 조제암의 역사적 가치와 남북교류 활용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위사진〉에서 발제자들은 금강산 순례길 사업과 조제암 연구가 향후 남북불교교류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역사 속의 금강산 가는 길'을 주제로 발표한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은 "고성은 관동의 경승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요지로, 불교유적이 곳곳에 남아있을 뿐 아니라 옛 선인들이 유람지로 가장 많이 찾았고 금강산과 함께 뛰어난 경승지로 여겨졌던 곳"이라며 "고성에서 시작되는 금강산 순례길은 21세기 민족화합의 길이자 금강산에 산재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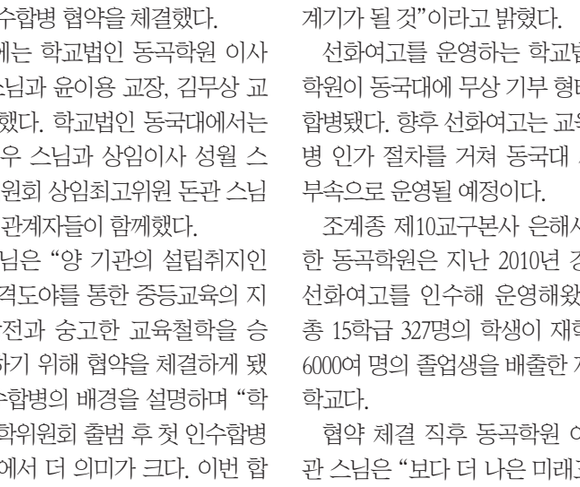
'고성 조제암의 전승기록과 역사'를 발제한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금강산 순례길 사업과 연계된 폐사지 조제암의 가치에 주목했다. 황 교수는 "고성 건봉사는 현대에 들어 주목받으면서 복원됐지만 조제암은 분단 후 민통선 지대에 위치해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먼저 전했다.

이에 황 교수는 "조계종의 조제암 재산회복과 더불어 문화재관리국의 조제암 지표조사,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와 고성군의 사지 지표조사 등으로 조제암의 존재가 부상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금강산 순례길 사업을 계기로 조제암의 역사적 · 현재적 의의가 부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제암 지표조사를 진행한 불교문화재연구소 이현수 유적연구팀장은 "사지는 단순한 절터가 아니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문화재와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단순히 불교사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며 "조제암이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유산, 성보로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초단계부터 세심하고 체계적인 보존정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기대했다.

송지희 기자

Since 1972 80쇄



불교 신행의 길라잡이
불교성전

「법정스님」이 엄선한 팔만사천 부처님 말씀이 한권에 담겨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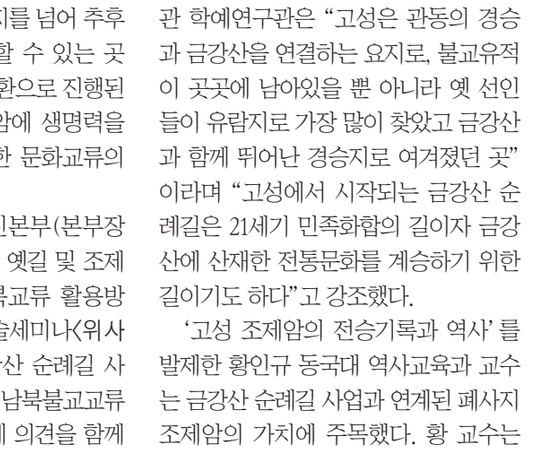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나누는 부처님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어 행복한 삶을 이루어 드립니다.

법보시〈불교성전〉
~~정가 42,600원~~ → 39,000원

법정스님의 〈불교성전〉이 50년 만에 다시 출간됐습니다.
자연스러운 한글 문장으로 읽기 쉬워진 〈불교성전〉을 법보시하세요.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동국역경원 〈불교성전〉의 새로운 기획!

교계 처음 제작, 〈야전 불교성전〉 & 읽으며 따라쓰는 〈불교경전 필사본〉



〈불교성전 필사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제작
190×260mm
상권 288쪽, 하권 360쪽
각 권 값 15,000원
세 트 값 30,000원

〈야전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지음
125×187mm
824쪽(양장본)
값 24,000원

법보시 불교경전 세트



SET1 〈불교성전 + 상월선원〉
~~정가 58,600원~~ → 53,400원
〈불교성전〉과 풍찬노숙 천막결사, 한국불교의 희망을 말하는 〈상월선원 – 천막결사 90일 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SET2 〈불교성전 + 선종사부록〉
~~정가 60,600원~~ → 55,200원
〈불교성전〉과 참선이 무엇인지, 선수행이 무엇인지를 찾는 수행자와 일반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 혜거 스님의 〈선종사부록〉을 담았습니다.



SET3 〈불교성전 + 불교입문〉
~~정가 64,600원~~ → 58,800원
〈불교성전〉과 동국대 불교대학이 불교 입문자들을 위해 새롭게 펴낸 불교학 정통교과서 〈불교입문〉을 담았습니다.

세트구성 ① 〈불교성전〉과 다른 추천도서로 세트 구성이 가능합니다. ② 〈불교성전〉과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가능합니다. ex)염주, 반지, 공진단, 학교기념품 등 ③ 선물하시는 분의 인사말 카드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 판 문 화 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주문전화 02-2264-0142 주문팩스 02-2268-7851 E-mail abook@jeongjincorp.com

변화하는 가을 산사축제 '비대면' 대세

증심사 · 내소사 · 전등사 등
산사음악회 비대면 개최 눈길
손쉬운 유튜브 채널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접근성 제고
지역 협력 강화 · 홍보 효과도

노덕현 · 하성미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난해 열린 강화 전등사 삼랑성역사문화축제 모습.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에는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다른 사찰들도 가을 문화축제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곳들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을 산사 축제들이 변화하고 있다.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산사 축제의 전형을 선보이고 있다.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 **문빈정사**(주지 석장), **약사사**(주지 무진)는 10월 30일 무등산 증심사 지구 입구 잔디광장에서 '2021무등산 산사음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산사의 음악을 전한다. 행사에는 국악인 오정해 씨를 비롯해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국립공원 무등산을 찾거나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건강한 힐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도 매년 개최하는 산사음악회를 일부 출연진을 제외하고 비대면을 통해 늦가을 산사의 정취와 음악을 오는 11월 13일 일반인들에게 전달한다. 특히 가수 진성 씨를 비롯해 통기타 강지민, 성악그룹, 국악 등 다양한 장르에 음악을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는 행사이다.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는 10월 16일 개막하는 개산대재를 유튜브로 중계한다. 11월 6일 열리는 **선운사**(주지 경우)의 제13회 선운문화제도 오전 9시 수륙무차평등대재를 비롯해 오후 진행되는 산사음악회가 유튜브로 중계될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가 10월 16일 여는 팔관회도 오후 1시 어린이 수계식인 선재동자 수계법회를 비롯해 오후 2시 호국영령위령재 등이 부산불교연합회 유튜브 채널 BBA TV로 중계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와 함께 비대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찰의 축제는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먼저 10월 2일 개막한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의 제21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유튜브채널인 전등사TV를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열렸다. 축제 시작일인 2일 가을음악회에는 가수 김태우, 임정희, 먼데이키즈, 스탠딩에그, 임슬옹, 펀치, 국악소녀 양은별 등이 출연해 사찰로 오기 힘든 불자들의 눈을 사로 잡았다. 여기에 전등사는 3일 진행된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대재' 또한 유튜브로 중계했다.

유튜브 중계는 사찰 입장에서 손쉽게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전과 달리 간단한 장치 만으로 가능하기에 비용의 부담도 적다.

전등사 측은 "산사음악회를 비롯한 사찰 축제는 사찰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민들의 몇 안되는 문화행사기에 비대면으로나마 개최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유관 행사단체들과의 협력관계 등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축제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찰축제 변화의 특징은 유튜브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생중계다. 각종 SNS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가을 산사의 아름다움을 통해 '힐링'을 주고자 하는 현장의 생생한 화면과 음악을 공간과 거리에 상관없이 전파하고 있다.

무등산 산사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 행사 관계자는 "대면과 비대면 준비는 큰 차이는 없다. 많은 관중이 없지만 음악과 가을 산사의 정감을 멀리서도 느낄 수 있다. 특히 SNS를 활용하면 평소 관심이 없던 이들도 접하게 된다"고 장점을 전했다.

주재형 부산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은 "연등축제, 릴레이기도 등 그동안 많은 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함께 중계해왔다. 불교계가 지닌 노하우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사찰 행사들이 사찰과 사암연합회, 지역불교연합회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중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비대면 포교 본격화

9월 25일 23주년 법회서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서온 국제포교사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코로나 상황에 맞는 비대면 포교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이재홍)는 9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23주년 기념법회와 사단법인 문화나눔 설립 7주년 기념식,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원진들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시스템 줌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재홍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미래의 국제포교사 양성 교육과 기초불교 영어 과정을 비대면 양방향 방식으로 진행하고 매달 개최해온 인터넷 화상 영어법회도 국내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100회 이상 여는 등 온라인 비대면 포교와 교육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비대면 활용 포교에 앞장서겠다"며 "비대면 포교 연구개발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교육과 법회가 온라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은 글로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법 홍보의 새로운 시발점이자 국제포교사회가 국제 포교의 외연을 확장하는 대전환점"이라고 격려했다.

기념법회서는 외부 인사들의 국제포교사회에 대한 '쓴소리, 단소리' 동영상이 소개됐고 임시총회에서는 하반기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회칙 개정과 규칙 제정, 폐지 등 안건이 처리됐다. 노덕현 기자


서울 봉은사는 9월 28일 법왕루에서 '관세음보살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관세음보살 가피 받아가세요"

봉은사, 9월 28일 관세음보살상 점안식 봉행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가 4000여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관세음보살상을 새로 조성했다. 봉은사는 9월 28일 법왕루에서 '관세음보살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안식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증명과 도성 스님 인례로 열렸다.

봉은사 법왕루 관세음보살상 조성불사는 1년여 동안 진행된 불사로 총 1020세대 4148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봉은사는 도심사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도중심도량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불사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조성된 관음상 협시로는 남순동자와 동해용왕상도 함께 조성돼 관음도량의 면모를 다졌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그동안 대웅전에서 봉행되어온 새벽예불을 법왕루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기도법회 참석을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기도 가피력을 모두 받아가시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관광의 날 대통령 표창

9월 27일 포상 전수식서 수상
관광 · 지역 경제 활성화 공로



제48회 관광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21관광진흥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사진>이 한국 관광 진흥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원경 스님은 9월 27일 '제48회 관광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21관광진흥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원경 스님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소속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이끌며 국내외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분야 코로나19 극복 등에 힘쓴 공로로 이번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특히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으로 전 국민 심신치유에 힘쓰고,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사찰음식 나눔으로 우리 사회 발전과 회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원경 스님은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 스님과 지도법사,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 표창은 템플스테이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을 대표해 함께 받은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내년에는 템플스테이 운영 2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향후에도 대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방역관계자, 소상공인, 여행업계, 문화예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공익 템플스테이를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뜻도 밝혔다. 지난해 불교문화사업단의 공익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은 연인원 기준 총 4만 6000여 명이다.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불교의 자비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모든 이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난치병 환아 치료지원

9월 29일 전달식… 1억9천만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9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21회 국내 · 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지원 전달식을 열고 23명에게 총 1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전달식에서 지원자 대표 김지윤(13세) 양 어머니 신해정 씨에게 직접 1000만원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원행스님은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아이의 건강이 회복되길 바라겠다. 용기를 갖고 치료에 잘 임해달라"고 격려했다.

인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천하여 이번 지원 대상자가 된 김지윤(13세)양은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 누난증후군, CHOPS증후군을 앓고 있다.

신해정 씨는 "14년간의 투병생활로 인해 가정형편도 어려워졌다. 불교계의 지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번 제21회 난치병어린이 치료비 지원을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을 진행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2021년도 하 반 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지 원 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1년 10월 1일(금) ~ 10월 31일(일)**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11월) → 지원금 입금(12월)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된 스님(신규 및 기지원자 모두 해당)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 지역가입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군 복무 중인 스님
7.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불기2565(2021)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금 곡**

소원성취 · 나눔 · 교육으로 참 불자 양성

안심정사 창건 30주년

1. 한국불교 새 바람
2. 행복을 일구는 기도
3. 신심의 회향과 나눔
4. 운명을 바꾼 불자들
5. 법안 스님의 인터뷰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안심정사는 불자들 사이에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로 입소문난 도량이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기도를 통해 이를 변화시키고 종국에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가르침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는 불교가 중생구제, 즉 고통받는 중생을 행복으로 이끄는 종교여야 한다는 회주 법안 스님의 확고한 원력에서 출발한다.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행복'으로 향하는 바로미터라는 신념이다.

법안 스님에 따르면 부처님 가르침은 힘든 중생의 마음을 위로하는 막연한 의지처가 아니다. 오히려 살아가는 순간순간 직면하게 되는 숱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을 주는 가르침이며 이를 통해 삶을 더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가 담겨있다. 이미 한국불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초들의 신심으로 증명돼 온 바다.

안심정사의 홈페이지에 기도를 통한 영험담은 현대판 신심의 상징이다. 건강, 자녀의 학업, 사업과 직장 등 재가불자들이 직면하는 모든 고통에 대한 극복기가 바로 이 영험담에 가득하다. 안심정사는 홈페이지에 축적된 영험담들을 모아 '운명을 바꾼 사람들'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삶을 실질적인 행복으로 이끌 수 있음을 증명해, 더 많은 대중들이 이를 접하길 바라는 취지에서다.

재가불자들도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요즘의 한국불교계 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아마도 그 근본자리가 '기복'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한국불교가 '기복'을 무작정 배제하기 보다는 기복 속에 내재된 불교의 진수를 알리기 위한 법안 스님만의 방편이다. 힘든 삶 속에서 고통 받는 대다수 중생들에겐 깨달음을 위한 선문답보다, 기복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기대고 행복을 구하는 방편이 더 간절함을 알기 때문이다.

법안 스님은 한국불교가 '기복'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단언한다. 기복불교는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과 부귀영화, 그리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세간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가장 세속적이면서 현실적인 바람이다. 불자들은 신심을 내고 종교가 없는 이들은 불교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소원성취인 이유다.

법안 스님에 따르면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한 불자들은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삶의 평안을 찾은 이후에는, 자연스레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에 매진하게 되며, 나와 내 가족을 넘어 더 많은 이들의 행복을 위해 이를 회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기복'은 재가불자들이 발 딛고 선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행복을 발원하고 이뤄가는 주요한 방편인 동시에 불자로서 신심을 기반으로 참 불자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된다.

안심정사의 신행 프로그램이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뿐 아니라, 교육, 나눔 · 봉사, 대사회 활동 등으로 체계화된 이유이기도 하다.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안심정사를 찾은 이들은 구체적인 신행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기도'를 하며 조금씩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 기도는 나눔과 동시에 행해진다. 기도비, 즉 불공을 올리는 비용이 안심정사의 나눔기금으로 적립돼 회향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를 다른 이를 위한 실천행으로 회향되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이다.

때문에 안심정사의 나눔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불자들에게는 '기도도량'으로 인식되지만, 사회적으로는 대규모 나눔행보로 인지도가 높다. 나눔은 포교와도 직결된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초코파이 지원사업은 군부대의 군인 종교순위를 뒤바꿀 정도로 영향력을 지닌다. 비종교인도 착용할 수 있도록 '럭키체인'이라는 명칭으로 지원되는 단주는 군인들 사이에서 '핫한 아이템'으로 손꼽히며, 군법당을 중심으로 한 불서 보급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포교효과도 적지 않다. 특히 밀착적이면서도 대규모로 진행되는 안심정사의 군포교 지원활동은 열악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군법사들에게는 든든한 의지처인 동시에, 젊은 불자 감소로 고민이 깊은 한국불교계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평가다.

불교교육에 대한 확산력도 눈에 띈다. 재수불공, 방생, 철야기도 등을 통해 안심정사와 인연을 맺은 불자들은 경전에 근거한 스님의 법문을 통해 기도를 넘어 일상수행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불교기초교육을 시작으로 한 경전강설 등 심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깊이를 더한다. 기복에서 출발해 참 불자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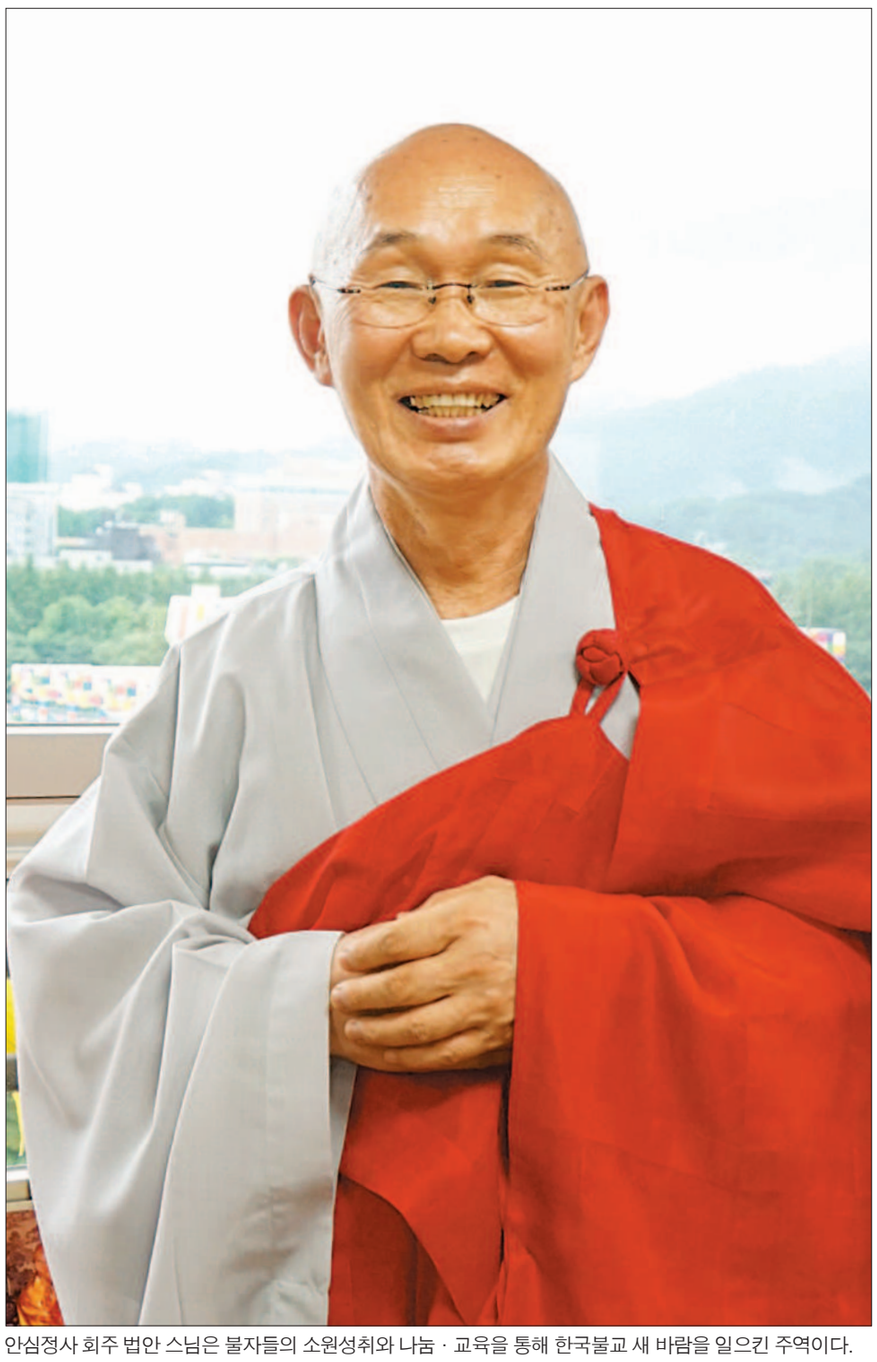
안심정사가 창건 30년만에 보여준 이례적인 성장세는 바로 기도와 나눔, 교육, 불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이 같은 안심정사의 시스템의 성과다.

회주 법안 스님은 이제 30년 노하우를 응집해 한국불교계에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최근 공식개원한 '안심불교학술원'이 대표적이다. 일반인부터 스님까지 모든 이들이 불교를 배우고 사찰 운영 실수를 습득할 수 있는 종합교육기관으로, 안심불교학술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강좌는 안심정사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전부 무료다. 누구나 뜻이 있다면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무상교육임에도 퀄리티는 최고수준이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을 원장으로, 금강대 前 총장 정병조 교수(동국대 명예교수)을 석좌교수로, 홍승기 동국대 명예교수를 사무총장으로 모신 가운데, 한국불교 현장에서 남다른 역할을 수행해 온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불교의례와 교학, 명상, 사찰 교양, 사찰경영 실무에 대한 강의에 나선다. 안심불교학술원은 서울도량에 위치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불사도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찰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스님들의 인수요청이 잇따르면서 자연스레 이뤄진 불사다. 논산본찰을 비롯한 기존의 6개 도량에 더해, 2곳 도량 개원을 준비 중이다. 각 도량의 특화분야도 명확화했다. 논산본찰이 법문을 중심으로 안심정사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안심불교학술원을 운영하는 서울도량은 교육, 부산도량은 방생, 창원도량과 제주도량은 기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법안 스님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사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불자들이 신행에 매진하기 좋은 기회임을 안심정사 신도들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와 나눔을 통해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수많은 신도들이 있다. 안심정사는 한국불교 중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은 불자들의 소원성취와 나눔 · 교육을 통해 한국불교 새 바람을 일으킨 주역이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로 입소문
부처님 가르침으로 행복 전해
30년만에 신도가구 3만세대로

기도통해 소원성취 이루고 나면
불교교육으로 신심도 증강 시켜
지속적인 대규모 나눔으로 회향

'정말 잘돼, 할 수 있어' '불행 끝, 행복 시작'. 귀에 쏙쏙 박히는 슬로건으로 '불자들이 행복한 불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안심정사(회주 법안)가 올해 창건 30주년을 맞았다. 안심정사는 충남 논산 시골마을 포교도량에서 시작해 30년만에 서울 중심부인 강남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 6곳 도량으로 확대되는 이례적 성장세로 주목받아 왔다. 창건 당시 신도 1가구로 시작해 현재 전국 각지에 등록된 신도가구만 3만 세대에 달하는 등 포교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무엇보다 재가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실질적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사태에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나눔규모를 확대하고 새 도량 창건불사까지 준비 중이다. 30주년을 맞아 안심정사의 이례적 성장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불교인재양성의 메카

안심불교학술원

안심불교학술원은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의 교화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대승불교 정통교리와 실용불교의식, 상담기법을 비롯한 체계적인 사찰경영 노하우를 교육하는 전문기관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 불교인재양성을 목표로, 안심정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지난 30년 간 응집된 포교노하우를 무상으로 공유합니다. 재가불자와 범종단 스님, 불교에 관심이 많은 비불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02)577-4557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18
홈페이지 | http://www.ansimacademy.com/

안심불교학술원 교과과정

구 분	과 목
사찰경영	사찰경영과 상담비법 사찰경영과 종무행정 세법과 사찰의 세무관리 사찰경영 사례연구 불교커뮤니케이션
불교의례	실용불교의식 불교의례의 구조와 이해
불교교학	대승불교교학체계 불교와 사회 바로보기 비교종교학 불교학 특강
명 상	명상과 심리상담
사찰교양	사찰예절 꽃꽂이 안심다례 서예 사찰음식

‘팔관회’ 호국정신 새겨 코로나 극복

부산불교, 불교문화축제 ‘팔관회’ 개최
10월16일 범어사의 선문화교육관에서

신라의 호국 불교정신 기리며
코로나19극복 · 국가발전 기원
선재동자 수계법회 처음 열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가 10월 16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전통불교문화행사 ‘팔관회’를 개최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를 통해 국가이념을 팔계(八戒)로 삼고 청정 국가를 기원했던 신라시대의 호국정신을 강조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국가발전을 기원한다.

팔관회는 오후 1시에 어린이 수계식 ‘선재동자 수계법회’로 시작한다. 선재동자 수계법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며 어린이의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확립을 돕고자 마련했다. 이를 위해 부산불교연합회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수계의식을 마련하고 불교문화를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어 오후 2시에 호국영령위령재를 시작한다.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가 범패의식을 진행하고 과거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순국장병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이어지는 호국기원법회는 코로나 조기종식과 국태민안을 발원하고 △삼귀의 및 반야심경 △고불문 △호국기원문 및 기도 △봉행사 △대회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한다.

오후 4시에는 팔관재계수계법회가 진행된다. 팔관재계수계법회는 고증을 통해 신라시대 팔관회를 재현하며 3화상 7증사의 증명으로 재가불자들이 계를 받아 지킬 것을 서원한다.

3화상은 전계대화상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갈마아사리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교수아사리 상임부회장 마나스님이며 7증사는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 대한불교법화종 원로의원 진파 스님,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정산 스님 외 각 구군연합회 대표 스님들이 담당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2000년도부터 팔관회를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 기록에 따라 고증하고 계승하는데 앞장섰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백고좌법회, 범불교도대회, 박람회, 학술대회 등 관련 행사를 열고 팔관회가 가진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현대는 인간성 상실이란 과제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되묻고 살펴야 하는 시기이다. 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팔관회가 가진 호국불교 정신과 인간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10월 16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팔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모습.

팔관회(八關會)는 551년 신라 진흥왕 때 처음 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연등회와 함께 국가 2대 의식 중 하나였던 팔관회는 호국적인 성격의 행사였다. 이런 팔관회가 국가적 정기 행사로 자리 잡은 것은 고려시대 들어서다. 고려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천령(天靈) 및 오악(五惡) · 명산(名山) · 대천(大川) · 용신(龍神)을 섬기는 대회’라고 그 성격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팔관회는 불가에서 말하는 살생 · 도둑질 · 간음 · 헛된 말 · 음주를 금하는 오계(五戒)에 사치하지 말고, 높은 곳에 앉지 않고, 오후에는 금식해야 한다는 세 가지 계를 더한 8가지의 계율을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에 한하여 엄격히 지키게 하는 불교의식의 하나였다. 고려에서는 이미 태조 때부터 토속신에 대한 제례를 행하는 날로 그 성격이 바뀌었지만 이런 재회(齋會)를 통해 호국의 뜻을 새기고 복을 비는 행사였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팔관회는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10월 16일 오후 4시 부산불교연합회 유튜브 채널 ‘BBA TV’와 ‘BTN불교TV’ 특별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불교의 역사, 스피치의 역사”

광명사, 불교스피치 특별강연개최
9월 26일 법회, 이현정 박사 강연

대한불교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9월 26일 지관전에서 ‘새불교 바람 · 불교 스피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광명사는 새로운 포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강연을 개최했으며 주지 춘광 스님과 최재일 신도회 부회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강연은 이현정 박사(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담당했다. 이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불교의 역사가 불교 스피치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언어를 통해 이어온 불교 포교 역사를 설명했다. 이어 스피치는 현 시대 모든 불자가 연습해야 할 포교 도구임을 강조했다.



대한불교천태종 광명사가 9월 26일 지관전에서 ‘새불교 바람 • 불교 스피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현정 박사의 강연 모습.

이 박사는 “저의 스피치 강연은 기독교인들의 요청이 많았다. 불교를 믿는 저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혼란스럽기도 했다. 불교 스피치가 오히려 불교에서는 생소한 분야로 여겨지고 그 필요성이 간과되는 게 아쉬웠다”며 “부처님은 깨달으신 뒤 언어를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고 법을 전해주셨다. 불교에서도 말을 통해 포교하고 포교의 도구로 삼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불교스피치 전문가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디지털대학에서 스피치 강의, 교육원의 승려인증교육 설법스피치강의를 하고 있다. BBS 불교방송 공채 1기 아나운서이며 KBS와 EBS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는 다문화M-TV 자문위원이다.

주지 춘광 스님은 “불자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자세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밖에서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행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오늘 특별강연이 탁한 말과 행동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명사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대중을 위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양승규 교수(동국대), 6월과 7월에는 이필원 교수(동국대)의 초청법문이 있었으며, 9월과 10월에는 이현정 박사(불교스피치)의 강의가 진행된다. 이후 광명사는 ‘미륵대범종 주조 및 종각 건립 불사’를 앞두고 범종 명장을 초청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연합회
제1회 어린이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

10월 10일 오후 2시, 내원정사 템플스테이생활관
三師스님으로부터 직접수계 연비대신 삼보륜 인장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10월 10일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생활관에서 ‘제1회 어린이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어린이 포교의 일환과 어린이들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수계법회에서 전계대화상은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 갈마아사리는 수석부회장 목종 스님, 교수아사리는 만초 스님, 인례는 쌍계사 율감 인호 스님이 맡는다.

이번 수계법회는 수계 대상이 어린이지만 육법공양을 비롯해 개식, 거향찬, 청사, 참회 등 모든 수계의식을 빠짐없이 진행하고 어린이들은 三師스님으로부터 직접 계를 받는다. 단, 연비대신 삼보륜 인장을 사용하며 관정이 진행된다. 관정에는 혜원정사 약사여래불 수각의 관정수를 활용해 코로나19 극복과 건강을 기원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계의식이라고 해도 장엄하게 진행해 불교의 위상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수계법회에서 어린이들은 직접 육법공양을 올리며 의식에 동참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의식을 위해 참가 어린이에게 십바라밀 문양이 새겨진 티셔츠를 선물하고 계의 정신을 강조할 예정이다.

회장 원허 스님은 “어린이들이 3사 스님께 정식으로 계를 받는 일은 드물다. 장엄한 법회를 통해 계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며 “수계는 부처님의 참다운 아들딸이 되는 첫 약속이다. 수계 인연으로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연합회가 10월 10일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생활관에서 ‘제1회 어린이 삼귀의계’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주최한 제3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에 참석한 어린이의 모습.

창원시불교연합회
제31회 산해원문화상 후보자 공모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정인)가 지역 예술인과 언론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발전을 돕기 위해 제정한 산해원문화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후보 자격은 경남도내에 거주하고 해당 분야 20년 이상의 전문 활동경력을 가진 문화예술인, 언론인, 사회봉사자이다. 시상부문은 문학상, 예술상, 언론상, 행원상(지역개발)이다.

심사기준은 당해 연도 활동이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하며 종교와는 무관하다. 접수마감은 10월 31일이며 신청은 메일 masan108@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5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 13일 오후 6시30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구, 풀만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산해원(山海原)문화상은 1991년 제정됐다. 향토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예술, 언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창원 지역불교계가 수여하는 상이다. ‘산해원’은 마산, 진해, 창원의 끝 글자를 모아 창원지역을 상징하며 창원시로 통합 전에 정해진 명칭이다.

055)222-1393

성낙두 경남지사장



“중생 위로하는 성보 복원 뜻 깊어”

화엄사, 국보 사사자삼층석탑 보수복원 회향

9월 29일 회향식서 공개
화엄사 상징…7년간 불사
계단길 조성, 접근성 높여
복원 기념 학술 세미나도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연기 조사의 극진한 효성을 표현한 국보 제35호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이 7년여의 복원불사를 마치고 대중에 선보였다.

화엄사(주지 덕문)는 9월 29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휘 아래 보수복원 작업을 진행한 사사자삼층석탑의 보수복원 불사 회향식을 봉행하고, 지난 2013년부터 석탑 해체와 보수작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사사자삼층석탑 모습을 공개했다.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석탑으로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형태이다. 3층 기단에는 암수 네 마리의 사자를 모퉁이에 세워놓은 구조인데 사자의 형상은 허공을 바라보며 입을 벌린 상태로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

또한, 사사자에 둘러싸인 채 합장을 하고 선 어머니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창건조 연기 조사의 어머니로 알려졌다. 석등을 머리에 이고 무릎을 꿇고 앉아 탑을 향해 있는 스님상은 어머니께 차를 공양하는 연기 조사의 극진한 효성을 표현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향식에는 화엄사 조실 명선 스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설정 스님을 비롯해 김현모 문화재청장, 문금주 전남도행정부지사, 김순호 구례군수 등이 참여해 불사 회향을 축하했다.

명선 스님은 치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나라가 어려운 시기다. 석탑이 새롭게 잘 정비된 인연공덕으로 환란도 종식되고 국민들도 평안한 생활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사사자삼층석탑의 모습이 희노애애락과 국민의 애환을 담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회향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중생을 위로하는 석탑의 모습이 다시 복원되어 뜻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9월 29일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복원 회향식 직후 참석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년 간의 복원불사를 마친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은 이날 대중에 공개됐다.

석탑은 2011년에 구례군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남동쪽으로 기울어 있고 기단부의 균열 · 절단 · 벌어짐 등 다수의 구조적 불안정이 확인됐다. 또한 석탑은 오랜 세월 비, 바람 등 기후의 영향으로 손상되면서 하층 기단 내부를 채우고 있던 적심이 유실되어 구조적 불균형에 의한 석재의 파손, 변위 등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사자상 상층 기단갑석에도 구조적 균열은 물론, 미세 균열이 나타났다. 이후 2012년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해체보수를 결정했고, 2016년에 해체됐다.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의 보수, 복원에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구례군, 화엄사가 다년간 힘을 보탰다. 복원된 사사자삼층석탑 내에는 사부대중의 발원을 모아 사리함을 조성, 진신사리를 봉안했으며 사리공 5곳에는 오방법신불을 모셔 환란으로 시달리는 시방세계의 안녕을 기원했다. 탑의 맨 위층에는 〈화엄경〉의 정수인 ‘보현행원품’을 김경호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이 직접 서사해 안립함으로써 불법장엄의 공덕을 더했다.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을 참배하기 위한 국민과 불자들의 접근성도 높였다. 화엄사는 이번 보수복원 불사를 통해 각황전 좌측 108계단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사사자삼층석탑을 쉽게 참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8년부터 석탑에 대한 체계적 학술조사, 수리기술 연구, 보존처리 등을 시행하여 약 3년만인 2021년 9월 석탑의 조립을 마쳤다. 과학적인 보존처리와 구조보강을 통해 원래 석재를 대부분 재사용하여 석탑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한 점이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엄사는 사사자삼층석탑 해체복원을 기념해 하루 전인 9월 28일 화엄원에서 ‘지리산 구례 차문화와 화엄사의 전통문화유산Ⅱ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光주어청련, 영유아 · 어린이 수계산림 봉행

9월 25일 광주 관음사서

제8회 광주 영 · 유아, 어린이 · 청소년 수계산림 법회가 9월 25일 광주 충장로에 소재한 관음사(주지 소운)에서 개최됐다.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회(대표 동천, 담양 호국사 주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전체 22명의 학생이 수계법회를 통해 새로운 어린 불자로 탄생했다.

행사는 명종 5타를 시작으로 증명법사단 등단, 삼귀의례, 삼보사찰(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청정수 합수, 청법가, 삼배, 이끌어 주는 말, 오계설법에 이어 수계의식이 진행됐다.

수계식 칠증사에는 전계아사리 도계 스님을 비롯해 효공 스님(나주 녹야원 주지), 동현 스님(신광사 주지), 동천 스님, 소운 스님, 해청 스님(원효사 주지), 지장 스님(동원사 주지) 등이 참여했다.

도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 수계받은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피에 의지해 자신과 이웃과 주변의 모든 인연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언제 어디서든 진리 앞에 어리석지 않고 지혜광명으로 빛나는 불자가 되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탄생한 어린 불자들은 향후 어린이, 청소년법회에 참여해 본격적인 배움의 길을 갈 예정이다.

이날 발원을 낭독한 노은찬(법명 화광) 군은 “앞으로 파라미타 청소년법회에 참석해 많은 것을 배워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영유아 수계법회를 통해 열악한 지역 어린이 · 청소년포교를 활성화하고, 어린 불자 양성을 이끌며 요리법회, 숲 법회, 탁발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어청련은 9월 25일 제8회 영유아, 어린이청소년 수계산림을 개최했다.

前조계종 원로의장 종산 스님 부도탑 제막

화엄사 9월 29일 제막식 봉행

화엄사(주지 덕문)는 9월 29일 도광 · 도천 스님 합동 추모재를 맞아 前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지낸 혜광당 종산 스님(1924~2020)의 부도탑 제막식을 갖고 스님이 남기신 정진의 뜻을 기렸다.

합동 추모재는 화엄사 선다회의 차 공양을 시작으로 입정, 생전 도광 · 도천 스님의 육성법문, 종일 스님의 행장 소개에 이어 화엄사 조실 명선 스님과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설정 스님의 헌다와 문도 스님의 헌화로 진행됐다.

부도밭에서 거행된 종산 스님의 부도탑 제막식에서 참석한 스님들은 부도탑 제막 이후 헌다, 헌화를 통해 종산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광 · 도천 스님 부도탑 옆에 세워진 부도탑은 전형적인 형식으로 연꽃좌대 위에 8각 옥개석과 8면의 창이 있고, 창에는 인왕상을 비롯해 불교상징물과 종산 스님 명문이 새겨져 있다.

한편, 종산 스님은 1949년 자운사에서 도광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출가했다. 1953년 전남 강진 백련사 만덕선원에서 안거에 들어간 이래 43년간 대흥사, 통도사, 해인사, 범어사, 용주사 중앙선원 등 전국을 돌며 수행 정진했다.

1988년 중앙종회 임시의장, 1990년 보살사 직지선원 조실, 2000년 천은사 방장선원 조실, 2002년 구산선문 태안사 원각선원 조실, 2012년 화엄사 선등선원 조실 등으로 추대됐으며, 1997년 대한불교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의원에 선출된 뒤 그해 제6대 원로회의 의장, 2007년 제7대 원로회의 의장으로 추대됐다. 2020년 6월 23일 법랍 72년 세납 97살에 원적에 들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는 9월 29일 前 조계종 원로의장 종산 스님의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지역 어르신 위한 10년 생일상 보시

진안 마이산 탑사 · 쌍봉사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

진안군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쌍봉사(주지 보경)가 10년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9월 23일 진안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진안 동부새마을 금고(이사장 조용국), 진무장재가복지센터(센터장 최주연)와 함께 지역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제10회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문화공연은 생신축하 케이크 커팅, 자원봉사자들의 큰 절, 지역 가수 김트롯, 서현의 공연과 난타공연, 쌍봉사 만복의 소리 합창단 공연, 마술쇼 등으로 이어졌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배양 운동에 성실하고 참신한 마음으로 그 맥을 이어왔다”며 “모든 진안군 어르신 모두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9월 23일 제10회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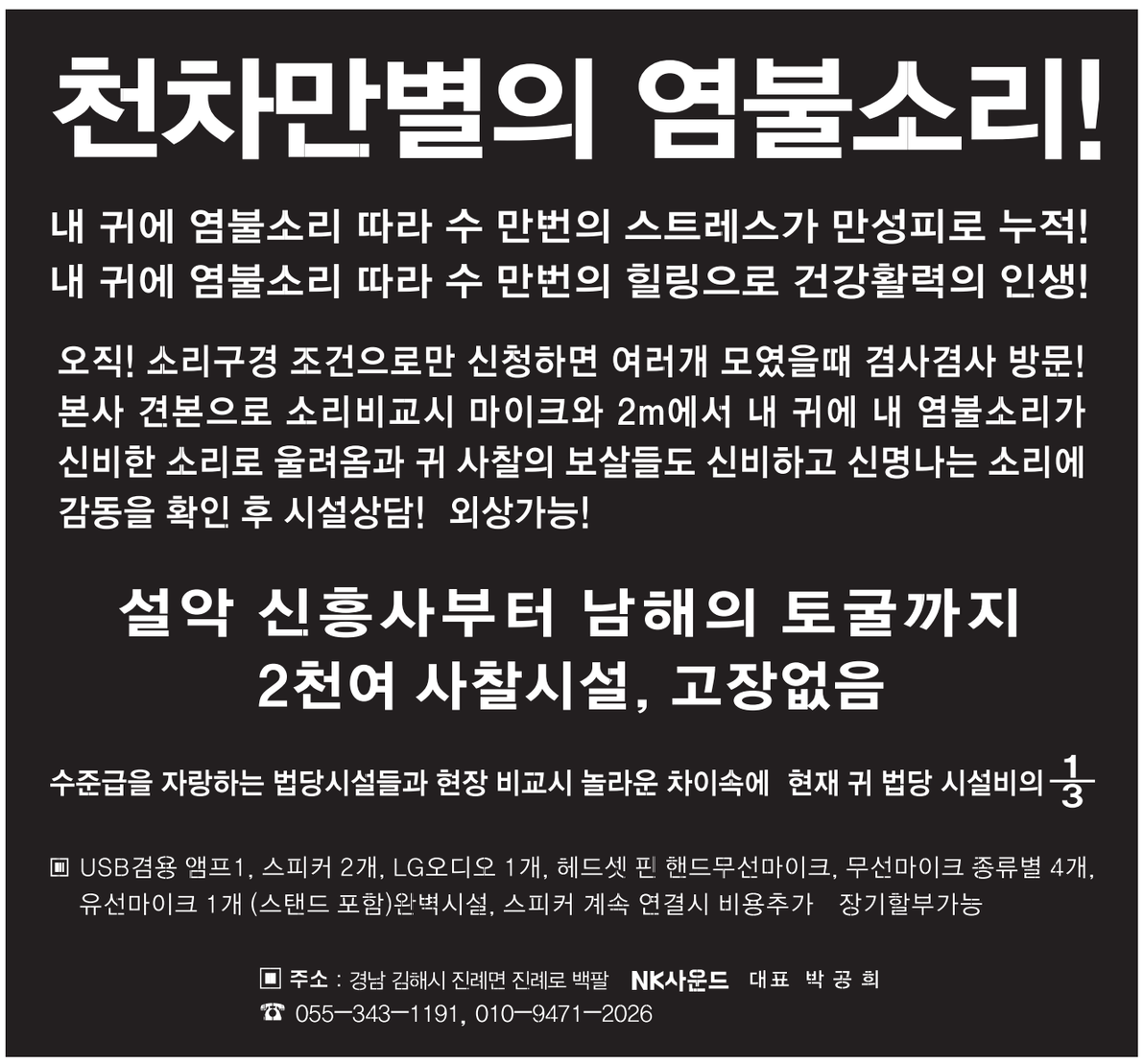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이 웃음을 잃지 말고 건강하게 생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 등은 “지역 어르신들을 부모같이 잘 모시겠다”고 약속하며 큰절로 생신을 축하했다.

이번 지역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진안 지역 75세 이상의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과 기념품이 전해졌다. 행사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60명의 지역 어르신과 30명의 자원봉사자만 참석했으며, 참석 어르신들에게는 별도의 식사비용으로 2만 원 상당의 진안사랑 상품권이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日히에이산 학살 450주기 위령법회 봉행

아군·적 구별 없이 위령
희생자 후손들도 참여해

박영빈 객원기자


친지와 적을 구별하지 않는 평등의 정신으로 봉행된 천도재. 사진출처=교토신문

일본불교의 성지이자 천태종의 총본산인 히에이산(比叡山)은 450년 전화에 휩싸여 전소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위령법요를 지내온 히에이산이 450주기 위령법요를 맞아 이들의 후손을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9월 12일 일본의 '교토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은 히에이산 엔랴쿠지(延暦寺)에서 봉행된 법요식을 특별보도했다.

1571년 9월 12일, 당시 일본의 무장이었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는 히에이산의 타락을 구실로 전략적 요충지였던 히에이산을 공격했다. 당시 사료에는 3만 대군이 산에 불을 놓았고 엔랴쿠지를 비롯한 주요 전각들이 전소, 저항하던 승병들을 비롯해 강원의 학인과 사미까지 1,500명의 승려들이 참수 당했다고 전한다. 당시 사하촌의 민간인들까지 총 4천명에 가까운 희생자들이 나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10여년 뒤 오다 노부나가는 부하였던 아케치 미츠히데(明智光秀)의 배반으로 죽게 된다. 일설에는 신심이 깊었던 아케치 미츠히데가 성지 히에이산을 오다 노부나가가 잔혹하게 정벌한 것에 원한을 품어 빚어진 일이었다고 한다.

히에이산은 중세 이후로 부흥에 성공, 당시 화공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려왔다. 1992년에는 엔랴쿠지 경내에 위령탑을 조성하고 히에이산 측 희생자들과 함께 산을 공격한 오다 군을 함께 위령하는 법요를 매년 9월 12일 봉행해왔다.

엔랴쿠지 위령법요 부집행장인 이마데가와 교카이 스님은 "천태종 종조 사이쵸 대사의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끝이 없으나, 원한을 덕으로 감싸 안으면 곧 원한이 그친다' 는 유지에 따라 원친평등(怨親平等) 뜻을 담은 위령탑을 조성하고 넋을 달래는 기도를 봉행해왔다"고 밝혔다. 스님은 "450주기 위령법요는 종조 사이쵸 대사 원적 120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진행되기에 종조 가르침을 더욱 깊이 새기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법요식에는 화공의 주모자였던 오다 노부나가 후손과 당시 관계자이자 노부나가를 죽게 한 아케치 미츠히데의 후손이 초청됐다. 특히 아케치가 대표로 참석한 아케치 켄자부로는 현재 저명한 역사연구가로 법요식 후 진행된 히에이산 불교문화 심포지움 대담자로도 참석했다.

엔랴쿠지 아미타당에서 열린 법요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히에이산 위원들과 주요 관계자들만 모여 봉행됐으며 온라인으로 동시 중계됐다. 참석자들은 법요식 후 위령탑으로 이동, 히에이산과 오다가와 아케치가의 대표들이 함께 손을 모으는 장면을 연출했다.

법요식의 법주를 맡은 엔랴쿠지 미즈오 쟈쿠호 스님은 "지금껏 희생자나 오다군의 후손들을 법요에 초청하거나, 자발적으로 참례한 적은 있으나 오다와 아케치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의 후손이 동시에 참여한 것은 최초"라고 전하며, "히에이산 화공 당시 스러진 스님들과 무장들의 역사 위에 우리가 서있다. 이제 새로운 관계가 이번 법요식을 계기로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中, 불교 악용 인플루언서 단속

사찰 내 명품 과시 행태에 제재


기사와는 무관한 자료사진. 현재 포위안들의 게시물은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 사진출처=EPA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내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 일부가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 불교 사원과 종교 의식을 악용, 인터넷 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9월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등 현지 매체들은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관심을 얻기 위해 불교 사원을 이용해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사찰에서 기도와 명상, 서예, 다도 등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공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법당 내에서 한껏 차려입고 명품 핸드백을 과시한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들은 "이들은 단순히 법당에 들어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고가의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백을 든 채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교' 를 이용해 대중의 관심을 끈 뒤 SNS를 통해 의류, 보석류, 화장품 등을 은연 중에 광고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이른바 '포위안' (foyuan)으로 불리는 이 같은 인플루언서들에 대해 "인기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 불교를 악용하는 부류"라고 공식 저격한 이후 몇몇의 중국 SNS 플랫폼은 이들의 계정을 금지시켰다.

'틱톡' 의 중국 버전인 더우인(Douyin)은 48개의 포위안 계정을 제재하고 이중 7개에 대해선 영구 차단 조치를 내렸다. 또 중국의 SNS 기반 쇼핑 플랫폼인 샤오홍수(Xiaohongshu)도 포위안 관련 게시물 70개를 강제 삭제하고 계정 3개를 차단했다.

또 중국의 대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콰이쇼우(Kuaishou)는 "가짜 이미지의 거품은 마침내 사라질 것"이라며 "종교를 악용해 마케팅하는 식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중국 매체 워커스데일리(Worker's Daily)는 논평을 통해 "실제로 물욕에 가득 찬 여성들이 성스러운 사찰에 잠입해 종교에 귀의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죄악과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잠들어 있던 성보들, 다시 세상 밖으로

日 불교성지 '쇼죠신인'서
금니사경, 서간문 등 발견


잠들어있던 보물함에서 다시 빛을 본 금은니 〈사분비구니갈마〉사경.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일본불교의 성지이자 진언종의 총본산 고야산(高野山)의 산내 사찰인 '쇼죠신인(清浄心院)' 에서 대량의 성보들이 발견됐다. 사찰과 인연이 있었던 위인들의 서간문 들을 비롯해, 금니와 은니로 쓰인 사경 등 교계와 학계가 주목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은 이 놀라운 발견을 보도했다.

고야산 산내 중심부에 자리 잡은 쇼죠신인은 9세기 중반, 진언종의 개조인 코보(弘法)대사가 창건한 암자에서 시작된 천년고찰.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참배했다는 기록이나 예술성이 뛰어난 성보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유명하다.

지난해 말, 쇼죠신인 측은 오랫동안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던 유물들과 성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껏 개봉하지 않았던 보물함들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쇼죠신인의 마츠무라 아츠시 사무장은 "오랫동안 개봉된 적이 없어,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발견된 보물함들은 모두 목제로 길이와 높이가 50~80cm 가량 되는 것이 약 50개, 1.5m 가량의 옻칠이 된 상자도 2개 발견됐다. 보물함의 발견이 보고되면서, 고야산 대학 산하의 밀교문화연구소가 사찰측의 협조를 구해 옻칠이 된 상자들만 먼저 개봉에 나섰다. 상자 안에서는 다수의 서간문들과 족자, 사경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서간문 중 하나에서는 일본 전국시대의 유명한 무장인 우에스기 켄신(上杉謙信)의 것도 발견됐다. 우에스기 켄신은 쇼죠신인의 역사 속에 사찰을 후원한 대시주로 기록이 남아 있으며, 현재도 그 가문의 위패가 경내에 봉안되어 있다.

서간문을 해석한 밀교문화연구소의 키노시타 히로요시 연구원은 "서간문은 쇼죠신인이 켄신을 위해 기도를 봉행하고 보내온 답변과 예물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다시 공양물을 올린다는 내용" 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간문은 켄신이 젊은 시절에 쓰던 이름으로 쓰여 있어 각별하며, 만약 서명뿐만 아니라 서간문 전체가 친필이라면 더욱 귀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발견된 서간문 대부분이 전국시대의 유명 무장들, 혹은 대영주들의 것으로 밝혀져 "연구가 진행되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중세 사찰과 무장들 간의 관계가 밝혀질지도 모른다"고 키노시타 연구원은 전했다.

서간문과 함께 3권의 사경 두루마리도 발견됐다. 〈사분비구니갈마법〉으로 밝혀진 두루마리들은 모두 쪽으로 물들인 종이에 금니와 은니로 사경되어 주목을 끌었다. 각 사경의 앞머리에는 금과 은으로 화려한 변상도가 그려져 있고, 금과 은으로 각 한 행씩 교차해 가며 사경됐다.

현재 학계에서는 발견된 사경들의 특징들이 '츄손지(中尊寺) 사경' 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에서 미발견의 사경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츄손지 사경은 12세기경에 금은지로 사경 된 대장경으로 전체 5,400권으로 전하나 전쟁 등으로 산실되어 아직 미발견 된 사경이 많은 것으로 전한다. 쇼죠신인 측은 "켄신의 서간은 오는 가을에 특별공개 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경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감정을 마친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플로리다 사찰방화범 체포

종교 혐오범죄 사회문제로


사진출처=AP통신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여성이 불교 사원에 화염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AP통신 등 외신이 9월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9월 26일 팜비치 가든(Palm Beach Gardens) 인근에서 46세 여성 메이 청(Mei Cheung)이 사찰 방화 혐의로 체포됐다.

용의자는 4개의 화염병을 사찰 밖에서 내부로 던지고 1개의 화염병을 사찰 앞에 비치된 우체통에 넣었으며, 이 장면은 사찰 CCTV에 포착됐다.

지역 경찰에 따르면, 해당 용의자는 이미 폭탄 사용 혐의 5건과 종교 시설에서의 재산피해 혐의 1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AP통신 등은 "해당 용의자는 지난 27일 아침 팜비치 카운티 교도소에 이감됐다"며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년 혐오범죄 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혐오범죄가 모두 7759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보다 6% 증가한 수치로, 2014년과 비교하면 42%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혐오범죄 중 인종·민족·혈통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범죄가 55%로 가장 많았고, 종교에 대한 범죄는 24%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이슬람 신자에 대한 혐오 범죄는 42%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에서 48%는 협박·위협이었고, 44%는 사유지나 재산의 파괴나 손상이었다.

박정현 객원기자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전국 최초 최고 불자 명품 교육기관]

무명에서 빛을 찾아 함께 갑시다!

부산불교교육대학

개교 40년 맞이

하반기 신입생 大모집 유튜브 강좌 개강

정 규 과 정

■ 기초교리학과 (6개월, 화 / 유튜브 강좌 병행)
기초 핵심교리를 알기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학장 스님)

■ 불교엘리트 1기 (6개월, 목 / 유튜브 강좌 병행)
● 금강경 (前 해인사 강주 보윤스님)

자격증 취득 과정

■ 불교문화학과 (6개월 / 김춘식 교수)
사찰문화재 중심 시청각 강의 및 현장답사
▶불교문화 포교사(수) (민간자격 등록 2018-000374)
▶불교문화 전문지도사(금) (민간자격 등록 2019-000629)

신규탁 교수의 유튜브 강의

■ 벽암록 (3개월, 월·수 / 각 30분)
● 선종의 최고 과목

■ 화엄경 (6개월, 화·금 / 각 60분)
● 교종의 최고 과목

승려연수 인증교육

●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 10/18(월)~22(금) 5일간 13:30~16:30
●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서울대학원·캐나다UNB박사)
● 비대면 ZOOM 화상 교육 (조계종 승려 50명)

※ 각 학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9~10/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2	지옥에서 연꽃을 피운 수도자아내의 수기	변영희	바른법연구원
3	잠못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목 스님	모네정원
4	반야심경 마음공부	페이융	유노북스
5	붓다 중도로 살다	도법 스님	불광
6	성자와 범부가 함께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7	어리둥절 깨달음	고정해	운주사
8	눈먼보리와 도둑고양이	동은 스님	불교신문사
9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하늘호수
10	인생수업	법륜 스님	휴

책세상

"공부는 꾸준히 하되 허덕허덕 바쁘게 하지 말라"



▲저자 **백성욱 박사**는?

1897년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서 출생했다. 만 3세에 아버지를 여읜 데 이어, 9세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정릉 봉국사서 행자 생활을 시작, 13세에 최하옹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전국 주요 사찰의 불교전문강원서 8년에 걸쳐 공부하다, 1917년(20세)에 서울로 올라와 동국대 전신인 불교중앙학림에 입학했다. 1919년 3월 1일, 한용운 스님 명을 받아 중앙학림 학생들을 인솔해 탑골공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배포했다.

1921년(24세)에 충정공 민영환의 아들 범식·장식 형제의 지원을 받아 그들과 함께 1년 동안 프랑스 북부 보베의 고등학교서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를 공부했다. 이듬해,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의대서 공부하던 이미륵을 만나 철학과 한스 마이어 교수를 소개 받았으며, 뷔르츠부르크대 대학원 철학과에 입학, 1923년 가을부터 마이어 교수 지도로 〈불교순전철학(佛敎純全哲學)〉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매진했고, 이듬해 9월에 인준 받았다.

1925년(28세) 9월 귀국해 신문과 잡지에 시와 논문, 에세이 등을 기고하고, 각종 토론회와 법회에 나서는 등 불교 혁신 운동에 참여했다. 이어 1929년(32세) 늦여름, 불교전수학교(구 불교중앙학림) 교수직 등 모든 걸 내려놓고 금강산에 입산, 장안사 보덕암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수행 중 혜정 손석재 선생 권유로 오대산 상원사 적멸보궁에 함께 가서 100일 기도 정진했으며, 1930년부터 장안사 안양암서 1일1식 하며 〈대방광불화엄경〉 염송 수행을 시작했다.

안양암 3년 정진 중 깨달은 바가 있어, 장안사 지장암서 손혜정 선생과 함께 근대 최초의 수행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며 회중수도(會衆修道)를 시작했다. 조국 독립을 기도하고, 〈대방광불화엄경〉을 염송하면서, 7년여 동안 5백여 제자를 지도했다. 1938년(41세) 4월, 지장암 수도 중에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지목돼 경남 의령경찰서로 연행돼, 50여 일간 취조 받다가 석방됐으나, 일제의 압력으로 하산하게 되었다.

이후 서울 돈암동과 치악산 상원사 동굴서 정진 수도하다가, 1945년 해방이 되자 애국단체인 중앙공작대를 조직하고 민중 계몽운동을 시작했다. 상해임시정부 시절 인연이 있던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한 건국운동에 참여했으며, 1950년(53세) 제4대 내무부장관, 1951년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사장에 취임했다. 1953년 7월, 부산 피난 중 동국대 제2대 총장에 취임했으며,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동국대서 물러나게 된 1961년 7월까지 서울 중구 필동에 대학교 교사를 건립하고 동국대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금강삼매경론〉 〈화엄경〉 〈인류 문화사〉 등을 강의했으며, 〈고려대장경〉 영인 작업에 착수, 총 48권의 현대식 영인본을 출간하기도 했다. 1981년 8월 19일(음력), 출생일과 같은 날, 84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백성욱박사 전집 세트〈전 6권〉

백성욱 지음/김강유, 김원수, 이광옥 편

김영사 펴냄/144,0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백성욱 박사 전집(전6권)〉은 그동안 파편적으로 존재한 백성욱 박사의 글과 말씀, 강의를 새롭게 수집 정리해 출판한 것이다. 말씀이 기록된 릴 테이프를 수차례 재청취하고 다듬어 강의와 법문을 정리했고, 역사 자료와 도서관 문헌 등을 추적 발굴해 읽기 쉽게 편집 수록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 강의에 없던 내용은 괄호와 주석 속에 추가 보강했다.

이외에도 기사 편지 메모 녹음 영상 출판물 등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인물들과의 인터뷰 및 취재를 통해 사실 확인 후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했으며, 그동안 잘못 알려진채 인용되던 내용도 수정 보강했다.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다 정확하게 연보와 생애를 구성하고, 생생한 법문과 학인들의 수행기를 통해 백성욱의 깨달음과 가르침의 방향을 명확하고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총 여섯 권으로 이루어진 전집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제1권:백성욱 박사의 금강경 강화=독창적인 시각과 해석이 돋보이는 백성욱 박사의 〈금강경〉 해설서. 1959년 동국대 강의를 바탕으로, 문도들의 사가서 설한 추가 강의까지 정리해 함께 실었다.

△제2권:불법으로 본 인류문화사 강의=불교 관점서 인류와 세계, 문화와 역사를 파헤친 인문학 특강.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기(1953~1961)에 교수와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해 20장으로 나누어 실었다.

△제3권:분별이 반가울 때가 해탈이다(백성욱 박사 법문집)=백성욱 박사의 말씀과 핵심적인 가르침을 집약한 법문집. 학인과 대중을 상대로 남긴 말씀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19장으로 나누어 실었고, 지인과 학인이 전하는 일화도 담았다.

△제4권:백성욱 박사 문집=백성욱 박사가 직접 쓴 논문·시·에세이·편지·법문 등 글 모음집.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 박사학위 논문인 불교순전철학을 포함해, 〈불교〉 〈동광〉 〈동아일보〉 등 여러 매체에 기고한 40여 편 글을 모았다.

△제5권:금강산 호랑이(내가 만난 백성욱 박사)=시인 교육자 학자 정치인 종교인 문화계 인사 등 스물둘 명사와 학인들이 백성욱 박사 진면목을 밝힌 회고록. 백성욱 박사와의 일화, 소사에서의 생활, 열반에 들기까지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제6권:응작여시관(백성욱 박사 전기)=백성욱 박사의 지인과 제자 학인들의 회고, 각종 기록과 언론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백성욱 박사의 생애와 세계를 담았다. 편지와 논문, 시와 에세이, 주요 강의와 법문 등을 집약해 정리한 백성욱 박사에 대한 최초 본격 전기이다. 한 권으로 맛보는 백성욱 박사의 문장과 말씀, 일대기와 가르침이 들어있다.

근현대 선지식 백성욱 전집 6권 출간
〈금강경〉과 인류문화사 강의 등 수록
저자와의 일화, 소사, 열반까지 담겨
2년 9개월 동안 저자 모든 것 총망라

이번 〈백성욱 박사 전집〉 출판으로,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던 백성욱 박사의 출생과 성장, 청년기의 독립운동, 유럽 유학 시절, 금강산 수도 시절, 동국대 진흥을 비롯한 사회활동, 소사 백성목장 시절 등 다양한 면모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자인 백성욱을 일컫는 말은 다양하고 특별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연구 및 기록은 많지 않다. 또한 대중적으로도 그다지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다. 그가 강설한 〈금강경 강화〉, 제자들이 전하는 일화와 법문 일부가 책으로 엮여 있고, 불교학 연구자들이 그의 금강산 수도 시절을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백성욱 박사 전집〉은 2019년 1월 백성욱 박사 제자인 김강유가 백성욱 박사와 인연 있던 분들을 수소문하고 연락해 발행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수집하고, 수차례의 기획 회의와 재구성을 거쳐 윤문과 교정 보완했다. 1977년에 이광옥 김원수 김동규 등의 도반들과 함께 백성욱 박사의 〈금강경〉 법문 녹취록 작업을 진행한 그는, 1993년 2월에는 '백성욱 선생님 송덕문집 간행위원회'를 만들어 백 박사와 인연 있던 명사와 학인들의 글을 '내가 만난 백성욱'이란 주제로 청탁해 받아 두기도 하였다.

〈백성욱 박사 전집〉에 담겨 있는 여러 인사들의 기억과 일화는 그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소사 백성목장 시절, 그의 곁에서 수행의 길을 걸었던 제자들의 생생한 수도 생활 기록은 백성욱 박사의 가르침과 선지식으로서의 면모를 고스란히 전해준다. 백성욱 박사의 문집에 담겨 있는 편지는 당시 그의 형편과 시대적 상황, 내면의 진솔한 고백을 드러내 보인다. 백성욱 박사의 에세이와 강설은 이 세계의 실상과 존재의 참모습을 파악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법문집은 백성욱 박사가 그때그때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온 이들에게 설한 밝고 생생한 방편을 담고 있다.

저자인 백성욱 박사는 수행 방법을 물어온 어느 사찰의 학인에게, 〈금강경〉을 독송하고 마음을 바치는 공부법에 대해 이렇게 편지를 썼다.

"'미륵존여래불(彌勒尊如來佛)'을 마음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든 부처님께 바치도록 연습하십시오. 가지면 병이 되고, 참으면 폭발합니다. 아침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으시되, 직접 부처님 앞에서 법문 듣는 마음으로 하시고, 이를 실행해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오직 이렇게 공부하시되 주의하실 일은 '공부하겠다' 하면 탐심이요, '공부가 왜 안 되나?' 하면 진심이요, '공부가 잘된다' 하면 치심이니, 너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안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고인은 "꾸준히 하되 허덕허덕 바쁘게 하지는 말라(斯可以綿綿 不可以勤勤)"이라고 했지요. 이렇게 하여 무슨 일을 당하거나 무슨 생각이 나더라도 오로지 절대로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바치면, 이 세상은 그대로 낙원일 것입니다."라고.

대한민국 광복을 전후로 세상과 수행 양쪽에 전무후무한 자취를 남긴 백성욱 박사의 강의와 말씀, 글과 일화, 나아가 그 삶의 일대기는 그 활발발한 기상이나 헌신의 깊이만큼 묵직한 여운을 남긴다.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극적인 변화의 기록들, 비범한 통찰과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전집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독자에게도 의미 있는 지침이 되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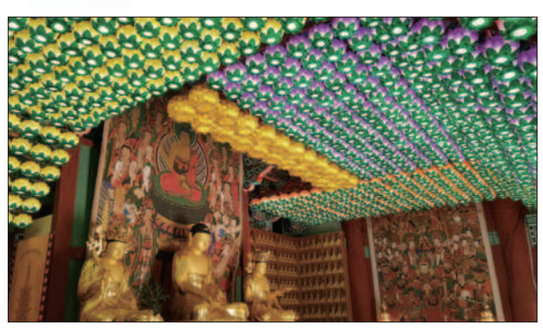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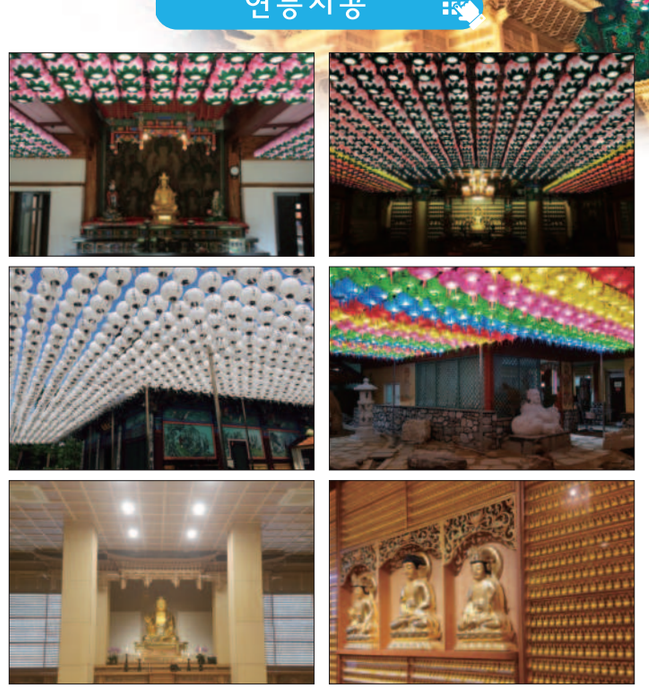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오대산서 보는 탑돌이 뮤지컬 '리파카 무량'

월정사 2021 오대산 문화축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월정사 일원

8일 오후 1시 특설무대서 개막 공연

녹색미래 좌담회 · 월정사 탑돌이 등

대면 · 비대면 혼합 형태로 행사진행



박칼린 감독

박칼린 연출 '리파카 무량' 쇼케이스

월정사 탑돌이 모티브 정념스님 기획

박칼린 감독에게 뮤지컬 제작 의뢰해

석공 '무량' 최고장인 되기까지 이야기

8일 세 주인공 출연해 넘버 6곡 선보여

2023년 완성 예정, 내년부터 메인공연



월정사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2021 오대산 문화축전 '천년의 숲, 희망이 불다'를 개최한다. 사진은 '오대산 문화포럼'으로 진행된 지난해 축전 모습.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2021년 오대산 문화축전 '천년의 숲, 희망이 불다'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강원도의 청정한 자연과 성산(聖山) 오대산의 치유 문화 속에서 희망을 일깨우는 이번 오대산 문화축전에서는 '탑돌이'를 주제로 한 뮤지컬 '리파카 무량' 쇼케이스 공연이 있을 예정이어서 대중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울러 뮤지컬의 연출을 박칼린 감독이 맡아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 감독이 2023년 완성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뮤지컬 '리파카 무량'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8호 '월정사 탑돌이'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오래 전부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불교적 의례이자 우리의 전통 민속인 탑돌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오던 중 박칼린 감독에게 의뢰해 만들어진 뮤지컬이다. 뮤지컬 제작을 의뢰받은 박 감독은 1998년에 자신이 써놓았던 '탑'이라는 대본과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뮤지컬 제작과 축전에 동참하게 됐다. 뮤지컬 '리파카 무량'은 내년부터 오대산 문화축전의 메인 공연으로 열릴 예정이며, 이번 공연은 쇼케이스 무대라고 할 수 있다. '무량' '혜류여왕' 무량의 스승 '백산'이 12명의 무용수와 함께 6곡의 넘버와 안무로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본은 전수양, 음악은 장희선, 안무는 김윤규가 맡았다.

연출을 맡은 박칼린 감독은 "저는 어릴 때부터 절에서 놀면서 자랐어요. 불교와 가깝게 살았고요. 불교를 일찍부터 보면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읽었던 소설 〈무영탑〉이 아마도 대본 '탑'을 만들어 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탑'이 월정사의 '탑돌이'와 만나서 또 하나의 이야기와 뮤지컬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에 어릴 적 경험했던 나의 불교적 정서와 기억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저 자신도 궁금합니다."

'리파카(Lepaka)'는 '석공'이란 뜻의 산스크리트어로, 현존하고 있는 사리탑과 탑돌이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됐으며 오래전 가상의 불교국가에서 벌어지는 석공과 최고 통치자인 여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젊고 실력 있는 석공 '무량'이 험난한 수행의 길을 걸으며 최고의 석공 장인이 되기까지의 여정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찍이 왕위에 오른 '혜류여왕'이 반대파로부터 왕권을 지키며 역사에 길이 남을 사리탑을 세우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의례와 민속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탑돌이를 대중이 함께하는, '기원'의 수단과 더불어 참여형 축제로 승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 싶었다"며 "다양하게 펼쳐지는 오대산축전의 내용, 시대적 가치와 의미를 구현해나가는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고 공연과 축전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불교성지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많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오대산은 긴 세월 동안 조선왕조실록과 조선 왕실의궤를 모셨던 곳으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오대산은 최고의 수행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수행자와 관광객이 끊임없이 찾는 이유는 월정사가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기고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4년부터 개최해 온 오대산 문화축전 역시 그 노력의 일환이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제가 주지로 부임하면서 1400년 역사의 오대산에 깃든 다양한 문화들을 현대적인 문화와 융합하고 연결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많은 산중의 청량감과 마음의 안식, 또 치유의 문화를 듬뿍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문화축전을 기획하게 됐고, 올해로 18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천년의 숲, 희망이 불다'라는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얼어붙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또 미래의 새 희망을 불어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고 축전의 의미를 밝혔다.

문화축전은 10월 8일 오후 1시부터 월정사 특설무대에서 개막공연 '과거와 미래를 잇다'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녹색미래 좌담회, 코로나 극복기원 오대산문 희망의 야단법석, 월정사 탑돌이가 진행되고, 둘째 날인 10월 9일에는 한강시원지 문화제, 제18회 탄허대종사 휘호대회, 제18회 탄허대종사 학생 백일장, 오대산 뮤지컬 '리파카 무량'이 진행된다. 셋째 날인 10월 10일에는 국제명상세미나가 진행되며, 문화축전 기간 동안에는 명상 체험존, 체험 한마당, 버스킹, 전시, 진부 전통장터 등이 함께 진행된다.

월정사는 작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행사명을 오대산 문화포럼으로 변경하고, 모든 행사를 전면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백신접종률 증가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기반으로 대면과 비대면(부분적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혼합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 준비했다. 일부 관객을 수용하면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오대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월정사의 훌륭한 불교를 알릴 계획이다.

2021 오대산 문화축전 주요행사 일정

일자	시간	프로그램	장소
10.8	13:00~13:20	개막공연 '과거와 미래를 잇다' –김덕수 사물놀이, 엠비크루 비보잉	탑 앞 특설무대
	13:20~14:00	개막식	
	14:00~15:20	녹색 미래 좌담회	법륜전
	14:00	코로나 극복기원 오대산문 희망의 야단법석 월정사 탑돌이(강원도 무형문화재 전승발표회)	탑 주변
10.9	10:30~12:00	한강시원지 문화제 –한강시원제 – 한강 · 생명 문화제	금강연 특설무대
	13:00~14:00	제18회 탄허대종사 휘호대회 –휘호대회 및 서예체험	법륜전 내 외부
	13:00~14:00	제18회 오대산 전국 학생 백일장 –작가의 멘토링(김초혜 선생님)	실록의궤 박물관(안)
	15:00~15:40	오대산 뮤지컬 '리파카 무량' –박칼린 연출	탑 앞 특설무대
10.10	10:00~12:00	국제명상세미나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오대산 명상지도자 대담	오대산 전역
전일정	10:00~17:00	명상 체험존 –오대산 자연명상마을(OMV) 동림선원) 체험 한마당 –오대산 권역 각 단체 체험부스 버스킹 –평창문화예술재단 외 전시 –제18회 오대산 전국 학생미술 공모전 전시 외 진부 전통장터	월정사 일원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숨은 옛 절터로 향한
박시윤 작가의 7번 국도 절터 기행

잇대고 잇대어 일어서는 바람아

"더 늦기 전에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옛 절터의 아름다운 소멸"

흔적만 남은 폐사지에서 보낸 시간을
박시윤 작가 특유의 문학적 언어로 기록한 기행에세이

글·사진 박시윤
140×210mm | 378면 | 17,000원

YES24.COM
예스24 6주 연속 베스트셀러
한국사/한국문화 top100

도서 평점
알라딘 9.8점
YES24.COM 9.6점
인터파크 9.1점

2020 탄허 대종사 역저서



신화엄경 합론
(新華嚴經 合論)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전체금장 12,424쪽.
합본23권
값1,610,000원

이 책은 불교의 진수(眞髓)이며 고래 화엄종의 소의경전이다. 법화(法華)·열반(涅槃)과 함께 삼대경으로 손꼽히는 일승요의경으로써 요의경(了義經)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백천중류에는 바다가 가장 으뜸이고, 삼라만상에는 허공이 가장 으뜸이며, 일체 성현 중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으뜸이고 일체 경교(經敎)에서는 화엄경이 가장 으뜸이다.
범부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과정의 삼현십지와 불법의 신(信)·해(解)·행(行)·증(證)과 사법계·십법계·육상원융·십현문 등 가장 심오하고 광대무변한 법문이 이 경(經)·논(論)·소(疏)에 잘 설명되어 있다.
본 경은 80권 화엄경과 통현론 40권·청량국사 화엄소초 150권·회석 7권·현담 8권·보조국사의 원돈성불론 1권·계환선사의 화엄요해 1권과 탄허선사의 주석 등 총287여 권의 집대성이다.
이와 같이 화엄학을 집대성하여 수록하고 번역한 것은 유사이래 처음 있는 금자탑이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귀중한 법보(法寶)중의 법보로써 크게 추앙받으리라.
우주와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화엄경(華嚴經)뿐이다.



전 5권 전체금장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40품)
4×6배판 2도인쇄
가로쓰기
전5권 한질 값400,000원

대방광 불화엄경(40품)을 덧말(음)을 달아 남(男)·녀(女)·노(老)·소(少)·유(有)·무식(無識) 누구나 수 읽어볼 있 한 번쯤게 단락을 달았습니다.약3,200쪽 분량으로 640쪽 1권 총5권 한셋트로 2도인쇄 전체 금장으로 영원히 유산이 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어려운 한문 때문에 경을 못 보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어 대방광 불화엄경 40품 594,741여자(餘字)를 원문과 동시 덧말(음)을 붙여 한글만 알면 누구나 한번쯤 독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화엄경은 가정에서
법보로 가보로 꼭 필요합니다.
本經전을 受持하면
돈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譯經많은 他의 追從을 不許.



도덕경 (道德經)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고급양장 전2권 1.152쪽.
도덕경 고급양장 2권
140.000원



莊子南華經
(장자남화경)
4×6배판 고급양장 512쪽
탄허스님 육성 씨디포함
고급양장 1권 60.000원



주역선해 (周易禪解)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1.784쪽.
주역선해 3권
210.000원

도서출판 교림
http: www.tanheo.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4길17(경운동)
건국빌딩 건국관 202호
☎ (02)733~3334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보물 승격된다

문화재청 9월 28일 지정 예고
“통일신라 당간지주 전형으로
유일 귀부석 간대석 적용사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북도 유형문화재 경주 구화동 당간지주 전경. 문화재청은 기존 경주 구화동 당간지주를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경북도 유형문화재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가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로 명칭이 변경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경북도 유형문화재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를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는 분황사 입구 남쪽과 황룡사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신라 시대 분황사 가람의 규모와 배치 등을 고려하면 분황사에서 활용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문화재명을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로 변경해 지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당간지주는 당을 걸기 위한 당간을 고정하는 지지체로 통일신라 초기부터 사찰의 입구에 본격적으로 세워진 조형물이다.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진 속 모양과 현재의 모습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지주 사이에 세웠던 당간은 남아있지 않지만, 조영 기법과 양식이 같은 두 지주와 당간을 받쳤던 귀부형 간대석이 원위치로 보이는 곳에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다. 귀부형의 간대석은 남아있는 통일신라 당간지주 중에서는 유일하다.

좌우 두 당간지주는 같은 조영 기법과 양식, 가공 수법을 보인다. 전체적인 형태는 사각 기둥모양인데, 상부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 정상부는 안쪽 면에서 바깥 면으로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도록 가공했다. 당간지주의 안쪽 면에서 바깥 면으로 관통하는 원형 간공(竿孔, 지름 15cm)은 상중하 3곳에 마련돼 당간을 고정토록 했다. 이처럼 당간지주의 상중하 3곳에 간공을 마련하여 당간을 고정하는 수법은 통일신라의 당간지주에서 많이 적용된 기법이다.

전체적인 형태와 외관 등이 현재 보물로 지정된 경주 망덕사지 당간지주, 경주 보문사지 당간지주, 경주 남간사지 당간지주 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이들 당간지주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경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요 사찰의 당간지주와 유사한 조영 기법과 양식을 보이고, 현존하는 통일신라 당간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귀부형 간대석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유사 당간지주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故 이건희 기증 ‘석보상절’ 초간본 공개

國博, 상설전시실서 전시
한글 활자로 만든 첫서적
갑인자 추정 활자도 공개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석보상절〉권 20, 21.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를 통해 공개된다.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석보상절〉 초간본이 일반에 공개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575돌 한글날을 맞아 9월 30일부터 상설전시관 1층 중근세관 조선1실에서 故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석보상절(釋譜詳節)〉초간본과 갑인자(甲寅字)로 추정되는 금속활자를 공개한다”고 9월 29일 밝혔다.

〈석보상절〉은 1447년(세종 29) 세종의 왕후인 소헌왕후 심씨(1395~1446)의 명복을 빌고자 간행된 책이다.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을 받아 부처의 일대기와 설법 등을 정리해 한글로 번역했다. 원래는 모두 24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권20과 21은 세종 대에 만든 한글 활자와 갑인자로 찍은 초간본이다. 같은 판본으로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동국대 도서관 소장본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 전시되는 〈석보상절〉은 그간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져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관람하면서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되는 활자는 1434년(세종 16) 만들어진 ‘갑인자’로 추정되는 금속활자 150여 점이다. 이 활자들은 일제강점기 구입품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다수의 활자와는 입수 시기와 연유가 다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6월 조선 전기 것으로 추정된 서울 공평동 출토 활자들이 공개돼 서로 비교가 가능했다”면서 “이건희 콜렉션 중 갑인자 본 전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활자들이 갑인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활자를 본격 조사하여 갑인자로 추정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람객들이 전시된 〈석보상절〉과 갑인자 추정 활자를 보면서 한글과 문화재 기증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파키스탄 바흐 지역의 사원 유적 전경. 문화재청은 파키스탄 문화유산청과 함께 간다라 지역의 문화유산 공적개발사업을 5년 동안 추진한다.

간다라 유적 보존, 한국이 나선다

문화재청 · 파키스탄 문화유산청 업무협약

간다라 일원 유적서
공적개발 추진 예정

간다라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공적개발사업이 한국이 중심이 돼 이뤄진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9월 2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 문화유산청(청장 아시프 하이더 샤)과 문화유산 공적개발사업(ODA)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서면으로 이뤄졌다.

문화재청(수행기관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파키스탄 문화유산청 소속 고고학박물관국과 함께 세계유산 탁실라 유적 등을 포함한 간다라 지역 유적에 대한 기록화, 디지털 전시관 설치, 보존관리센터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

파키스탄 문화유산청은 문화예술 분야를 비롯하여 유·무형 문화재 보존·활용·관리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고고학박물관국’, ‘국립예술원’, ‘국어진흥원’, ‘국립도서관’ 등 11개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사업 시행지인 간다라 지역은 현재 파키스탄 하이버르-파흐툰흐와주의 중심도시인 페샤와르(Peshwar) 일대로 남북 약 70km, 동서 약 40km의 분지지역이다. 지정학적으로 북쪽은 스와트, 중앙아시아와 연결되고 동쪽으로 카쉬미르, 남쪽으로 인더스 강을 따라 인도 서부 해안가와 이어지면서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문화가 교류·융합하면서 독창성이 뛰어난 간다라 미술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간다라 지역의 찬란한 불교문화 자원과 우리나라의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결합하여 관리 부실로 훼손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유적에 대한 웹기반 서비스를 제공·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향후 한국형 문화유산 공적개발사업을 이집트, 스리랑카, 중남미 등으로 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미술사硏 제1회 미술사 학술상 공모

2022년 1월 1~30일 접수

한국미술사 연구 진흥을 위한 미술사 학술상이 처음으로 공모된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한국미술사학의 발전을 위해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한 미술사 학술상을 제정하고 첫 논문을 공모한다”고 9월 26일 밝혔다.

학문 분야는 불교미술사와 일반 미술사로, 한국미술사 및 관련 있는 동아시아 미술사여야 한다. 지원 자격은 미술사 관계 박사 수료생 및 박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여야 한다.

제출 서류는 논문 1편과 지원서이며,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다. 접수는 한국미술사연구소 이메일(moonmd@hanmail.net)으로 하면 된다.

수상자 발표는 2월 2일다. 대상 1인에게는 상장 및 연구비 100만 원이, 우수상 1인에게는 상장 및 연구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학술지 〈강좌 미술사〉 논문 게재료 30만 원이 지원된다.

한국미술사연구소는 “한국 불교미술사와 미술사학의 발전을 위해 신진 연구자의 논문을 모집한다.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36



▶ **37회 예고**
특사단장 라다굽따는 아쇼까에게 왕자를 교육시키는 불교 사문을 원한다. 아쇼까는 산치동산 절에 있는 담마팔 사문을 추천한다. 담마팔 사문은 아쇼까에게 한때 궁중제관이었던 깃짜나 사문과 아반띠국의 짠다빳조따왕 이야기를 한다.

특사 라다굽따, 아반띠국 웃자인에 오다

빠딸리뿌뜨라에서 특사 일행이 왔다. 아쇼까는 호위대장을 베디샤까지 보내 정중하게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빈두사라왕이 보낸 특사 단장은 제관 라다굽따였다. 라다굽따는 한때 아쇼까의 스승이기도 했으므로 특사 단장은 그만큼 환대를 더 받았다. 호위대장은 라다굽따를 왕에 준하는 호위로 절도 있게 예우했다. 라다굽따는 호위대장에게 환대를 받아서인지 대단히 만족한 얼굴로 웃자인 동문을 통해 들어왔다. 아쇼까는 궁중 접견실에서 특사 일행을 만났다. 라다굽따가 말했다.

"부왕님이시여, 대왕님의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환대해 주시니 감개무량합니다."

"그대는 한때 나의 스승이었소. 오랜만에 만나니 더욱 반갑소."

라다굽따는 일행을 소개했다. 그러자 아쇼까도 자신의 신하들을 소개했다. 접견실 의자에 착석한 뒤부터는 주로 아쇼까가 말을 많이 했다.

"대왕님의 건강은 어떻소?"

"예전 같지는 않지만 정사를 보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대왕님께서 아반띠국을 한 번 오시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대왕님께서 잊어버려도 좋을 만큼 평화롭습니다."

"부왕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란과 소요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행이 베디샤에 도착했을 때 부왕님이 옆에 계신 듯했습니다."

아쇼까는 라다굽따의 솔직한 말에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빈두사라왕의 건강이 예전과 다르다는 전언에는 신경이 쓰였다. 아쇼까는 앞으로도 빈두사라왕에게 자신이 능력을 더 많이 보여주어 인정받고 싶었다. 빈두사라왕이 아직도 정벌하지 못한 나라가 남쪽의 잠부디빠(인도)에는 많았다. 안드라국, 꽁까나국, 드라비다국, 말라꾸따국 등이었다. 잠부디빠 남쪽 바다 건너에 있는 땅바빤니국(스리랑카)도 명령만 내리면 복속시킬 자신이 있었다.

특사 일행은 궁중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회랑을 지나면서 라다굽따가 편지 두 통을 아쇼까에게 예를 갖추어 전했다.

"사신이어서 접견실에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편지입니까?"

"다르마 왕비님, 아상디밋따 부인님의 편지입니다."

"몇 달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인 모양이오."

연회장에는 이미 궁중악대와 무희가 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식탁마다 궁중요리와 과일이 한가득 놓여 특사 일행을 맞이했다. 궁중악대가 시따르보다 단순한 현악기와 반수리, 작은 북을 연주하자 흥겨운 분위기가 고조됐다. 라다굽따는 긴 이동 중에 쌓였던 여독을 풀었다.

아쇼까는 두 통의 편지가 궁금해 참지 못하고 연회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2층 침실로 올라온 아쇼까는 바로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검푸른 시프라강이 보였다. 강에서는 고기잡이하는 어선들의 불빛이 명멸했다. 깜박거리는 불빛은 아쇼까를 빠딸리뿌뜨라로 인도했다. 아쇼까는 어머니 다르마 왕비의 편지부터 꺼내 읽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갑자기 흐르는 눈물이 너의 편지를 적시었단다.

너는 어디를 가든 대왕님을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대왕님은 웃자인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흐뭇해하신다.

나는 친절한 아상디밋따가 항상 내 옆에 있어 잘 있단다.

눈이 호수 같은 손자 꾸날라도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빠딸리뿌뜨라는 조용하고 평화로우니 걱정하지 말거라.

네가 태어나고 자랐던 왕궁은 변함없이 웅장하고

강가강은 마우리아국 백성들의 어머니처럼 자애롭단다.

오늘은 너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한다.

너의 남동생이 아무 탈 없이 태어났단다.

외모는 나를, 성격은 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

아상디밋따가 정성스럽게 산후조리를 해주니 행복하구나.

동생의 이름은 대왕님과 상의해서 비가따쇼까라고 지었다.

네가 웃자인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났을 때 나는 너무도 슬펐는데,

동생이 태어나니 비로소 그 슬픔이 연기처럼 사라졌기 때문이다.

언젠가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온다면 동생을 사랑하기 바란다.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니?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너와 동생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내 말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겠다.

아무리 웃자인이 네 마음에 들더라도 객지이니 외로울 것이다.

외로울 때마다 브라흐마 신들에게 의지하거라.

덕이 높은 수행자를 공경하고 가까이 하거라.

나는 네가 땅 설고 물 선 그곳에서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오는 날까지 나 역시 신들께 기도 올리마. 다르마 씀.〉



아쇼까는 동생 비가따쇼까가 생겼다는 소식에 다소 흥분했다. 다른 왕자들은 두 세 명의 동생들이 있는데도 자신만 외톨이였던 것이다. 그러니 왕실의 무슨 행사에 참가하든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은근히 부러워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아쇼까는 어머니 다르마가 보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어 본 뒤에야 아상디밋따의 편지를 보았다.

〈사랑하는 남편이시여.

먼 나라 아반띠국에서 잘 계신다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대왕님과 다르마 왕비님의 자상하신 배려로 잘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꾸날라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여기고 있답니다.

대왕님은 머리카락이 갈매기처럼 흰빛으로 변하고 얼굴의 주름살이 몰라보게 늘고 목소리도 예전보다 작아져, 다르마 왕비님과 저는 대왕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답니다.

당신은 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저는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오히려 저는 당신의 소원을 이뤄주지 못해 죄송할 뿐이지요.

저는 당신이 원하는 자식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네샤신에게 빌어도 그런 행운은 저를 멀리할 것 같아요.

이제는 당신께서 다른 부인을 만나 당신의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이 당신과 나를 위하는 현명함이 아닐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당신의 편에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저의 운명은 당신의 아들 꾸날라를 잘 키우라는 신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시여. 저의 진심이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마음 하나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아상디밋따 씀.〉

아쇼까의 얼굴은 금세 어두워졌다. 동생 비가따쇼까가 생겼다는 소식에 자축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들떴지만 아상디밋따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소식에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친절하고 자애로운 아상디밋따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기를 원했는데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쇼까는 하인을 시켜 호위대장을 불렀다. 1층 집무실에 있던 호위대장이 즉시 올라왔다.

"특사 일행을 위한 연회는 끝났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연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군마를 준비하시오."

"연회 중인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강변으로 나가 바람을 쐬고 싶소."

"알겠습니다. 소장과 호위병이 경계를 서겠습니다."

아쇼까는 호위병을 앞세우고 시프라강으로 나갔다. 빠딸리뿌뜨라에서 함께 온 선봉대장이 뒤쫓아 왔다. 궁중연회에 참석했던 선봉대장이 오자, 호위대장은 스스로 십여 걸음 물러섰다. 아쇼까는 강변까지 가서 군마를 멈추었다. 강물이 가까이서 철썩거렸다. 선봉대장이 보고했다.

"방금 연회가 끝났습니다. 특사 일행은 모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동생을 낳으셨소. 동생 이름은 비가따쇼까라고 하오."

"부왕님이시여, 얼마나 기쁘십니까?"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다렸으면 마음속의 슬픔이 다 사라졌다고 했겠소? 그래서 동생 이름을 비가따쇼까라고 지었다고 하오.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 동생을 보고 싶소."

강바람이 문득 불어왔다. 아쇼까가 입고 있는 도티와 머리카락이 날렸다. 강 건너 어두운 숲에서 새들이 짧고 날카롭게 울었다. 선봉대장은 아쇼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보는 심복이었다. 아쇼까가 군마를 타고 강변으로 나온 것은 마음이 심란하다는 증거였다. 선봉대장이 말했다.

"부왕이시여,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나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행복과 불행은 의좋은 자매처럼 늘 함께 다닌다고 했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소."

선봉대장은 더 묻지 않았다. 동생을 본 것이 행복이라면 무언가 불행한 일이 있음이 분명했다. 한동안 검푸른 강물을 응시하던 아쇼까가 말했다.

"아상디밋따를 닮은 아이를 원했는데 무망한 것 같소. 아상디밋따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오."

"부왕이시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나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소. 신이 외면하니 나로서도 어쩔 수 없소."

아쇼까는 병사한 첫째 부인 빠드마바띠가 낳은 꾸날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상디밋따에게 기대했던 것인데 신의 가호가 따르지 않았다. 아쇼까의 마음을 간파한 선봉대장이 말했다.

"자식은 울타리입니다. 부왕님께서도 대왕님처럼 자식이 많아야 합니다."

"아상디밋따는 내게 허락했소. 자식을 원한다면 부인을 또 얻어도 좋다고."

"그렇다면 부왕이시여, 베디샤데비를 부인으로 맞아들이십시오. 데비는 부왕님께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큰 행운이라니 무슨 말이오?"

"베디샤데바는 상인수장입니다. 상인수장의 딸 데비를 부인으로 삼으신다면 아반띠국의 모든 상인들이 부왕님께 더욱 충성할 것입니다. 데바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웃자인 성민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수장입니다."

선봉대장은 데비를 부인으로 삼는다면 아반띠국 상인들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의 말에 즉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일리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했다.〈계속〉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 · 동물 · 식물 · 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

天地大學經

눈밝은 자는 보고, 귀 열린 자는 듣고 인연자는 찾을 것이어라! 혼란과 병란 그리고 비리와 겁액으로 벼랑 끝에 몰린 혼돈 세상을 구현하는 21세기 신세계 메시지 「미륵님의 말씀,진리」를 신인류, 새시대의 구도자들에게 「천지대학경」을 밝히는 바이다. 정진하시옵사 대각 성도 하시옵길 비옵나이다.

- 金山 드림



성의금(671쪽) : **50,000원**

● 농협 : **209-02-679386** 김남식 ● 전화 : **010-2762-8235** 道政院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18 좌선



▶ 한줄 요약
참선의 방법 중 하나인 좌선은 앉은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물질을 향한 끝없는 집착과 갈망을 비워 본래 갖춰진 마음을 밝히는 것이 참선이고 좌선이다.

좌선, 모양 아니라 마음 흔들리지 않는 것

참선하면 좌선(坐禪)이 떠오른다. 좌선은 앉아서 참선하는 것이다. 고요한 산사나 선방에서 가부좌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을 참선이라 말한다. 참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참선하면 좌선을 생각하기 쉽다. 실제 사찰의 대웅전에 모셔진 불상(佛像)도 대체로 좌선한 모양이 일반적이니 그렇게 보고 말하는 것도 당연하다. 요즘 참선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좌선하지 않으면 참선하지 않는 것으로 보니 그 말이 맞다고 할 것이다.

과연 좌선만이 참선인가? 좌선이란 무엇인가?



좌선은 앉아서 참선하는 것이다. 앉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며, 좌선만이 깨달음의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육조단경〉의 좌선이란?

선종(禪宗)의 종전 〈육조단경〉에서는 '좌선(坐禪)' 을 이렇게 말한다.

"좌선이란 무엇인가? 일체 걸림이 없어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坐)이며,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 것이 선(禪)이다."

6조 혜능대사가 말한 좌선은 앉는 모양이 아니라 마음이 안과 밖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어 있음을 말한다. 우리의 상식을 여지없이 깨어 버린다. 참선하면 앉아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하는 좌선을 떠올리는 우리의 고정 관념을 부수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그러니 좌선은 앉은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어 흔들리지 않음을 말한다.

6조는 좌선을 말하고 이어서 선정을 말한다.

"무엇을 선정(禪定)이라 하는가? 밖으로 모양을 떠남이 선(禪)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定)이다. 만약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 스스로 청정하고 스스로 정하다."

6조 대사는 좌선과 선정을 같은 뜻으로 말한다. 우리는 좌선이라는 말에 집착하여 좌선을 앉아서 참선하는 것이라 오해하는데, 실제 좌선의 참 뜻은 선정으로, 밖으로 경계에 머물지 않고 안으로 안정된 삼매를 말한다.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본래 스스로 청정하고 스스로 정하다"는 말씀이다. 좌선과 선정은 본래 청정하고 정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에서 말하는 본래 청정, 본래 성불, 본래 부처라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좌선해서 선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선정이 갖춰져 있으니 오염된 번뇌망상만 비우면 본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참선을 바르게 잘 하려면 이 '좌선' 의 참 뜻을 바로 알아 정견을 갖춰야 한다.

좌선은 일상생활서 중도지혜를 밝힘

6조가 말하는 좌선은 마음이 밖으로 물질이나 모양에 집착하여 흔들리지 않고 안으로 안정됨을 말한다. 우리는 흔히 좋은 집, 좋은 차, 보물이나 많은 재산에 집착하여 밖으로 밖으로 부귀영화를 쫓고 행복을 찾는다. 현대 사회와 같은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이런 물질에 대한 욕망이 더 조장되는 시대이다. 온갖 광고가 물질에 대한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가 작동한다. 특히 근래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중생의 물욕을 그대로 보여준다.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 개발사업을 둘러싼 끝 모를 온갖 추문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얼마나 재산에 집착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기득권을 가진 권력자들과 일부 법조인들이 결탁하여 끝없이 밖으로 물욕을 추구한다. 우리 사회의 최고 지식인 집단이 보여주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망신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은 마음을 깨치고는 밖으로 물질에 집착을 멈추고 안으로는 늘 안정되어 평생 무소유로 흔들림 없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셨다. 6조 조계 혜능 대사 역시 '소욕지족(少欲知足)' 을 말씀하셨다. 적은 욕심에 만족을 알라는 것이다. 법정스님의 〈무소유(無所有)〉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도 현대인들의 물질적 소유의 끝없는 욕망이 행복의 길인지 의문을 가지고 불교의 무소유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 것이 아닐까?

6조가 말하는 좌선은 곧 바른 행복의 길을 말한다. 즉 마음 밖으로 물질과 재산을 추구하는 끝없는 욕망을 멈추고 내 마음 안에서 찾는 행복을 말한다. 이것을 비움의 행복이라 하겠다. 내 안에 물질을 향한 끝없는 집착과 갈망을 비우고 비워 본래 다 갖춰진 마음을 밝히는 것이 참선이고 좌선이다.

> **좌선의 참뜻은 '禪定'이고**
> **중도의 마음을 밝히는 것**
> **좌선 익힌 후 動中공부를**

결론적으로 참선을 좌선으로만 보는 견해가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선, 또는 앉아서 하는 좌선은 앉는 모양이 아니라 마음이 안팎으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평상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참선, 좌선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좋다-나쁘다, 많다-적다, 물질-비물질 등의 분별망상을 비우고 일상생활에서 중도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유마거사가 말하는 좌선

부처님 당시 깨달음을 인가 받은 재가 수행자로 유마 거사가 있었다. 수많은 불경 중에 〈유마경〉은 〈승만경〉과 함께 재가자의 설법을 모아 놓은 경전이다. 이 〈유마경〉에 좌선과 관련한 유명한 대목이 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사리불이 숲속에서 좌선하고 있자 유마거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

"사리불이여, 앉아 있다고 해서 좌선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좌선이란 생사 윤회하는 삼계(三界)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마음과 그 마음의 작용을 없앤 무심한 경지의 선정에서 나오지 아니하고서도 온갖 위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좌선입니다. 진리의 법을 버리지 않고서도 범부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좌선이며, 마음이 안으로 응집된 고요한 상태에도 탐닉하지 않고 밖을 향하여 혼란되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좌선하는 사람이라면 부처님께서 인가하실 것입니다."

유마거사의 이 말에 불교의 좌선에 대한 정의가 잘 정리되어 있다. 앉아서 참선한다고 다 좌선이라 할 수 없다. 〈육조단경〉과 같은 입장이다. 불교에서 좌선은 몸과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4고(四苦, 생로병사의 괴로움)와 8풍(八風, 이익과 손해, 명예와 폄훼,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의 여덟 가지 바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여한 것이 좌선이다. 부처님 당시의 유마거사나 선종의 6조 혜능대사의 법문에서도 좌선의 뜻은 하나인 것이다.

좌선에 집착함도 좌선의 효용을 부정함도 옳지 않다.

6조가 말한 좌선은 앉아서 하는 참선이 아니라는 것을 〈육조단경〉과 〈유마경〉에서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참선 수행자들은 앉아서 하는 좌선을 중시할까? 누구라도 좌선해서 물질에 집착을 떠나 마음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 시대에 마음에서 행복을 찾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니 밖으로 향하는 몸과 마음을 앉아서라도 멈추고 비우는 좌선의 방편을 통해 수련하는 것이다.

선문(禪門)에서는 초심자들이 처음 참선할 때 좌선을 통해서 공부의 힘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한다. 아무래도 선에 갓 입문하는 이들은 들뜨고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단정히 앉아서 내면을 주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좌선을 통해서 참선하는 힘을 키운 다음 움직이면서 하는 동중(動中) 공부로 나아가라 한다.

그러나 좌선을 하더라도 앉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 좌선에만 집착하거나 좌선만이 깨달음의 길이라는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앉는 것을 목적으로 앉아서 하는 좌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모양에 집착하는 것이니 중도가 아닌 양변이다. 혹여 선문에 이런 가르침을 아직도 행하고 있다면 엄중히 경책해야 한다. 화두 참선법을 제창한 대혜선사는 〈서장〉에서 "고요히 앉아서 깨달음만을 기다리는 이들을 묵조사사배(默照邪師輩)"라 하여 삿된 가르침을 베푸는 무리들이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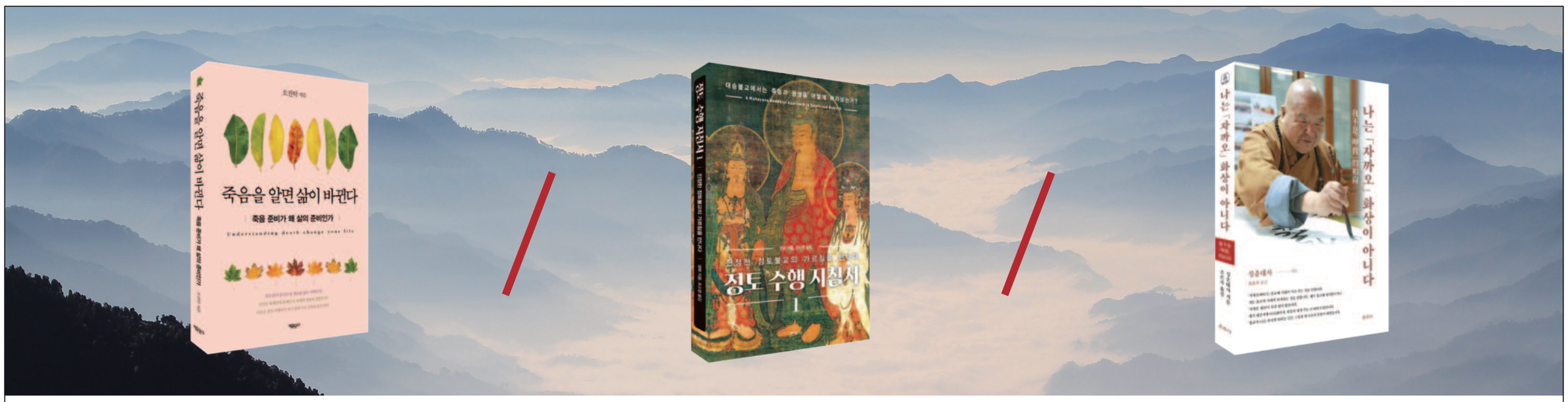
좌선에 집착하거나 좌선만이 깨달음의 길이라는 주장도 잘못된 사견이지만, 또한 선원 수행자를 향하여 "좌선병이 걸렸다"하거나 "좌선 일변도 수행만으로는 못 깨닫는다"라는 등등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도 문제다.

산중 선원에서 안거 결제 기간에 산문 출입을 금하고 오직 참선하며 깨달음으로 용맹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모욕이나 다름없다. 출가하여 바른 수행과 전법하지 않고 세속적인 명리를 추구하는 행을 비판해야지 안거 결제에 충실한 본분 수행자를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고 편향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승가 안에 스며드는 세속적인 물욕과 사치 향락행이 얼마나 많은가? 이를 떠나 안거 결제의 빛나는 수행 납자들을 격려 존중하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한국 선원에서도 좌선 위주의 안거 문화를 성찰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선원도 있다. 용문산 상원사 선원은 안거 중에 좌선 정진 외에 동중 공부를 1시간 이상 일과로 한다. 동중 공부는 도량 청소나 잡초 뽑기 등을 하면서 화두 참구를 하는 것이다. 또한 결제를 마칠 무렵에 사찰 인근의 이웃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과 위로 방문을 하여 안거 공부를 회향하는 것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앉아서 하는 좌선 위주의 참선도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부처님이 깨친 중도 정견을 갖추고 좌선과 행선을 병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리이타의 인간 완성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불교인재원 교수〉



웃으면서 떠나야 진짜 행복한 삶이다!
죽음을 알면 삶이 바뀐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죽음은 삶과 동전의 양면이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삶을 유익하게 잘 살 수 있다.
오진탁 지음/국판/376쪽/값 18,000원/자유문고

진정한 정토불교의 가르침을 만나다!
정토 수행 지침서 1
정토불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정토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왜 정토수행이 최고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영화 지음, 조소영 옮김/국판/328쪽/값 15,800원

불교에 기대지 말고 기여하라!
나는 자까오 화상이 아니다
'자까오'는 '불교에 기대어 먹고 사는' 것을 말한다.
'내가 불교에 의지하지 말고, 불교가 나에게 의지하게 하자'를 평생 지켜온 성운대사의 삶을 만날 수 있다.
성운대사 지음, 조은자 옮김/신국판/380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⑱ 라훌라 출생과 위기의 야수다라



▶ 한줄요약
싯달타 태자가 출가한지 6년째 되는 해에 아들 라훌라가 출생한다. 아버지 없이 나온 왕자이기에 석가족은 크게 노하고 야수다라와 라훌라를 죽이려 한다. 이에 야수다라는 스스로 왕자와 함께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스스로 결백을 증명한다.

"내가 정당하다면 하늘이 증명하리라"



그림 · 강병호

이번 연재부터는 터키에서 쓰게 되었다. 이슬람 국가에서 쓰는 불교 이야기라니 멋지지 않은가. 터키에서 한국학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국립 에르지예스대 한국어문학과에 오니 박사 연구원들이 불교에 관심이 많다고 직접 찾아와 이야기한다. 이슬람 사회에서 미래 불교학자가 탄생할까. 마침 석가모니의 아들 라훌라 출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6이라는 숫자가 의미심장하다. 불교에서 6이라는 숫자는 '6년 고행', '육도(六道)윤회', '육바라밀'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6년의 의미는 태자의 출가에 맞춰 아들 라훌라가 그 6년 뒤 출생이 전생의 6리와 6일의 인연담으로 이어진다. 신기하게 내가 근무하는 터키 대학의 대표 전화번호 뒷자리가 '6666'이다. 21세기에 이슬람의 나라에서 불교와의 만남이 6이라는 반연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새로운 라훌라가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이야기는 싯달타 태자가 출가한 지 여섯 해가 지난 뒤 아내 구이가 갑자기 아들을 낳는 사건으로 시작한다. 무슨 연유인지 〈석보상절〉 3권 36장부터 '구이'는 '야수다라'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물론 〈월인천강지곡〉에서는 간간이 야수(다라)라고 씌어져 왔다. 아마도 저본으로 참조한 경전 〈잡보장경〉 등의 영향일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구이'는 석가모니 부처의 전생인 '선혜보살' 당시 세세생생 배우자가 되기로 약속한 야수다라 전생의 이름이므로 동일인이라 할 수 있다. 이쯤에서 바로 잡기로 했는지도 모르겠다.

라훌라의 출생

태자가 출가하신지 여섯 해째에 야수다라가 아들을 낳으셨다. 태자가 출가하신 해 말고 여섯 해이니 부처의 나이 스물 다섯이다. 주나라 소왕 50년(B.C.946) 무인이다. 야수다라는 꽃빛이라 하는 말이니 구이를 말한다. 이 아들이 그 라후라이니 다르게 말해 라운이라고도 한다,

석가씨 종족들이 노하여 죽이려 하였다.

야수가 불피운 구덩이 앞에서 맹세하시되 '내가 잘못했으면 아기와 내가 함께 죽고 옳다면 하늘이 증명(本證)을 하시리라'하시고 아기 안고 뛰어드시니 그 구덩이(교窖)가 연못이 되고 연꽃이 몸을 받거늘 왕이며 나라의 사람이 그제서야 의심을 하지 않았다.

사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태자가 출가할 때(〈월인천강지곡〉 46장) 이미 출가 이후 여섯 해째 아들을 낳으리라 예언을 한 바 있다. 그리하였어도 가비라국에서 그 말을 귀담아 듣거나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부처의 나이 스물 다섯이라고 한 건 지난 17번 째 이야기에서 29세에 출가했다는 이야기와 맞지 않는다. 이 또한 19세 출가설의 경전을 참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석가모니가 35세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고 있다. 〈석보상절〉의 치밀한 구성에 비하여 이 장에서는 구이가 야수로 바뀌고 19세 출가설이 서술되는 등 파격이 많은 장이다. 그래서 오히려 연구자에게는 연구할 아이템이 많은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이라 할 수 있다. 주나라 소왕도 재위 24년 B.C977년에 죽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재위 50년으로 나오고 있다.

어쨌든 태자 출가한 지 6년이란 세월이 지나 야수다라가 갑자기 아이를 낳은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왕손을 보게 된 할아버지 정반왕은 그야말로 오매불망 바라마지 않은 일이었으나 아비 없이 태어난 손자라니…. 이제 석가씨들은 이 모자를 죽이려고 덤벼든다.

하필 이 차제에 야수다라의 의미가 '꽃빛'이며 구이와 동일인이라고 밝힌다. 〈월인석보〉권1에서는 구이의 의미를 '구이'가 밝은 여자라고 풀이하였다. 구이가 태어나실 때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 집만 광명이 비쳐서 그렇게 이름지었다는 것이다. 꽃답고 환히 밝은 우리의 야수다라이자 구이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렸다. 라후라의 이름도 '잘못 말해' '라운'이라고도 한다고 본문에 주석을 달았는 데 문맥상 '다르게 말해'라고 풀이하였다.

야수다라의 범상치 않음은 앞의 이야기에서 익히 보아왔다. 싯달타와 여러 훤훤장부들과의 경쟁에서 결혼을 위해 싯달타에게 자신은 보배가 아닌 공덕으로 장엄한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태자의 출가 사실을 안 후 격렬하게 고통을 표현하는 장면 등이 그것이다.

이제 그토록 원했던 후사를 이을 아들을 낳았는데 죽이려고 달려드는 왕실과 친척들의 의심을 받자 그는 보란 듯이 불구덩이에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뛰어든다. '내가 정정당당하지 않게 아들을 낳았다면 벌을 받아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늘이 증명하리로다' 하고 일갈한 후에 말이다. 그야말로 백척간두 진일보이다.

> 태자 출가 후 6년뒤에 라훌라 탄생
> 뒤늦은 출생은 라훌라 전생의 업보
> 석가족, 아버지없는 왕자에게 노해
> 야수라다, 불에 뛰어들어 결백증명

과연 모자가 뛰어든 불구덩이는 물이 가득한 연못으로 변하여 연꽃이 그들을 받치니 그제서야 그 왕과 나라 사람들이 이 신이한 일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다.

6년 후에 태어난 이유

6년이란 지체가 다 원인이 있었다. 〈월인천강지곡〉은 늦게 태어난 이유를 함축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그 가사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석보상절〉의 서사를 읽고서야 노래가 이해되는 것이다. 불교 게송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월인천강지곡〉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월인천강지곡 오십구장

야수(구이)가 전세(前世)에 용변 보기를 핑계로 6리(六里)를 뒤처지시므로 6년을 태자 못 낳으시니

라운(라훌라)이 전세에 6일 동안 죄인 가둔 것을 잊으셨으므로 6년을 못 태어나시니

이 내용도 문맥을 보충해서 쓴 게 이 정도이다. 실제 석보상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운이 전생에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도사가 조그만 죄를 짓거늘 그 왕이 동산에 들어오게 하여 잠깐 가두라고 하고는 잊어버리고 엿새를 가두었다. 그 인연으로 이 생에 태어날 때 여섯 해를 나오지 못하였다.

야수는 전생에 어머니와 함께 가다가 길이 멀어 벅차 뒤보는 일을 핑계 삼아 자기 짐을 어머니께 맡기고 일부러 떨어져 6리를 가시니 그 인연으로 여섯 해를 잉태하여 낳지 못하였다.

라훌라(라운)가 전생에 어느 나라 왕이었을 때 한 도사(수행자)를 잠시 가둔다는 게 엿새나 가둔 과보로 6년을 뒤늦게 태어났다는 발상이 흥미롭다. 엿새가 여섯 해가 되는 계산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오는 숫자인가. 야수는 한 술 더 뜬다. 전생에 엄마와 짐을 들고 길을 가다가 너무 멀어 가기가 벅차 잠시 용변을 본다는 핑계로 짐을 맡겨 6리를 뒤처졌다고 한다. 그렇다고 6년 동안이나 출산이 지체되다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와 함께 가는 길에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꾀 좀 부렸다고 6리를 6년으로 환산하는 셈법이라니…. 그래서 〈불본행집경〉을 찾아보았더니 딸의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더 크고 무거운 짐을 들려 걷게 하였다는 반전 스토리가 실려있다. 라훌라의 경우에도 한 수행자가 남의 물을 허락없이 마시고 작은 잘못도 잘못이라고 스스로 벌해 달라고 하였는데 엿새나 가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실 이것은 치명적인 딸의 실수이거나 수행자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귀엽게 봐 줄만한 일상의 에피소드들 아닌가.

살아오는 동안 고의든 실수든 남에게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많으랴. 이걸 다 따져서 다음 생에 몇 년이나 일이 안 풀릴거라 생각하면 아뜩하지 않은가. 어느 때는 한없이 자비롭다가 어느 때는 가혹하다 싶을 만한 전생담에 고개가 갸웃해진다.

육십장

라운이 태어나시거늘 구덩이 파고 불 피우니 임금과 신하가 의심하신 것이니

야수가 들어가시니 구덩이에 물이 차고 연꽃이 피니 임금과 신하가 의심 아니 하시니

〈월인천강지곡〉은 다시 이렇게 노래한다. 어렵사리 라훌라가 태어났지만 왕실과 나랏 사람들은 야수다라를 의심하고 부정하게 아이를 낳았다고 불구덩이를 만들어 모자를 죽이려 한다. 야수다라는 결백하기에 스스로 뛰어든다. 저 불이 물이 되고 연꽃이 피어 모자를 사뿐히 받아 줄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야수다라의 위풍당당함은 이러한 점에서 싯달타 태자 못지않다. 게다가 혼자 몸도 아니고 갓 태어난 자기 목숨보다 귀한 왕자를 안고 말이다.

돌이켜보면 각자의 인생에서도 이제 와 생각하니 불구덩이에 뛰어들던 시절이 있으리라. 처음엔 그것이 불구덩이가 아니라 극락이라 생각하고 뛰어들었건, 정말 연꽃 가득한 연못이었는데 차츰 말라 지옥 같은 불구덩이가 되었건 우리에게도 그런 선택의 시간은 한 두번쯤 있기 마련이다.

문득 야수다라의 화려한 결혼과 원치 않는 별거, 지체된 출산이라는 이 일련의 스토리텔링이 어쩌면 그에게는 결혼 자체가 아름다운 허상에 불과한 불구덩이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혼과 비혼이 많아지는 이즈음, 이 선택이 과연 연꽃 핀 연못일까 가늠해본다. 아닐 것이다. 불구덩이와 연못은 사실 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불구덩이가 되기도 하고 연꽃 핀 연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석보상절〉의 이야기가 21세기에도 울림이 있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최재희의 인물로 본 미얀마 ⑩ 저윈테 재한미얀마학생연합회장



▶ 한줄 요약
한국의 대기업에서 12년을 근무했지만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그는 명상을 통해 우울한 마음에 깊게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동시에 본국을 위해 미얀마 유학생들을 이끌고 있다.

대기업 과장서 재한미얀마학생聯 지도자로

최근 '오징어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제 각기 기구한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금전적인 큰 빚을 져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게임의 초대장이 발송된다. 몇 십억이 넘는 큰 빚을 갚지 못 할 것이라는 불안감, 사회에서 다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 악덕 업주를 만나 고향인 파키스탄에 돈이 없어 돌아가지 못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들을 게임으로 이끌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우리 삶에서 불안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다.

누구나 한 번쯤 불안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엉뚱한 선택을 했던 경험이 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우리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불안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심해지면 이유 없이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있다. 스무 살 초반 극단적인 다이어트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증가'라는 불안감을 겪었던 시절이 있다.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108배를 100일 동안 꾸준히 한 적도 있다. 절과 사경을 통해 불안함을 알아차리고 안심(安心)을 되찾은 후 부처님 법에 정말 감사함을 느꼈다. 이번 연재를 하면서 주변의 미얀마 사람들에게 '불교를 믿어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했다. 그 때마다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공통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미얀마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명상이다. 호흡에 집중하며 과거와 미래에 갔던 혼란스러운 마음을 현재로 되돌려 편안한 마음을 느낀다. 이러한 명상을 일상생활 속에서 늘 수행하며 혼란스러운 미얀마 정세를 위해 한국에서 헌신하고 있는 재한미얀마학생연합회 저윈테 회장을 이번 연재를 위해 만났다. 그의 이력을 들으면서 가장 놀란 것은 한국 사람들도 입사하기 어려운 신세계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한 점이다. 2008년에 입사해 2020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명예퇴직을 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그는 학생도 아닌데,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 무보수로 재한미얀마학생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쿠데타 반대 시위와 학생들을 돕기 위해 사방팔방 자신의 사비를 들여 활동하는 그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다. 특히 자신의 삶은 불교가 전부라는 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정말 불교는 그들의 전부이자 보물과도 같이 소중한 가치이다. 미얀마에서 2007년 샤프론 혁명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시위에 함께 동참했던 그에게 현재 미얀마 쿠데타 상황은 과거의 데칼코마니와도 같다. 한국에서는 샤프론 혁명 때와는 달리 미얀마 승가 전체가 군부편에 선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들은 미얀마 내부 현지 승가 상황은 달랐다.



한국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중인 저윈테 재한미얀마학생연합회장.


전국비구니회가 주관한 미얀마 민주화 기원법회에도 참석했다.

"군부 편으로 돌아선 일부 승가의 행동이 미얀마 승가 전체로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군부 편에서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스님들은 소수입니다.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와 반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미얀마 전국민의 안전 또한 기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많은 스님들이 군부에 구속되었습니다."

불교가 그와 미얀마 사람들에게 있어 삶의 시작이자 마지막을 함께 하지만 반드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불교적 가치관이 현대 미얀마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간혹 이러한 불교적 가치관이 빠른 현대 사회의 흐름의 유입을 막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다며 그는 부처님께서 설한 중도(中道)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은 중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도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 너무 느슨하게도 살지 말고, 너무 타이트하게도 살지 말고, 중도의 길을 따르라는 부처님 말씀을 가장 좋아하지만, 실천은 늘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동자승 출가와 같이 미얀마에서도 신뿌의식이 있다. 그에게 솔직하게 신뿌의식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고 물어봤는데 매우 솔직한 대답이 돌아왔다. "저도 불자라 어렸을 때 신뿌의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릴 때 한 거라 저녁을 못 먹어 힘들었다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남자들은 어릴 때 신뿌의식을 하고나서 성인이 된 다음에 야한칸의식(7일~60일동안 부처님께서 수행한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더 엄격한 수행)을 다시 합니다. 미얀마에 다시 가게 되면 꼭 야한칸 의식을 할 계획입니다."

> 한국 대기업서 12년간 근무
> 코로나 여파로 퇴직한 이후
> 미얀마 학생들 이끌며 활동
> 어려움·고통, 명상으로 극복



저윈테씨는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는 출가를 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파격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인다. 단기 출가를 하는 일도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미얀마 사람들처럼 부처님의 삶을 인생에 있어서 잠시라도 살아보는 일이 모두에게 찬탄 받는 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얀마를 생각하면 빠질 수 없는 키워드에 '불교' '명상' 그리고 '아웅산수찌' 국가고문이 있다. 그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꼭 등장했다.

"미얀마의 존경하는 고대 왕과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분은 아웅산수찌 국가고문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그리고 가족, 심지어 본인의 자유 혹은 목숨까지 받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통해 미얀마 국민들의 아웅산수찌 국가고문을 향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그녀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현재 미얀마 쿠데타 상황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이 함께 저항할 수 있는 힘의 근원에는 아웅산수찌가 있는 점은 확실하다.

한국 불자들에게 미얀마 불교에 대해 어떤 점을 알리고 싶냐는 질문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한국 사람들은 불교라고 하면 다 같은 불교인줄 알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동남아 쪽의 상좌부 불교권과 동북아시아(한국,일본,중국)의 대승불교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불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의 말에 한 가지 일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미얀마에서는 스님들이 주최하는 행사를 하면 절에서 숙소, 식사등 모든 것을 제공해준다. 불자들은 승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신행생활을 하던 미얀마 불자들이 한국에 오면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 아세안 불자들의 참석이 필요한 행사가 지방에서 열린 적이 있다. 아침 일찍 차로 대여섯시간을 달려 가야하는 먼 거리여서 하루 전날 주최하는 절이나 절 근처에서 잘 수 없냐는 요청을 했지만, 주최하는 측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잘 수가 없다고 했다. 이러한 사소한 점에서부터 미얀마 불자들은 미얀마 불교 문화와 한국 불교 문화의 다른 점을 느껴서 혼란스러워 하는 점을 본적이 있다.

대승 불교권인 우리는 간혹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이야기 하지만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불교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 얼마나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뜨끔한 그의 대답이었다. 한국사람보다 더 한국사람다운 그는 올해 민주평통 외국인스피치 대회에서 남북한의 통일과 미얀마의 현실에 대한 스피치를 해서 1위를 한 경험도 있다.

"미얀마의 평화가 중요한 만큼 남북한의 평화 통일도 중요합니다. 미얀마와 한반도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가 모든 평화의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기업에서 12년을 근무하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지만 그는 명상을 통해 우울한 마음에 깊게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어려운 조국의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미얀마 유학생들을 대표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그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길 바란다. 〈양곤대 박사과정〉

해양심층수 100%
해양 高 미네랄
MQ 눈소금

瞬間空中結晶製鹽技術
동해바다 수심 605m
청정 해양심층수를 길어 올려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로
찰라의 순간에 수분을 증발
소금을 공중에서 눈처럼 내려
쌓이게 하는 첨단기술로 만든
깨끗한 미네랄 엠큐눈소금






深層水의 미네랄을 가득담은
기적의 소금
(순간공중결정제염)


엠큐 눈소금의 특징
- 해양심층수 100%로 만들어진 해양미네랄 100% 소금입니다.
- 청정 해양심층수를 마이크로필터로 걸러서 만들어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확인 소금입니다.
- 골다공증 예방,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칼슘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 신경전달의 핵심 미네랄인 마그네슘,칼륨,칼슘,나트륨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화와 영양흡수를 돕는 나트륨, 염소 성분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십가지 미네랄이 미네랄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건강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나트륨 성분의 체내 배출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나트륨 축적의 위험성이 없는 소금입니다.

※500ml 생수에 소금3g을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구분	일반정제염	엠큐눈소금 (100g 당)	차이점
염화나트륨	99.52%	75.39%	24.13% 낮음
나트륨	38.99g	29.64g	9.35g 적음
마그네슘	10mg	3,893mg	389배 많음
칼슘	30mg	988mg	32배 많음
칼륨	20mg	992mg	49배 많음
기타	표층수	해양심층수	

■ 자료 출처 명기
나트륨배출 촉진 : 출처 : KBS 생로병사의 비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출처 : 한국 분석과학연구소
소금성분 출처 :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수상 경력
- 2019년 9월 대평남종현 발명문화상 수상
- 2019년 10월 GTI국제투자무역박람회 금상 수상
- 2020년 6월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수상
- 2021년 7월 2021년 대한민국을 이끈 혁신리더 50인에 선정

특허
- 10-1844017 : 해수에서 미네랄 분리추출
- 10-0885175 : 미네랄 워터와 미네랄 소금 제조기술
- 10-1681672 : 나무의 유용물질 함유 미네랄 소금제조기술
- 10-0548295 : 미네랄 해수소금제조장치 및 방법



3g 스틱(60포)
건강용 제품 (3g 한 포 500ml 에 타 드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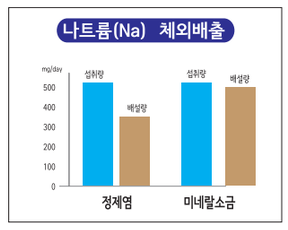


엠큐눈소금 W 스틱 엠큐눈소금 W 굵은소금 1병
고운소금 1병으로 구성 건강고급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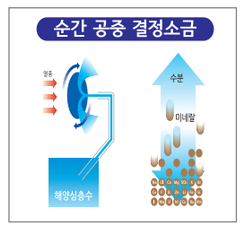


고운 소금 2병 굵은소금 1병으로 구성된 세트제품 요리등에 적합


미세플라스틱불검출 인증



나트륨배출 촉진확인



최첨단 특허제조기술

문의 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전 제품 롯데택배 무료배송 (도서산간, 오지 등 일부지역은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전 중의 으뜸 법화경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㊱ 대승종극지설(大乘終極之說)

부처님이 수왕화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약왕보살이었느니라. 이처럼 몸을 버려서 보시한 것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수 시간 동안이었느니라. 수왕화보살이여, 만약 발심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으려는 사람은 능히 한 손가락이나 한 발가락을 태워서 부처님 탑에 공양하면, 나라나 도시나 처자나 삼천대천세계의 토지와 산림과 하천, 온갖 진기한 보물로 공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七寶)로 부처님과 대보살과 벽지불·아라한들에게 공양한다 하여도 그의 얻는 공덕은 〈법화경〉을 받아 지녀 사구게송(四句偈頌) 하나를 지니는 것만 못하니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공덕이 가장 크니라. 수왕화보살이여, 마치 모든 시내나 개천, 강 등의 물 가운데서 바닷물이 으뜸이듯이 이 〈법화경〉도 모든 여래가 설하신 경 가운데서 가장 깊고 가장 크니라.

또 토산(土山), 흑산(黑山), 소철위산(小鐵圍山), 대철위산(大鐵圍山)과 십보산(十寶山) 등 여러 산 중에 수미산이 단연 으뜸이듯이 이 〈법화경〉이 모든 경전 가운데서 으뜸이니라. 또 뭇 별 가운데 달이 가장 으뜸이듯이 이 〈법화경〉이 천만억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밝게 비추느니라.

또 해가 모든 어둠을 몰아내듯이 이 경도 능히 온갖 악의 어둠을 깨뜨리느니라. 또 여러 왕 가운데서 전륜성왕이 가장 으뜸이듯이 이 경이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존귀하니라. 또 제석천왕이 삼십삼천 가운데 왕이듯이 이 경도 모든 경 가운데 왕이 되는 경이니라. 또 대범천왕이 모든 중생의 아버지이듯이 이 경도 모든 현인·성인·학·무학과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들의 아버지이니라. 또 모든 범부들 가운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벽지불이 으뜸이듯이 이 경도 모든 여래가 설하고, 또는 보살이나 성문이 설한 모든 경법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느니라. 또 이 경전을 능히 받아 지니는 사람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 가운데 으뜸이 되느니라. 모든 성문과 벽지불 가운데서 보살이 단연 으뜸 되나니,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경법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느니라. 부처님이 모든 법의 왕이듯이 이 경도 또한 그러하여 모든 경 가운데 왕이 되느니라."

이 장(章)에 와서는 소신공양 찬탄에 이어 부처님이 수왕화보살에게 〈법화경〉의 공덕과 그 우수성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하고 있다. 경전 속의 본문에서 그 경전의 탁월한 가치성을 이렇게 강조하며 설해 놓은 예가 〈법화경〉을 빼고는 없다. 온갖 것을 비유하는 예를 들었지만, 결론은 〈법화경〉이 '경전 중의 왕'이라고 하였다. 〈법화경〉을 대승종극지설(大乘終極之說)이라 한다. 대승의 법문을 마지막으로 모두 설해 마친 지극한 법문이라는 말이다. 보통 삼승(三乘)을 회통하여 일승(一乘)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뜻에서 회삼귀일(會三歸一)로 〈법화경〉의 성격을 규정하나 법화사상 완성자 천태 지의(天台智顗, 538~597)가 말한 대로 〈열반경〉과 더불어 부처님 일대시교 중 최후의 설법이다. 그러므로 종극(終極)의 설법이 되어 〈법화경〉 이상의 설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화경〉을 근본으로 한 천태종의 지의나 〈화엄경〉을 근본으로 한 화엄종의 현수(賢首)는 다 같이 일대시교를 오시(五時)로 교상판석을 하였다. 이에 의하면 〈법화경〉은 대승교법의 종착역인 종교(終敎)이다. 화엄종에서는 〈화엄경〉을 원교(圓敎)라 하여 최상의 설법으로 여기고,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일승교(一乘敎)라 하여 최상의 설법으로 여긴다. 보통 경전을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으로 나누지만 현수는 대승경전도 시교(始敎), 종교(終敎), 돈교(頓敎), 원교(圓敎)로 나눴고, 천태는 일대시교 전체를 경명으로 전후의 설시를 구분해 49년 설을 내세워 아함 12년, 방등 8년, 반야 21년, 법화 8년으로 햇수를 밝혀 판석(判釋)하기도 했다. 〈화엄경〉은 최초의 설법이라 하여 〈화엄경〉을 설한 때를 〈아함경〉 설한 때에 넣었다. 결국 〈법화경〉 중심으로 보면 소승(小乘), 대승(大乘), 그리고 일승(一乘)의 셋으로 나누어진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중국적 계율의 출현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㊱ 청규(淸規)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서력(西曆) 기원을 전후한 무렵으로 보고 있다. 불교는 중국의 사상이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이었지만, 점차 중국인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변하면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계율도 마찬가지여서 중국이라는 새로운 문화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중국적인 계율'이 출현하게 된다. 특히 출가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율(律)은 중국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차츰 변하게 된다.

중국의 출가 교단에서는 일찍부터 생활규범으로서 일정한 형태를 정비했던 승제(僧制)가 존재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도안(道安)의 '승니궤범불법헌장삼례(僧尼軌範佛法憲章三例)'를 꼽을 수 있다. 다수의 수행자가 공동생활을 하거나 새로 출가한 이가 공동생활에 합류할 적에 모두가 지켜야 할 생활규범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안의 승제만으로는 변화하는 시대나 사회환경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규범집이 등장하게 된다.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규범집으로 '청규(淸規)'를 꼽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선종 교단인 총림(叢林)에서 지켜야 할 생활규범이 망라되어 있다. 최초의 청규는 당나라 중기에 백장산(百丈山)의 회해(懷海) 선사가 제정한 〈백장청규(百丈淸規)〉이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이 청규는 고청규(古淸規)라고도 불리는데, 814년에 제정되었다고 한다. 현존하는 〈백장청규〉는 원대(元代)에 성립한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인데, 당대(唐代)의 〈백장청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청규는 1103년에 자각(自覺) 종색(宗賾) 선사가 지은 〈선원청규(禪苑淸規)〉이다. 그는 회해 선사의 〈백장청규〉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5년 동안 각지의 총림을 방문해서 여러 생활규범을 살펴본 후에 그것을 총망라한 청규를 찬술했다.

종색 선사가 〈선원청규〉를 찬술했던 북송(北宋) 시대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었으며, 당시 불교의 주류였던 선종 교단의 규모는 제법 큰 편이었다. 이에 따라 총림의 운영도 기구의 설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총림의 운영은 주지(住持)를 중심으로 하여 각기 역할을 달리하는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직역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동반은 사원의 경영을 주로 담당했으며, 사지사(四知事)로 불리는 감원(監院), 유나(維那), 전좌(典座), 직세(直歲) 등으로 구성되었다. 서반은 주로 선승의 수행과 교육을 담당했으며, 육두수(六頭首)로 불리는 수좌(首座), 서기(書記), 장주(藏主), 지객(知客), 욕주(浴主), 고두(庫頭)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외에 장원(莊園)의 관리와 수세를 담당하는 장주(莊主), 시장과 거리에서 권화(勸化)하여 단월(檀越)을 획득하는 화주(化主)도 있었다. 일본의 불교학자인 이부키 아츠시(伊吹敦)는 장주와 화주와 같은 직역들이 나타나는 것은 선종 사원의 경제가 자급자족적인 것에서 장원 경영과 단월에 의존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런 변화는 자급자족만으로는 총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겨났을 것이다.

총림의 기구가 다양한 직역들에 의해 고정됨에 따라 수행생활도 정비되어갔다. 5일마다 상당(上堂)이 행해지고, 3과 8로 끝나는 날(3, 8, 13, 18, 23, 28일)에는 만참(晩參)이 행해지는 등 매일매일의 생활도 정형화되어 갔다. 축성(祝聖)과 삼불기(三佛忌)인 불강탄회(佛降誕會), 불성도회(佛成道會), 불열반회(佛涅槃會) 등의 연중행사도 점차 고정화되어 갔고, 각종 의식과 의례도 자세히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승려들의 일상생활도 차츰 형식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⑫ 끝없이 이어지는 업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업보'

잘못된 세 가지 세계관

불자 여러분! 오늘날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세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모두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하여 결정되어 졌다고 판단하는 숙명론(宿命論)적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이 세상은 모두 하느님이나 자재천과 같은 절대적 창조신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운명의 결정권은 창조신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존우론(尊佑論)적 견해 즉 천지 창조론적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업에(業)에 대한 인과(因果)를 믿지 않고, 모든 것은 그저 우연하게 이루진다고 판단하는 무인(無因)·무연(無緣)의 우연론적 견해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견해들은 모두가 잘못된 견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그릇된 견해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그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숙명의 소작이며, 존우의 화작이며, 우연히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살생자가 되고, 주지 않는 것을 훔치며[盜],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하며,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 되는 어떠한 일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는 다 숙명의 소작이며, 존우의 화작이며, 우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처럼 세 가지 잘못된 견해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고, 연기법의 인과(因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사견들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과법칙을 말씀하셨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인과법칙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과법칙이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중아함경〉 제3권 '업상응품(業相應品)'에서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若有故作業 我說彼必受其報)"고 설한 것처럼 우리가 지은 선악의 업은 반드시 성숙하게 되어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 오곡의 씨앗을 뿌려 놓으면 그 오곡의 씨앗은 그 종자에 따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업보는 한 치의 오차가 없다

불자 여러분! 업보(業報)에는 한 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를 '선인선과(善人善果) 악인악과(惡人惡果)'의 인과응보(因果應報)라고 합니다.

〈증일아함경〉 권 제51 '대애도반열반분품'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개 사람은 그 행을 닦을 때 악도 행하고 또 선도 행하지만 그들은 제각기 그 과보를 받나니 그 행은 끝내 멸하지 않느니라. 사람들이 만일 그 행을 찾아보면 그 과보를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나니, 선을 행하면 선의 과보를 받고 악을 지으면 악의 과보를 받는다.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그 사람이 익힌 대로 따르나니 마치 오곡(五穀)의 종자를 심어 제각기 그 열매 거두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의 과보는 엄청난 것이어서 한 치의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과율(因果律)이라고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하늘 위도 아니요, 바다 속도 아니며, 산속의 동굴도 아니요, 그 어느 곳도 아니다. 악행의 결과를 피할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설한 것처럼, 한 번 지은 업은 끝내 멸하지 않으며 그 과보는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업은 많이 지을수록 삶이 구속되고 괴로워지며, 선업은 쌓을수록 삶이 자유로우며 행복해집니다.

결국 자신을 구속하는 것도,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모두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www.garden-heating.com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육각초
연꽃칠성촛대
침향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연꽃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58호 | 17 | 전면광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업을 따라 살아간다.
좋은 씨앗을 뿌렸든 나쁜 씨앗을 뿌렸든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본생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취득 동참 안내

◆ 포교사, 전문포교사 ◆ 법사, 전문법사
◆ 법계분야 – 대종(선)사, 대사, 종사, 율사, 종무사, 종신사, 종학사, 교학사
◆ 포교계위, 법사법위, 종법성위증 부여
◆ 제출된 서류로 평가심사 취득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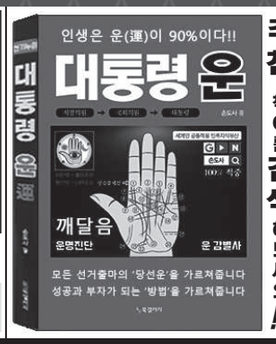
교육부 상학인가 만대 불교학대학원
한국불교수행자연합회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010-5412-8040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보시금 35만원
010-2204-8375

❋❋❋ 단청, 탱화, 개금 ❋❋❋

사찰신축, 보수, 기와
화공기능보유자
010-9387-1518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수강생 모집

명리학기초부터 길흉판단 · 작명 단시일내
* 삼송정사 *
010-9323-5693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8352-6042

• • •

서울에 있는 사찰입니다.
인연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5세 이하
• • •
010-8721-2198

鬼門秘法傳修院

공익법인 민불종 예불의궤가 왜? 火天大有 ☲ 인가?
해득인, 장애스님 무료 Daim 역학대통령 ▼ 최다목록
문의전화 02-907-5858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모든 이를 마음대로

특수기도법을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 스님 무속인 환영 · 성실지도 ◈
문의전화 010-6284-617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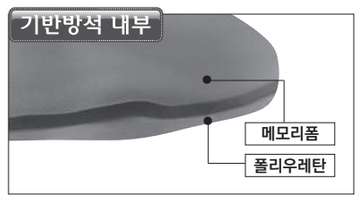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기반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58호 | 18 | 전면광고

여러 하늘의 음식과 복이 언제나 변동함이 없게 하고 세상 사람의 수명이 언제나 존재될 수 있게 하며 출입이 자재할 수 있게 하여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부지 : 3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협의

◎위치 : 경기
◎부지 : 150평
◎건평 : 120평
◎신도시중심
◎매가 : 9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 5천그루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양산사찰(급)안내

●종교용지, 대지218평
●건평 : 1층요사42평, 2층대웅전 26평, 실사용500평, 시유지포함
●산신각, 심야전기, 지하석수1일150톤이상, 양산시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포함, 현재성업중공원 묘지부근
●건강상 싯가이하로8억5천에 양도함
●가격 : 절충

010-6425-8274

기도 도량 안내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가액 : 4억(협의가능)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사찰(급)안내

●위치 : 부산 동래구
●부지 : 1천평(또는 4백평)
●가액 : 상담(방문)후 결정
●부산 최고 명당자리
●전시컨벤션 ●복지시설

010-2822-1080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위치 : 감곡kt에서7분거리
●대지 계획관리 550평 요양원 및 별장으로 공사했습니다
●사찰, 요양원, 최고급 펜션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010-5883-2255

포교당안내

●위치 : 서울 연신내 지하철 옆
●약 10평, 반지층, 임법당
●방2개, 거실1
●법당(시설 일체) 인수 가능한 분, 절충가능
●보 500만, 월 50만
●개인사정으로 양도함

010-5399-1225

사 찰 안 내

●울산
●대지 149평
●대웅전 1동 20평
●요사채 17평, 요사채 10평
●도시가스
●가액 : 6억 5천만원

010-3811-5466
010-3576-2015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건평 7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시설완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9015-4040
010-2077-7820

토 굴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 강남권 45분
●스님토굴, 전원주택형 수익성 양호
●대지 210평, 건평 40평
●긴 복도형, 지열, 난방비 최소, 3백년 느티나무, 불자
●가격협의

010-6285-3703

별장토굴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대지면적 약 전체 2800평
●정리된(벌목) 임야 약 2천평 (지목 대지 포함)계곡접하고 있음, 국유지 300만평 접함
●건 물 : 없음
●가 액 : 6천만원

010-4124-7788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부지102평, 구조 2층 법당 15평, 생활관 1층 33평, 화장실2평
●가액 : 1억

010-4156-3779

포교원할분

●위치 : 서울 강서구 소재 시장옆 25평, 2층 남향
●보 500만, 월 50만
●사찰매매, 부전, 공양주 일할분 쓸분
●결혼정보 상신입니다. 서울 명동 소재
●결혼할분 상담하세요.

010-5381-1419

포교원안내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1층 : 35평
●법당, 방1, 공양실
●보 1천만원 / 월 60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59-9477
010-8752-9477

토 굴 안 내

●위치 : 충남 청양 IC인접 대전3~40분 공주부여 1~20분
●토지 : 대+전 약3백평 (문중소유 사용승락필)
●건물 : 약20평, 방사2, 해우소, 주방, 창고, (황토리모델링) 컨테이너1동
●가액(건물만) : 2천5백, 전세도가능

010-3977-2123

토 지 안 내

●위치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300평, 836번지 130평 총 430평(샘물나옴)
●포크레인 작업 완료(3년전)
●암자, 산소, 별장(자리적당)
●급양도 3천7백5십만원

010-7628-9997

불자공인중개사안내

●사찰, 암자, 터, 양도양수 경력많음
●신도 많은 경남·북지역 정보(거래)많음
●일처리가 원만하고 비밀엄수
●성심성의껏 상담합니다

불자업소 공신공인중개사

010-4857-0027

포교원안내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건평 : 60평
●11년차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가액 : 절충

010-3714-1018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합천군, 무학대사 수행동굴 있는곳
●대지 410평, 임야220평 임법당 13평, 요사채 52평
●가액 : 3억5천만원

010-2078-9595

포교당안내

●마산 포교당 22평
●롯데백화점 이면도로 앞, 위치 최상
●보300만, 월30만
●1천만원(시설)
●몸만 오시면 됨

010-7169-9878

토 굴 안 내

●위치 : 계룡산 자락 작은토굴황토집
●건평 : 18평
●땅은 종중땅, 앞마당 매실, 감나무, 장독대
●가액 : 1800만원

010-3549-3570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가액 : 11억

010-4547-0023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허공장원



허공장원은 서방(西方) 제2중에 있으며 지명원 아래쪽에 위치한다. 본원의 주존(主尊)은 중앙의 허공장보살로서 좌, 우에 27존이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좌측의 천수천안관자재보살과 우측에 백팔비금강장왕보살을 배치하고 10바라밀보살의 10과와 9존의 보살과 4인의 비천, 2인의 권속들이 배치하여 총 28존으로 배치하고 있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⑰ 김광호 · 이상미 부부

진심 담긴 책으로 장애불자들과 교감

장애인을 존중해준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해야 한다고 말은 하기 쉽지만 어려운 일이다. 장애별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당사자의 생각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도 하다.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 없이 일상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해주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 대표적인 예를 찾으라 하면 불교 전문 출판사인 도서출판 도반의 대표 김광호 이상미 부부라 말하고 싶다. 서울 방화동 개화사에서 만난 인연으로 알게 된 두 사람은 보리수아래 장애 작가들의 작품집을 내주고 있고 활동영상 촬영, 피아니스트인 아들의 공연 동참 등을 온 가족이 자원봉사를 하며 신행 생활을 함께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성수동 S팩토리에서 서울 국제도서전이 열렸다. 100여 개의 국내 출판사들이 참가해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책전시로 성황을 이루었다. 도서출판 도반의 저자로 보리수아래 장애작가들도 책 문화프로그램 "문학과 장애를 주제로 한 유튜브 토론"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작가들의 날을 하루 정해 현장에서 독자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자리도 마련했었다. 많은 작가를 뒤로 두고 장애작가들을 먼저 배려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참 고마운 일이다.

부부가 한마음 한 몸같이 사람들의 관심이 장애 작가들에게 모이도록 작품집과 작가에 대해 설명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누가 시켜서 될 일은 아니구나 하는 감탄사가 나왔다.

김광호 대표는 "책을 만드는 것은 그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가능한 것이라 기술만 가지고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은 불교에 있다고 하는 부부는 "불교가 이론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듯이, 책을 만드는 것도 그저 글만 전달한다고 생각해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장인정신으로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만들고 있는 책의 분야로 저자와 함께 깊이 들어가서 서로 말이 통할 정도의 비슷한 경계에 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애인 작가 작품집 출간 후원
"'어떻게' 도울지 깊이고민해야"
'보리수아래' 활동 보고 감동해

그 두 사람이 장애인 불자들을 대하는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송강 스님, 동봉 스님, 준수 스님, 황산 스님, 향록 스님, 석암 스님, 선엽 스님 등, 주요 저자 스님들 소개 뒤에 장애 작가들을 주요 저자로 소개하는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고맙다.

어느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보리수아래 장애 작가들의 작품을 출간하고 있는 도서출판 도반 대표 김광호 이상미 부부.

"최근에는 불자 장애인 단체인 '보리수아래'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장애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불편한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무척 재미있고 당당하게 해가는 것을 보면서, 불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최명숙 대표를 편집주간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치는 밖에 있는 것도,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한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부처님 가르침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출판사도 큰 보람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돈이나 권력과 바꾸겠습니까. 오직 몸과 마음을 다할 뿐입니다."

최근 보리수아래 감성수필 첫 번째 책을 낸 윤정열 작가가 마지막 교정을 보기 위해 출판사를 방문했었다. 교정을 다 보고 나니 저녁 8시가 훌쩍 넘었다. 김광호 대표는 윤정열 씨를 안양 출판사에서 수서의 집까지 바래다주었다.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편집일과 하루종일 씨름을 하다 피곤한 저녁에 그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한 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시간을 불문하고 똑같이 행동에 옮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 작가들의 책이 나오면 직접 작가를 만나 전달하면서 축하의 말을 잊지 않고 마음에 드는지를 살피는 배려를 잊지 않는다.

나도 미쳐 생각을 못 하는 부분까지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부부에게 때때로 감동한다.

김광호 · 이상미 부부는 "대장경을 만들어 둔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느리더라도 한 권 한 권 진정성 있는 책을 만들어 요즘을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을 내는 것이 곧 행복"이라 말한다. 두 사람은 책 만드는 행복 속에 사람을 부처님처럼 귀히 여기고, 멋진 부처님 가르침을 위해서 일한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보살이다.

장애인 포교를 말하며 아무리 좋은 강좌를 기획해 초청해도 다양해지고 바쁜 세상에서 낯선 곳으로 접근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김광호 이상미 부부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교감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 행동으로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포교가 될 것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일일시호일

복막염 반복에 수차례 생사기로…
가족걱정에 눈물

캄보디아 출신 찬디라씨 장천공으로 4차례 수술…위험 고비 넘겨
체중 40kg대로 줄어…기약 없는 치료에 병원비는 3000만원 훌쩍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⑰ 잭 콘필드의 '마음의 숲을 거닐다'

▶ **한줄 요약**
이 책은 마음챙김을 통해 몸과 마음과 정신을 깨어 있게 하여 우리를 주변 세계와 융합시켜 주는 체계적인 수련 기법들을 저자의 개인적인 체험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眞我 발견 없이 수행 완결 없어"



잭 콘필드(Jack Kornfield)는…
오늘의 지구촌을 이끌어 나가는 영성 지도자. 태국, 미얀마, 인도에서 승려로 수행하였으며, 1974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명상수행을 지도해 왔다. 임상심리학 박사이기도 한 그는 미국에 테라와다 불교를 소개한 1세대로 꼽힌다. 통찰명상수행원(Insight Meditation Society)과 스피릿록(Spirit Rock) 명상센터 등 지금은 미국 내 최대 불교 수행 그룹이 된 곳들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마음이 아플 땐 불교심리학〉,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어려울 때 힘이 되는 87가지 명상〉, 〈깨달음 이후 빨랫감〉, 〈아잔 차 스님의 오두막〉 등이 있다.



'마음챙김'으로 몸과정신을 깨워
주변세계와 융합하는 방법 소개

수행이 삶 속에 녹아들려면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들 중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한 잭 콘필드는 주위의 기대와 예상을 보기좋게 깨뜨리고 뜻밖의 길을 선택한다. 멀리 태국으로 날아가 머리를 깎고 수행자의 길을 걷기로 한 것. 사춘기 시절에 읽은 롭상 람파의 〈제3의 눈〉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부양 같은 초능력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명상을 통해서 기묘한 황홀경이나 행복감 등 특이 체험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수행은 지극히 단순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가사 하나 걸치고 발우만 지닌 채 매일 10km 가까이 걸으며 음식을 구해 한 끼 식사를 해결했고, 여러 해 동안 전통적인 명상 수행을 했다. 밤새 숲속에 앉아 화장터에서 시신들이 불타는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다. 1년간은 방안에서 침묵수행을 하며 하루 스무 시간씩 좌선이나 행선에 몰두하기도 했다. 이 사원 저 사원을 오가며 탁월한 가르침을 받았고, 배움을 준 스님들께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5년 만에 승려의 신분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가사를 걸치고 뉴욕 시내로 나갔다가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낯선 시선에 너무나 당황한다. 스님을 '사람이 아닌' 별종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문제였지만, 그 스스로 수행과 삶이 너무나 유리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나날 속에서 수행의 성과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는 승복을 벗고 대학원에 들어갔고, 택시기사로 일하는 한편, 밤에는 정신병원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명상수행이 현실의 인간관계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결혼을 했지만, 금방 관계의 갈등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그는 불교 수행을 하기 전과 다름없이 비난과 두려움, 수용과 거부를 거듭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수천 명의 수행자들과 함께할 때에는 자애명상을 마음껏 실행할 수 있었지만, 세속에서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혹독한 괴로움에 시달렸다. 명상에 매달리면서 고통스런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는 실제 삶 속에서 수행이 녹아들어가는 법을 생각하고 실천하기 시작한다. 그는 영적인 삶을 살려 한다면 '모든 행동에 영성이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고 생각했다.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숨 쉴 때나 한 입 한 입 음식을 먹을 때에도 모든 행동에 영성생활이 녹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차크라를 따라 위로 위로 올라갔던 그의 수행은 이제는 '차크라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욱 깊이 있고 인간적인 성격을 띠어갔다.'

어떻게 해야 수행은 현대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스며들어서 통합될 수 있을까? 이 책은 마음챙김을 통해 몸과 마음과 정신을 깨어 있게 하여 우리를 주변 세계와 융합시켜 주는 체계적인 수련 기법들을 저자의 개인적인 체험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자아 해체의 과정에서 심오한 공(空)의 깨달음으로

우리는 누구나 '나' 라는 것이 별개의 개체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키워 가면서 그 개체를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개별적인 '작은 자아' 에 대한 믿음은 근본적으로 망상이며 그 착각이 고통을 일으키고 우리를 생의 자유와 신비에서 멀어지게 한다. 세상은 '인과적 일어남과 사라짐' 속에서 소란스럽게 진행되지만, '나는 이 몸이 아니고, 그래서 태어난 적도 없고 당연히 죽지도 않을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든 것' 임을 깨달은 자는 고요한 평정 속에서 그동안 내내 자신을 얽어냈던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내가 없으면 문제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인가? 실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본질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현대 물리학과 불교가 손잡고 강변한들, '공(空)' 을 터득한 데서 오는 이 생의 덧없음과 무의미함은 어찌할 것인가? 잭 콘필드는 '자아관념의 해체나 생의 무아적 본질을 경험하는 일은 영성생활에서 동전의 한쪽 면에 해당할 뿐' 이라고 말한다. 무아를 발견하는 것과 더불어 진아(眞我) 또한 발견하지 않으면 수행은 완결될 수 없다.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참본성이 아니라면, 우리의 진아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옛날 중국의 천자가 고명한 고승을 불러 자아의 본성을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고승은 16면으로 된 방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다. 각 면은 물론 바닥에서 천장까지 거울들을 정확히 마주보도록 붙이게 했다. 소승은 방 한가운데에 촛불 하나를 켰다. 천자가 그 방에 들어서자 촛불이 수천 개로 보이고 거울에 비친 각각의 모습은 아득히 먼 곳으로 뻗어 나갔다. 그러자 고승은 촛불 자리에 작은 수정을 갖다놓았다. 이번에는 천자의 눈앞에 작은 수정의 형체들이 사방팔방에 가득 들어찼다. 고승이 가만히 수정을 가리켰다. 천자가 들여다보니 한가운데에 놓인 수정의 작은 표면들에 방을 가득 메운 수천 개의 수정이 반사되어 나타났다. 고승은 그런 식으로 가장 미세한 조각에 온 우주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무아를 넘어 진아로

무아를 넘어 진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아주 작은 수정 안에 온 우주가 투영되듯 개체를 살면서도 개체의 생존과 번영에 매달리지 않고 '온 우주가 곧 나' 라는 탁 트인 시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월트 휘트먼이 "나는 믿네, 풀잎 하나가 저 별들의 운행에 버금가는 오묘한 신비임을. …그리고 쥐 한 마리가 수천억 무신론자를 쓰러뜨리고도 남을 거대한 기적임을."이라고 노래했듯이, 깨달은 자는 '작은 나' 에 함몰되지 않고 거대한 신비의 나라를 호흡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꾸밈이나 거짓 없이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우주 속에 평온히 내려앉는다. 이런 평범함 속에는 높음도 낮음도, 붙잡을 것도 갈망할 것도 없다. 그저 세상의 기쁨과 고통에 대한 깨달음과 열린 사랑이 있을 뿐이다. …도의 강물은 바위들 사이를 요리저리 지나고 조금씩 바위를 깎아내며 흐른다. 그리고 점점 더 낮은 데로 내려가 결국에는 바다로 돌아간다. 이런 평범함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온다."

잰 콘필드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싯다르타〉에서 주인공 싯다르타가 강물을 바라보면서 크게 각성하는 장면을 소환한다.

"이제 싯다르타는 골똘히 들으며, 깊숙이 몰입하여, 지극히 빈 상태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자신이 경청하는 기술을 철저히 터득했음을 느꼈다. 전에도 자주 이 모든 소리들, 강물 속에서 아우성치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들었지만, 오늘 이 소리는 상당히 달랐다. …무수한 말소리들, 수많은 안간힘들, 온갖 넋두리들, 애절한 슬픔들, 짜릿한 쾌락들,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사건들의 강물을 이루고 생의 음악이 되었다. 싯다르타가 이 강물의 소리, 수만 가지 목소리의 노래에 깊숙이 빠져들었을 때, 그저 슬픔이나 웃음소리에만 몰두하지 않았을 때, 자기 영혼을 어느 한 목소리에만 얽어매고 그 속에 말려들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것, 전체, 통일체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수천 가지 목소리의 위대한 노래는 하나의 말로 변했다. 절대성!"

이 위대한 노래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찮은 가능성들에 나 자신을 팔아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물건, 저런 기계가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외쳐대는 물질주의와 소유 만능의 신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극심한 고립을 자초하는 경쟁과 개인주의의 '창살 없는 감옥' 안에서, 허무하기 그지없는 성공과 성취의 신화, 그 허구성을 절감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더욱 더 덫에 갇혀버리게 된다. 하지만 탈출의 길은 결코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지극히 가까이에 있다. "깨달음은 새로 발견되는 무엇이 아니다. 항상 있어왔던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기 안의 그 목소리를 들어보라. 그대의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만물의 통일성을 깨치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너무 단순해서 설마 그럴까 하고 의심하게 되기 싶다. 만일 자신이 놓인 그곳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다면, 대체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죽음-재탄생의 명상

〈티벳 사자의 서〉는 망자의 영을 도와 다음 생으로 옮겨가도록 안내하는 책이지만, 이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루, 한 순간, 한 호흡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은 깨우침을 안겨준다. 참된 우리의 본성 안을 상기시켜 늘 중심을 지키게 해주는 '명상의 말' 이기 때문이다.

"투명한 빛을 떠올리리라. 우주의 삼라만상이 거기서 탄생했다가 그리로 되돌아가는 맑고 순수한 빛을 생각하라. 그것은 당신 정신의 원래 본성, 감추어진 우주의 근원적 상태이다. 그 투명한 빛 속으로 들어가라. 마음 놓고 빨려들라. 그것이 당신의 참 본성이고 진정한 고향이다. 당신이 경험하는 광경들은 당신 의식 속에 존재한다. 그것들이 그려내는 모습들은 당신이 지닌 과거의 집착, 욕망, 두려움 그리고 과거의 업(業)에서 생겨난 것들이다. 그 광경들은 당신의 의식 밖에서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 그것들이 아무리 무시무시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을 해칠 수 없다. 그것들이 당신의 의식을 통과하도록 놔주라. 그들은 모두 금방 지나갈 것이다. 그것들에 휩쓸릴 필요도 없고, 그 황홀한 광경에 홀릴 것도 없고, 으스스한 장면에 움찔할 것도 없고,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냥 지나가게 놔두라. 만일 당신이 그것들에 휘말리면, 오랫동안 혼돈 속에 방황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것들은 아무런 실체가 없다. … 이 가르침들을 기억하고, 찬란한 광명, 자신의 본성에서 뿜어나오는 순수하고 찬연한 빛을 떠올리라. 그것은 영원하다. 자신이 경험하는 광경들을 들여다보고 그것들이 이 우주의 삼라만상과 똑같은 맑고 순수한 빛으로 이루어졌음을 느끼라. 그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 순수한 빛은 언제든 당신 옆에 있다."

〈작가〉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대행 스님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제 전부 고정되지 않고 한 찰나야, 한 찰나!

여러분한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부하는 데는 유창하게 설법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이 그대로 참선이라는 거,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관하고 관하면서 뛰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무 데서라도 한생각을 내면 법이 돼야 하고, 법이 됨으로써 그것을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보이는 세상에서만 활용이 아니라, 우리가 움죽거려서 활용이 아니라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움죽거리는 활용이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움죽거리지 않고 움죽거릴 수 있는 활용이 아주 필요해요. 이건 100%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과학적인 문제를 앞장서서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이면,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손가락 하나를 눌러서 될 일이라면 손가락 하나를 누르지 않고 손가락 하나를 누를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 앞으로는 점점…, 우리는 이 마음의 계발이 필요하고 마음속에, 온 누리에다, 생명이 있는 고차원적인 인간에게는 다 그 보배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보배가 주어져 있는 것을 자기가 쓰지 못해서 걱정이죠. 왜 그것을 쓰지 못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그냥 놓고 지금 버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버리고 나투면서 고정된 관념 속이 아니라 고정되지 않는 그러한 관념 속에서 그냥 관념 없이 무심으로 돌아가는데, 놓고 돌아가는데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를 납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납득을 못 하니까 자기가 한다고, 어저께는 이렇게 이렇게 했고,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고, 그리고 또 '내가 했다' 고 하고, 모든 것을 '나, 나, 나, 나' 하다가 보니까…. 나는 달팽이 껍질과 같은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알고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달팽이 껍질 속의 달팽이, 달팽이 그 속에 참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자기는 찰나찰나 나투며 화해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안다면 공했다는 겁니다. 그 공했다는 건 수차에 얘기했죠? 그 공해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눈 감은 것도 눈 뜬 것도 아닌, 감은 것도 내내 고정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뜬 것도 고정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고정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선 것도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야. 모두가 듣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전부 고정되지 않고 한 찰나야, 한 찰나! 우리 살아나가는 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한 찰나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몇십 년을, 몇 년을 이걸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앞으로 미래로 성큼 넘어서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뒤로 자꾸 밀려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말라빠져 죽은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잠재의식 속에, 자기가 살아 있는 그 습이 거기에 그냥 똘똘 뭉쳐 있고 뭉쳐 있고 그래서 그게 업이 되는 줄 모르고, 그것이 찌꺼기가 돼서 자기를 자꾸 막아 가는 줄은 모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발 한 발 딛고 지금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어 놓았는데 벗어 놓는다는 생각도 없이 저 신발을 그냥 무심으로 벗어 놓았습니다. 그게 금이라면, 그게 보석이라면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벗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신발은 그다지 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심으로 벗어 놓는 겁니다. 만약에 금을 끼고 왔다면, 금을 신고 왔다면, 금신이라면 어이구, 저걸 끼고 들어오지 저기다가 저렇게 벗어 놓고 들어올 리가 없죠.

난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 이런 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하치않기 때문에 저기 그냥 벗어 놓는 겁니다. 저거 하나 잃어버리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지경이라면 저거 안 벗어 놓을 겁니다. 그와 같이 저렇게 무심코 벗어 놓을 수 있는 것이 그냥 우리 지금 살림이며 참선이며 생활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걸음, 저 문지방을 뛰어넘을 때 뛰어넘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뛰어넘었습니까, 저 문지방을? 저기가 만약에 이승이고 여기가 저승이라면 생각을 하면서 뛰어넘었겠습니까?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자체가 내놓을 것이 없는 거, 내놓을 것이 없는 그 자체가 만약에 저승이라면, 서천국이라면 지금 여긴, 우리 지금 현실 세계를 동천국이라고 합시다. 해가 지금 떴다 이거야.

이 세상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장이라 그런다면, 저기가 지금 이승, 여기가 저승이라고 한다면 무심코 저렇게 뛰어넘어야 할 텐데 벌써 저승이라는 게 있고 이승이라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음 놀음인데…. 다 마음의 조작이에요, 이게. 근데 그 마음의 조작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백네 날 금강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뭘 하며, 염불을 달달달달 외우면 뭐 하며 목탁을 백네 날 쳐 봤던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근본 우리가 "얘, 너 먹어라. 너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게 바로 설법이야, 응? 그리고 또 손 하나 움죽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 맛있다. 너 먹어라." 이게 행이야, 행! 이게 그대로 설법이자 행이고 행이자 법이라 이거야, 우리가. 그대로 참선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가까이 턱밑에다가 놓고도, 그리고 모두 여러분이 무심으로 한 발 떼어 놓고 뒷발자국은 없어지고 앞발자국은 떼어 놓지 않았으니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말이 많고 불법이 그렇게 가지, 이파리 수효대로, 당최 가리상봉을 할 수 없이 이파리 하나하나가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니 이거 불법이 어떻게 된 겁니까? 49년을 설해 놨어도, 그렇게 행으로 보여 줬어도, 나는 한 마디도 안 했노라고 했어도 그 뜻을 모르니 여러분이 어떻게 불제자라고 할 수 있으며 대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등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꼭 요점만…. 여러분이 옳게 가시나 안 가시나 그거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래야 공부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모든 게 여러분 한 사람이 없다면 우주도 없는 거고 상대방도 없는 겁니다, 상대도 없고.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개인이 있으니까 모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누구더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게 머리로 잔뜩 올라와서 머리로 다 온다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도 나타나고 지장도 나타나고 모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하나가 어머니를 만나면 딸이 되고 남편을 만나니까 아내가 됐어, 금방." 한 찰나죠, 그게. 허, 고걸 잘 들으세요. 이 마음으로 깊숙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얼마나 묘한 묘법입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회전하는 데 걸리지 않고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묘법입니다, 바로.

근데 금방 또 친구가 왔거든요. 그러니 한 찰나에 친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찰나에 누가 왔느냐 하면 애들 삼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찰나에 뭐가 됐느냐 하면 바로 자기는 형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하루에도 이름이 몇 가지가 됩니까?

그러니 여기 부처님이 해 놓으신 그 뜻이, 한 부처님께서 여러 수만, 천백억화신의 부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천백억화신이라 하는 것이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마음에서, 한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마음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스스로 누이가 됐다가 아내가 됐다가 엄마가 됐다가 딸이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야, 하루에 몇 번 변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만나는 족족 그 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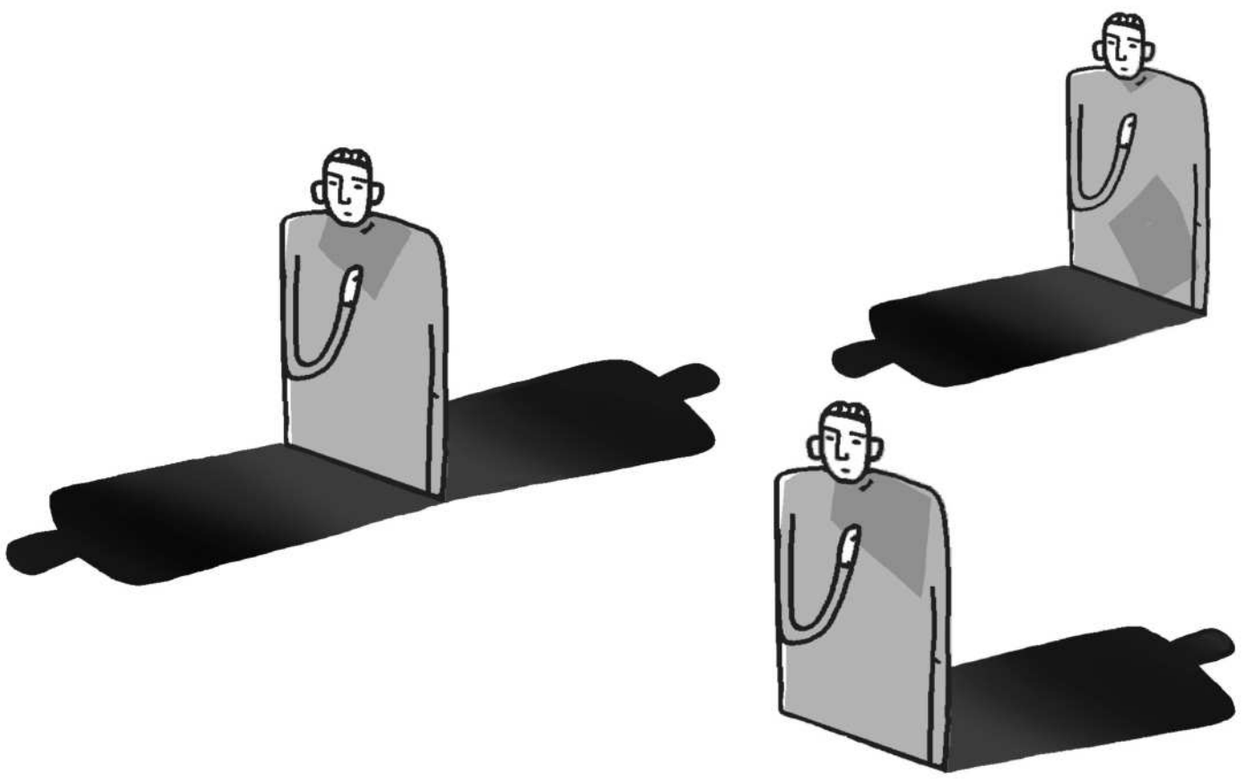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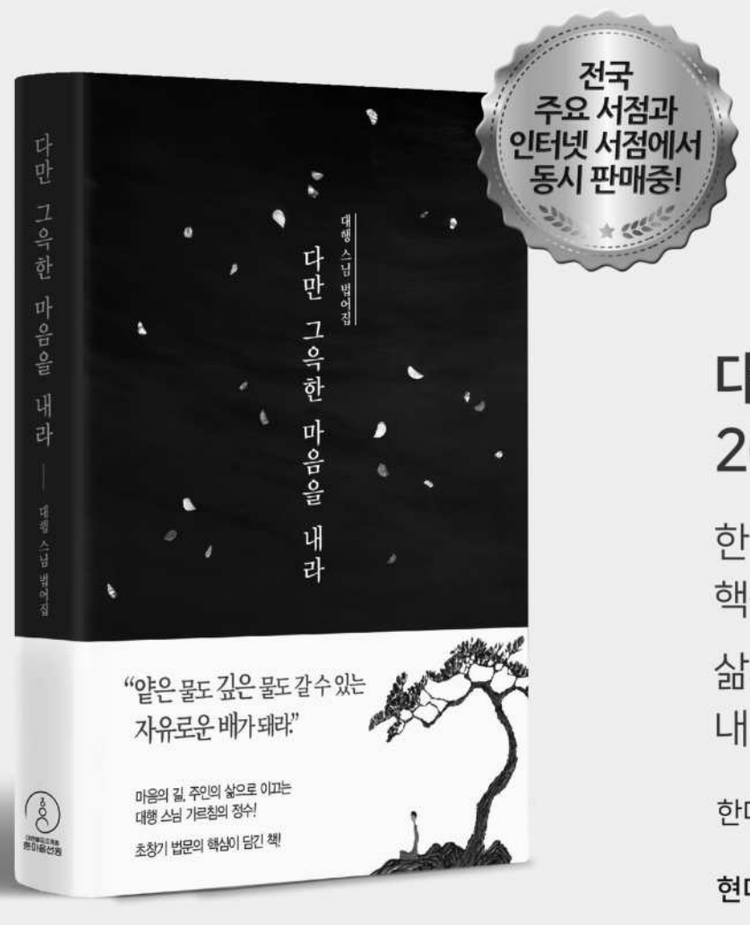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22면으로 계속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자기 마음속의 자부처 안에서 일체 만법이 나고 든다

☞ 21면에서 계속

을 보고 "엄마!" 그랬다가 또 어떤 사람이 만나면 "형님!" 그랬다가 또 어떤 사람이 만나면 "형수!" 그랬다가 어떤 사람이 만나면 "여보!" 그랬다가 아니, 그러면 그 한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름을 부르는데 그 여러 이름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나가서 노동을 하면 노동꾼이 되고 사무실에 가서 행정을 보면 바로 사무원입니다. 과장으로 승진이 되면 과장님이에요. 계장님이고 과장님이고 총무고 이사고 또 사장이고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도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가 앉은 자리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과장으로 앉았을 때 다르고 회장으로 앉았을 때 다르고 또 총무로 앉았을 때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리가. 모습도 달라져요, 행이 다르니까. 남이 부르는 것도 그렇고 행도 그렇고 다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이 말을 잘 들으시고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자부처가 들어 계시니 그 자부처 안에서 일체 만법이 나고 든다' 하는 이 도리를 아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남한테 속지 않을 거고 생활해 나가는 데에 조금도 걸림이 없을 거고, 앉아서 미지의 세계에 전부 행을 할 거고, 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보이는 세상에서는 다양하게 걸리지 않고 행을 움죽거릴 수 있고요. 그러니 "야, 이 산천초목 천지만물 중에 모두가 만 가지 꽃이 되며, 만 가지 향이 되며, 만 가지 법이 되니 어찌 부처님 아닌 게 있으랴?" 나도 빼놓지 않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말이에요. 나 빼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빼놓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빠지려고 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같은 한자리에 그 만 가지 꽃과 만 가지 향을 만 가지 법으로 조화를 이루고….

요새 아시안 게임이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속수무책으로…, 안 보면 모르지만 내 눈앞에 이렇게 딱 닥칠 때는, 야, 군인들이 싸움을 할 때는 군인의 경험 있는 의식을 거기다가 해 줘야 힘이 나죠. 만약에 아무 경험도 없는 의식을 그 의식에다 붙여 주면 소용없단 말입니다. 괜히 힘만 나지 요량이 없단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할 때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보이는 걸로 해야 여러분이 알아들을 테니까 그럽니다. 나 나무라지 마세요. 허허허.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유명하다 할 땐, 아주 그, 잘하지 않습니까? 그 의식을, 요기에다 힘을 같이 포함해 주는 그런 요량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응용하실 수 있는 그 한마디만 들으면 만법의 응용을 다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일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겨서 찬을 만들어야 할 텐데 찬은 하나도 모르고 쓰레질만 잘하는 사람 갖다가 놓으면 찬은 어떡합니까? 또 바느질을 해야 될 텐데 찬을 잘하기만 하고 바느질을 못해. 그런 사람을 갖다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걸 요량 있게, 이것이 걸림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이치가 아주 법이 돼서, 스스로 법이 돼서 그냥 무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아주 묘법으로 돌아가야만 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서 지금 무심으로 저렇게, 문지방을 넘어서야겠다 하는 생각 없이 넘어서고, 똥을 눠야겠다 하는 생각 없이 똥 마려우면 그냥 뛰어가서 누고 그러듯이, 또 그게 만약에 금이 아니라면, 걸레라면 그냥 이렇게 아무 데나 빨아서 던져 놓죠, 그릇에 담아 놓든지. 그래도 그것을 누가 집어 가려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무심으로 갖다 놓습니다. 금도 그렇게 무심으로 갖다 놓을 수 있으리만큼 돼야 됩니다. 그게 하상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잠깐 캠핑 와서 놀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놀다 가는 길에 그저 당장 쓸 거, 당장 먹을 거 요것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그거 먹고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 맘 먹는 사람은. 그런데 더 깽겨 놓으려고 짊어지고 다니니까 무거워서 끽소리 못하고 어떤 땐 이 어깨가 축 늘어지고, 부산을 향해야 할 텐데 짐이 무거워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찌부러져 죽거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가다 말고 그것도 다 못 가져가곤 그냥 죽거든요. 그런 분들이 허다히 많거든요. 세상에, 아니, 100원 짊어지고 가려고 벌다가 단 50원도 못 벌고 그냥 죽어 버리거든요. 그 왜 그럽니까? 이 세상 게 전부 여러분 건데 왜 일부러 짊어지고 다녀요? 쓸 때나 쓰면 됐지. 열쇠 하나만 가지면 됐고. 아이 참 내!

내가 만약에 책을 보고 여러분한테 요렇게 애길 해 준다면 난 쓸모없는 인간, 죽어야 마땅하지. 정말입니다. 난 더 살고 싶지도 않고 또 이렇게 죽고 싶지도 않고, 아예 그냥 편안해요. 그렇다 해서 잘난 것은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울면 나도 울고, 여러분이 쓰라리면 나도 쓰라리고, 여러분이 쾌활하게 웃으면 나도 웃고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고 똑같지 않으면 부처 될 수도 없죠.

예전에 말입니다, 내가 그때는 스무 살 먹기 전이니까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어디를 걷다가, 그때도 한참 공부라는 거 없이, 모르고 그냥 할 땝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중더러 하는 소리가 "얘야! 어느 부부가 살았는데 배고픈 사람이라는 거는 전부 데려다가 집으로 끌고 들어왔단다, 남편이." "그래서요?" "근데 아내는 말이야, 밥을 해다 놓고 이게 뭐냐고 해서 밥이라 하면 절굿공이 가지고 들어와서 때려서 내쫓고 남편은 자꾸 데려오고, 부인은 그게 뭐냐고 그래서 밥이라고 그러면 그냥 때려 내쫓고….

그 소문이 그냥 파다하게 났거든. 파다하게나 가지고 밥이라고 하면 밥도 안 주고 때려 내쫓는다는 소문이 나서 밥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또. 아니라고 해도 절굿공일 가지고 들어와서 확 그냥, 막 때려서 내쫓았거든. 그러니 그때 네가 만약에 그 밥을 먹으러 들어갔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날더러. 그때 나는 그게 무슨 나발 같은 소린가 했거든요. 하하하…. 지나온 게 지나온 게 아니라 생생한 오늘입니다.

이 이야길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관하고 있다가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그 관하던 걸 다 잊어버렸죠? 저녁에 가서 '아이고, 하루 종일 놓쳤구나.' 허허, 이러시질 마세요. '하루 종일 놓쳤구나.' 하지 마시고 고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벌써 열두 시간이 지났으면 열두 시간이 바로 자기가 생각난 그 한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한 찰나가 24시간도 될 수 있고, 한 찰나가, 생각나는 그 한 찰나, 관할 수 있는 그 한 찰나가 며칠도 될 수 있고 천 년도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물며 내가 놓쳤다고 한탄을 해요? 그런다면 걸려. 벌써 24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 미지의 세계와 지금 현실 세계와 둘이 아니게 회전이 돼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회전을 못 하고 자꾸 걸려서, 이거는 공부라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미신의 행위를 하거나 그 도리를 모른다면 우리가 죽어서도 잠재해 있는 그 차원에 따라서 또다시 이 고통을 면칠 못해.

그래 인제, 뭐냐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나발 같은 소린가 하고선 아무 소리 않고선 아주 묵언을 했습니다. 그러곤 있다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개천을 건너가는데 말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조그만 돌맹이에 딱 발끝이 차여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니까 내가 물에 그냥 탁 엎드러졌단 말입니다. 엎드러지면서 이 머리가 그냥 그리로 닿으면서 깨졌는데, 물이 그냥 이쪽저쪽으로 좀 많이 튀겨졌겠습니까?

그거를 보고서 '아하! 이 크고 작은 방울이 다, 밥이라고 해도 아니 되고 밥이 아니라고 해도 아니 되는 그런 이치, 말을 해도 아니 되고 안 해도 아니 되는 이치로구나. 내가 엎드러졌으면 그냥 엎드러졌지, 그냥 무심코 저기 뛰어넘어 왔으면 될 걸, 뭘 이게 밥이다 밥이 아니다 할 게 뭐 있어? 아, 밥 한 그릇 해다 놨으면 그냥 주워 먹을 거지, 허허, 아니 그게 아니다 기다 할 게 뭐 있느냐.' 하고 그 생각이 퍼뜩 떠오르면서 '옳지, 내가 배고프면 먹고 똥 마려우면 똥 누고 자고 싶으면 자는 거지. 그게 법이지. 무슨 그 나발 같은 소리는 다 필요 없는 거지.' 하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모든 이 생활의 참선, 또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이 한 생각 뛰어넘을 수 있다면 미지의 세계의 활용과 지금 현실의 세계의 활용이 둘이 아니라는 그 점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다고요. 그 맛들을 여러분이 본다면 이 세상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어. 그런데 뭐, 보석이 수만큼 걸려 있어도, 많다 하더라도 그까짓 거 눈에 차지도 않아. 아이, 땅속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만데. 물속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고. 모두가 다,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쯤 해 놓고요. (중략)

난 어저께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어저께요, 난 이름도 몰라요, 운동 이름, 그거. 근데 뚱그렇게 해 놓곤 살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 둘이서 하나는 빨간 걸 입고 하나는 파란 걸 입고 하는데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 글쎄, 그 사람을 넘기려다 들리지는 않고, 하하하…. 그러니까 글쎄, 그 큰 몸이 그걸 넘기려다 그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아유, 얼마나 내가 혼자 앉아서 웃었는지 말입니다.

웃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들어가는 순간, 두 번이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너도 참 둔하기도 하다, 둔하기도 해. 몸뚱이도 둔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이럭하고선 '얘, 어차피 나왔으니….' 지금 암에 죽는 것도 자기가 그 암 속에 그냥 푹 파묻혀서 죽는 거거든. 이게 그 짝이라. 아무 데 갖다 붙여도 돼요. 또 그건 그렇게 두고요, '그러면 네 힘하고 빨간 거 힘하고, 너 파란 거에다 한데 합쳐서 그냥, 어차피 하던 거 그냥 해라.' 하하하…. '아니, 하나가 돼야 끝이 나지 이건 그냥…. 그럼 어떡하니? 이왕지사 뭐, 아주 싸우는 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랬더니만 아, 어떻게 번쩍 들더니만 둘이 그냥 막 뒹굴래길쳐요. 그러더니 이겼대요. 아니 세상에, 그런 운동도 다 있어요. 세상에, 아무거나 붙여 놓고도 운동이래요. 허허, 아니, 그뿐인가요? 요만한 막대기 가지고, 요만한 거 쪼그만 걸 가지고 그걸 치고 다녀. 하하하…. 얼마나 웃깁니까, 글쎄.

아이, 모두 운동도 운동이지만요, 또 한 가지 말하자면, 내가 또 울었습니다. 왜? 이 조선의 역사를 볼 때에 얼마나 중국의 탄압을 받았고 일본의 탄압을 받아 왔던가? 우리가 개척한 지가 뭐 얼마나 됐던가? 그래, 너희들은 좀 쉬어. 하하하…. 너희들은 그렇게 자리 잡고 오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고 우린 지금 사십몇 년밖엔 안 돼. 하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깃발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아마 그전에 나도 그 자리에 있었나 보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그 역사가, 얼마나 피를 흘렸고 얼마나 아팠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이왕지사 이 모습을 가지고 나왔으니 나는 앉아서라도,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꼭 불국토를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 이 세상을 전부 그냥 요렇게 조화롭게 해서 말입니다. 스키야키, 아니지, 전골 있지 않습니까? 전골! 전골을 해야죠? 그래야 맛이 나지, 전골을 해 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장차 아, 우리가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전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능력을 기릅시다. 전골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산천초목 천지만물 중에 모두가
만 가지 꽃이 되며 만 가지 향이 되며 만 가지 법이 되니
어찌 부처님 아닌 게 있으랴!

※위 법문은 1986년 9월 27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현불 논단 |

천리순례, 그리고 서원공동체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의정 스님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엔
천축 순례 신라 스님 10여 명 기록
고원 · 바다 건너는 험난한 여정에
순례스님 중 80~90%는 귀환못해
구법승덕분에 佛法 한반도에 전래

삼보사찰 이어내는 천리순례길은
1800년 韓불교사 담아 내고 있어
걸음들, 서원공동체 밑거름 되길

한국불교에서 순례는 오래된 전통이다. 한국불교는 전래와 수용부터 옛 스님들 한 분 한 분의 순례와 구법을 통해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7세기 말 당나라의 의정 스님이 쓴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는 천축을 순례 중 만난 동아시아의 스님 50여 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 신라 출신 스님이 10여 명에 달한다. 인구 비례를 따진다면 신라 스님의 이 비중은 대단히 높은 것이다.

굳이 세계적인 기행문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혜초 스님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일찍부터 우리 불교에 순례의 전통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스님의 순례길은 실크로드 사막길과 파미르 고원의 서쪽 험한 총령을 넘는 육로와 거센 풍랑을 이겨야 하는 바닷길의 두 가지 길이 있었다. 현장 스님은 〈대당서역기〉에서 부처님의 나라 천축에 다녀오는 구법 순례길을 10명 중에 8~9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길로 묘사했다.

그 죽음의 길을 건너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 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해오면서 형성된 것이 동아시아의 불교이고 한국불교이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들 옛 스님들의 목숨을 건 종교적 열정과 서원이 없었다면, 18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문화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주된 전통을 형성하고 있는 선종(禪宗)의 시작도 순례에서 비롯되었다. 신라 하대와 고려 전기에 걸쳐서 구산선문을 개창한 스님들은 대부분 순례자였다. 후대의 사람들에게 구법승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들 구산선문의 개산조들은 대부분 중국의 유명한 선사들을 참방하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구한 순례자들이기도 했다. 이들 스님들의 중국 내 행로를 쫓아가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당나라의 오대산, 장안, 성도, 그리고 강서성과 6조 혜능 스님이 머물렀던 조계 등이다.

사부대중이 모여 함께 삼보사찰을 잇는 천리길을 순례하는 대규모 불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한국불교가 1800년 영욕의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된 대표적인 불교 성지이다.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를 잇는 길이다. 불교뿐만 아니라 남도의 산야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껴안고 있는 길이다. 동시에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텅 비어버린 지방 도시의 소읍과 들판, 산들을 잇는 길이기도 하다.

전통문화와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을 품고 있지만, 소외되어 있는 농촌마을들과 지역사회들이 힘겹게 삶을 일구고 있는 현장들을 지나는 길이기도 하다. 옛 스님들의 구도정신, 수행정신, 그리고 중생을 아우른 요익중생의 서원이 깃들어 있는 길이다. 그 길을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45년 동안 맨발로 걷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부처님의 대자비심이 되새겨지기를 기원해본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까지 한 걸음도 멈추지 않으셨듯이, 옛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목숨 내놓기를 마다하지 않았듯이, 우리 불교 성지인 삼보사찰을 잇는 순례의 여정 또한 중생을 아우르는 동체대비의 마음들이 절로 우러나는 신행의 길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순례는 쫓아서 따르는 것이다. 삼보사찰을 순례한다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호지(護持)하는 스님들을 쫓아서 따르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 걸음들이 한국불교를 되살리고, 한국사회를 아우르며, 당면한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외된 생명과 소외된 삶들의 가치를 되새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 함께 상생하는 우리 한국불교 서원공동체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언어의 창조성과 에너지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언어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어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말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담겨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일러 언어의 생명력이라고 하지요.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진정성이 담긴 아름답고 좋은 말은 행복한 일들을 생겨나게 합니다. 언어의 창조적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던 불유쾌한 기억들을 지워버려야 해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말들을 반복해서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말을 반복하다보면 내 안에 밝은 기운이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나가버린 과거의 불행한 일과 불유쾌한 기억들을 되살려 누군가를 향해 미움과 증오 그리고 질투의 마음을 보냅니다. 불행한 일들을



그림 · 최주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기회만 있으면 말끝마다 되뇌면서 살고 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말의 씨를 싹트게 하여 불행을 불러들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어의 창조적 힘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은 소리로, 소리는 메아리를 부릅니다.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메아리가 생기게 되는 것처럼 나의 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은 자신의 무의식 깊숙이 입력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말한 대로 되어진다고 합니다. 진언이든 허언이든 언어에는 진정 우리의 기운이 담겨있는 것은 맞습니다. 거친 말을 쓸 때는 거친 기운이 내 온 몸을 휘어잡고 있으며, 부드럽고 다정한 말을 쓸 때는 그런 기운으로 인해 내 안에 평화가 감돌게 됩니다. 남의 가슴을 헤집는 아픈 말을 하고 나면 그 아픈 파장이 자신에게도 전해져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수행 중 하나로 염불기도법이 있습니다. 염불이나 진언을 반복해서 외는 것은 그들이 지닌 에너지를 내 안에 불러오는 것입니다. 경전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몸과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깨달음의 언어를 소리 내어 읽으니 마음이 밝아지고 더불어 몸도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지요.

날마다 좋은 생각을 하고 발전을 가져오는 말을 쓴다면 행복의 문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국공립합창단의 불편한 종교색

국 · 시립합창단의 선곡이 기독교 편향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불교음악원이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종교평화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전국 19개 국 · 시 · 도립합창단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립합창단은 80%, 시립합창단은 70% 수준으로 기독교 음악을 선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중된 선곡의 요인으로는 상임지휘자들의 종교를 지적했다. 전국 공립합창단의 지휘자 모임인 한국합창지휘자협회의 고문과 이사, 사무인력 등 거의 전원이 교회합창단 지휘자와 신학대 교수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KCDA 소속 지휘자는 약 57명 이상으로, 절대 다수가 개신교회나 성가대 혹은 신학대학 교회음악의 배경을 지니고 있어 사실상 개신교 합창단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다소 충격적인 수치일 수 있겠지만, 의외의 결과는 아니다. 합창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양음악 자체가 기독교 문화권에 토대를 두고 있는 데다가, 기독교 신앙 특성상 CCM이나 찬송가 등 음악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인재양성 시스템의 격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결국 합창계에 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익숙하고 잘 알려진 기독교 합창곡을 선곡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물론 도 넘은 종교편향은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해야 하겠지만 그 요인을 되짚어 봐야 할 시점이다. 수준 높은 찬불합창곡 제작 및 활성화를 위한 관심 · 지원의 부재, 불교음악 인재 양성 등에 대한 무관심이 이 같은 현실을 가속화시켰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기후위기 대책 변화 시급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종교계 민간위원으로 활동해 온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이 위원직을 사퇴했다고 한다. 함께 활동했던 백종연 신부, 안홍택 목사, 김선명 교무도 위원직을 내려놨다.

이들 종교인은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탄소중립시나리오 안과 2030온실가스감축목표 안이 제대로 도출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여전히 기업 · 산업계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부에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탄소중립의 실질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올해 5월 출범했다. 정부 각 부처 장관 등 정부측 위원과 각 분야별 민간 위원을 포함한 97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위원회는 출범 이후 꾸준히 '그린워싱위원회' 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탄소중립이라는 당초 목적과 맞지 않게 시나리오와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다. 법만 스님 등이 "그린워싱 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위원들의 사퇴는 종교계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6일 오연재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가장 먼저 민간위원으로서 사퇴했고, 9월 27일에는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이 위원직을 내려놨다.

기후위기는 당장 인류 존속의 당면 문제이다. 안수정등(岸樹井藤)의 비유처럼 상황이 급박함에도 당장의 단물에 취해 위험을 망각하는 우를 현재 정부는 보여주고 있다.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계 위원들의 잇따른 사퇴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경종이다. 정부는 깊이 새기고, 전향적인 변화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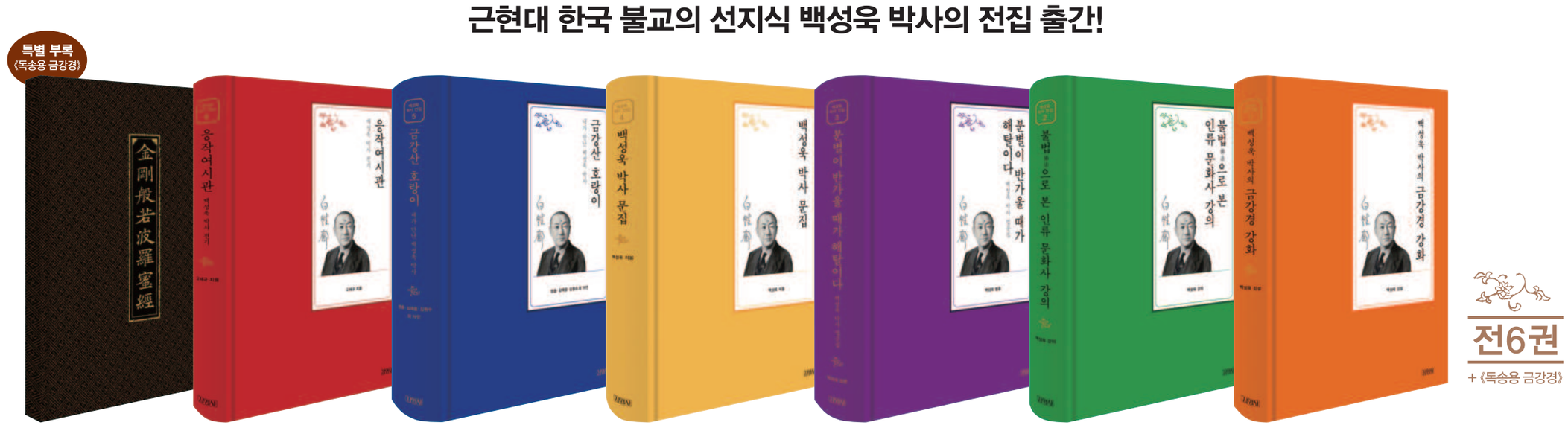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5~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BTN 붓다회
BUDDHACLUB
BTN 붓다회 방송포교 25년
- 코로나19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다 -
만약,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 나투신다면 어떻게 전법하실까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법을 전하였지만,
오늘날이라면 방송국 카메라앞에서 법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송포교 매체가 BTN불교TV입니다
BTN 붓다회는 방송포교 원력을 후원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 1855-0108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김영사
TEL:031)955-3100 www.gimmyoung.com

"내 말도 갖지 말고 다 바쳐라"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최초의 독일 철학박사, 건국 운동가이자 내무부장관,
동국대 총장이자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사장, 금강산의 수행자이자 활불活佛이라 불린
근현대 한국 불교의 선지식 백성욱 박사의 전집 출간!**



전6권
+《독송용 금강경》

백성욱 박사 전집

백성욱 박사 전집 1

백성욱 박사의 금강경 강화

백성욱 강설, 김강유 · 이광옥 · 김원수 받아적음 | 412쪽 양장 | 19,000원

독창적인 시각과 해석이 돋보이는 백성욱 박사의《금강경》해설서. 1959년 동국대학교 강의를 바탕으로, 문도들의 사가에서 설한 추가 강의까지 정리하여 함께 실었다.

백성욱 박사 전집 2

불법佛法으로 본 인류 문화사 강의

백성욱 강의, 이광옥 · 김강유 받아적음 | 528쪽 양장 | 23,000원

불교의 관점에서 인류와 세계, 문화와 역사를 입체적으로 파헤친 백성욱 박사의 인문학 특강.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기(1953~1961)에 교수와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20장으로 나누어 실었다.

백성욱 박사 전집 3

분별이 반가울 때가 해탈이다
: 백성욱 박사 법문집

백성욱 법문 | 840쪽 양장 | 29,000원

다양한 자료에 흩어져 있던 백성욱 박사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집약한 법문집. 학인과 대중을 상대로 남긴 말씀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19장으로 나누어 실었고, 지인과 학인이 전하는 일화도 담았다.

백성욱 박사 전집 4

백성욱 박사 문집

백성욱 지음 | 600쪽 양장 | 26,000원

백성욱 박사가 직접 쓴 논문 · 시 · 에세이 · 편지 · 법문 등 글 모음집.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 박사학위 논문인 〈불교순전철학〉을 포함하여,《불교》《동광》《동아일보》《조선일보》등 여러 매체에 기고한 40여 편의 글을 모았다.

백성욱 박사 전집 5

금강산 호랑이: 내가 만난 백성욱 박사

정종 · 김재웅 · 김원수 외 19인 | 736쪽 양장 | 29,000원

시인, 교육자, 학자, 정치인, 종교인, 문화계 인사 등 스물둘 명사와 학인들이 백성욱 박사의 진면목을 밝힌다. 백성욱 박사와의 일화, 소사에서의 생활, 열반에 들기까지 생생한 이야기가 담긴 회고록.

백성욱 박사 전집 6

응작여시관: 백성욱 박사 전기

고세규 지음 | 404쪽 양장 | 18,000원

백성욱 박사의 지인과 제자 학인들의 회고, 각종 기록과 언론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백성욱 박사의 생애와 세계. 편지와 논문, 시와 에세이, 주요 강의와 법문 등을 집약하여 정리한 백성욱 박사에 대한 최초 본격 전기. 한 권으로 맛보는 백성욱 박사의 문장과 말씀, 일대기와 가르침.



**"아침저녁으로《금강경》을 읽으시되, 부처님 앞에서 법문 듣는 마음으로 하시고,
이를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몸은 움직여야 건강해지고 마음은 안정함으로써 지혜가 생기니,
육체로는 규칙적으로 일하고, 정신은 절대로 가만두십시오.
그저 부지런히《금강경》을 읽고 '미륵존여래불' 하여 자꾸 바치십시오."**

주문 및 문의 02-3668-3250 낱권 및 6권 세트 판매. 전6권 세트 144,000원(별책 부록《독송용 금강반야바라밀경》증정)

금강석 같은 지혜로 분별망상을 자르고 참으로 행복해지는 공부법

백성욱 박사가 현토를 한《금강반야바라밀경》을 저본으로, 해인사 고려대장경본 등 여러 판본을 대조 비교하여 교정한 독송용 금강경. 의미 단위로 토를 달고 띄어쓰기를 하여, 독송하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독송용
금강반야바라밀경(전2권)
한문본+한글 한문 혼용본 | 64쪽 | 9,600원

호쾌한 선線과 농담濃淡으로 풀어낸 농담弄談 같은 선禪의 통쾌한 가르침

왜 스님은 강에 빠진 사내를 태연하게 보고만 있을까?
왜 사내는 경전을 박박 찢으며 호기롭게 웃고 있을까?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한중일 옛 그림 속 숨은 이야기를 선사들의 시와 함께 흥미롭게 담아냈다.



2020 올해의 불서 · 2021 세종도서 선정
선禪의 통쾌한 농담
김영욱 | 304쪽 | 17,800원

사유의 근간을 뒤흔드는 경이로운 시간! 수행하는 철학자가 밝힌 나와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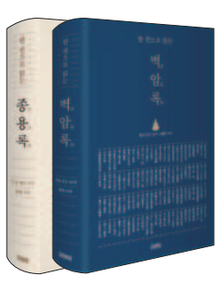
불교의 핵심개념인 공, 연기, 수행, 일체유심조, 공적영지로 나와 세계의 실상을 밝힌 다섯 번의 명강의. 일상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논리법칙을 들여다보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사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파헤친다.



마음은 어떻게 세계를 만드는가
한자경 | 240쪽 | 14,800원

언어로 언어를 부수는 문자선의 향연! 선禪 수행자의 필독서

선어록의 양대 산맥을 한 권으로 독파한다.
임제종《벽암록》과 조동종《종용록》의 정수를
정통 선학자의 명쾌한 해설로 각각 한 권에 담았다.
당대 최고의 공안公案을 가려 뽑은 선의 교과서!



한 권으로 읽는 **종용록**
만송 행수 편저 | 혜원 역해 | 504쪽 | 21,000원

한 권으로 읽는 **벽암록**
원오 극근 편저 | 혜원 역해 | 616쪽 | 23,000원